

# 旌斯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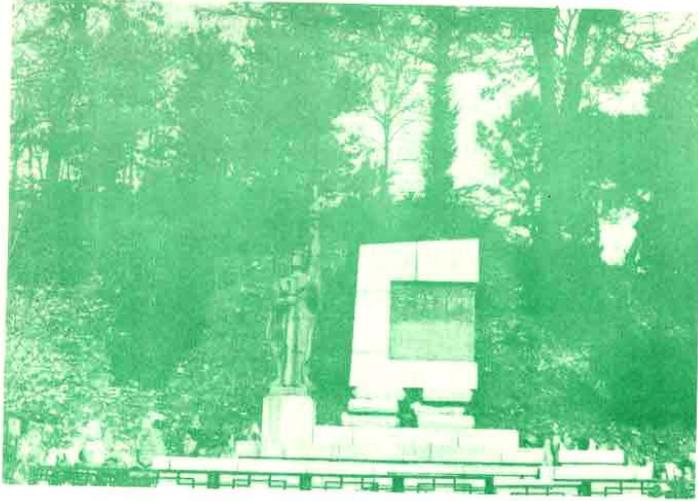
横城文化院

# 於斯夏

第三號

橫城文化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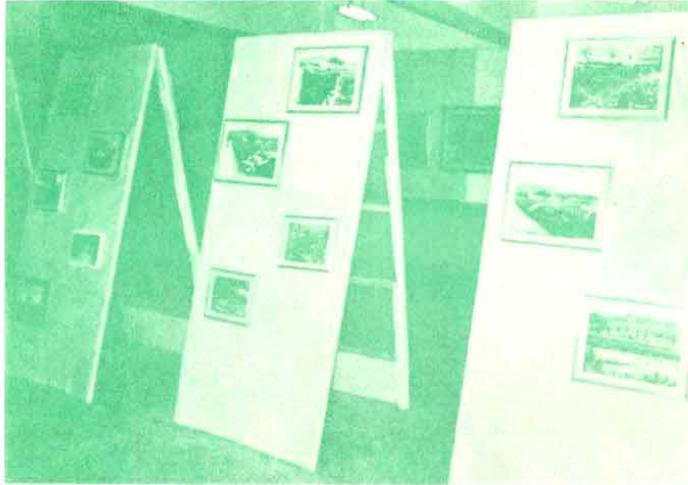
— 화 보 —



橫城은 愛國의 고장이다  
— 3.1 운동 기념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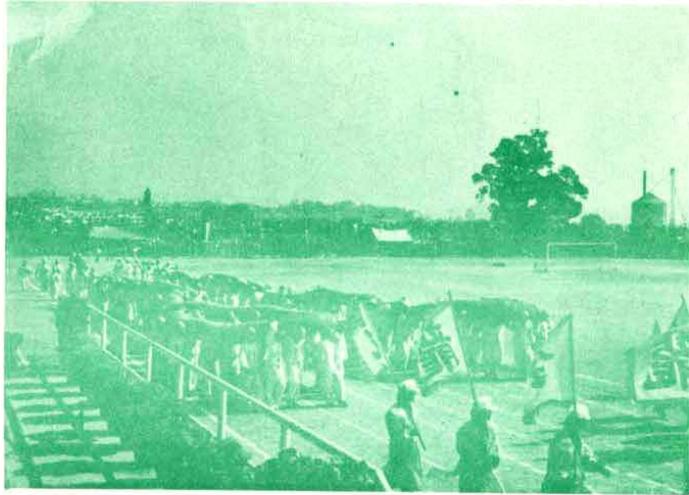
서원면 압곡리 백로 및 왜가리 서식지  
— 천연기념 248 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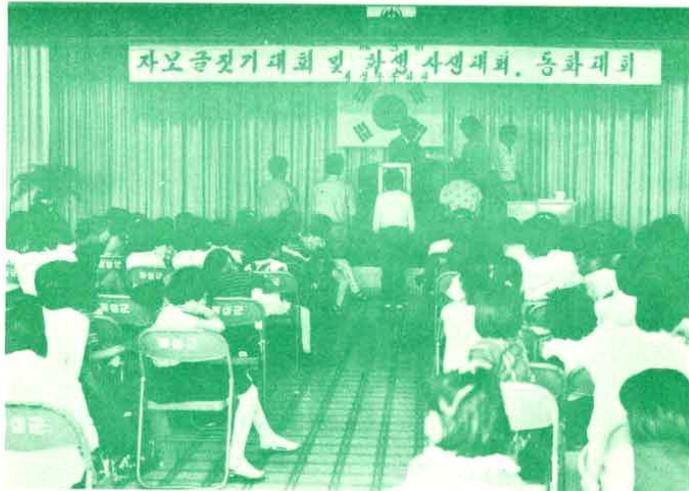
제 2회 태풍전



지방문화발전을 위한 내교장 문화제단이 85.11.12일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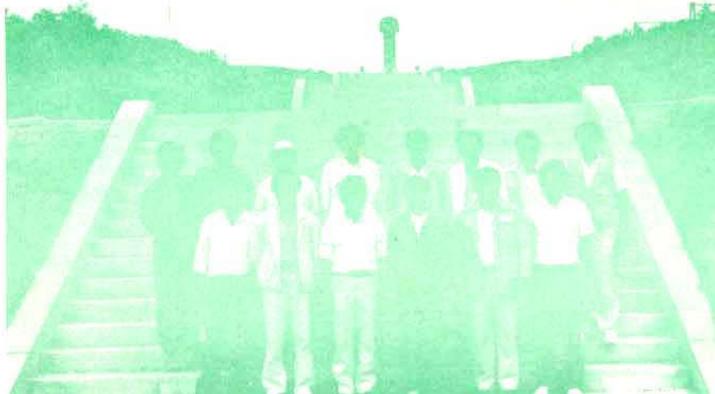
제 5 회 태풍문화제 (형성문화원이 지원한 농악경연)



중요사상 양양을 위한 효행사례발표회가 개최되었다.



향토 동시인 李淵昇선생의 동시집「햇살이 사는 동네」  
出版記念會가 橫城文化院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橫城文化院 理事會 선진지 견학

## 卷 頭 言



橫城文化院長 韓 重 熙

“於斯買”란 高句麗時 橫城郡邑의 原名으로서 뿌리 찾기 運動으로 83年度에 創刊된 文藝誌로서 발간 3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내세울만한 뚜렷한 그 무엇을 찾지못해 세살난 갓난 애기로서 橫城의 뿌리인 “於斯買” 文化에 對해 警考(별고)하면 於字는 살다 거처하다는 住居의 뜻이고 斯는 이사 곳 살다는 이치를 뜻하며 거기에 買는 사다(팔다의 相對語)라는 뜻이 합쳐서 縱의 文化를 象徵합니다.

여기에서 그後 橫城으로 바뀌었는데 橫城이란 빛긴다 빛나간다는 가로의 뜻을 지녀 縱인 於斯買가 橫인 가로와 잘 和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사는 옷감(衣類)에는 날실(縱絲)과 이 날실을 가로 지르는 씨실(橫絲女縱絲)이 서로 가로 엮어져 衣裳文化를 이룩했습니다.

이렇게 볼때 수대를 이어오면서 이곳에 살면서 토배기 根性을 이룬 文化와 삶(生活)을 위해 東西 南北에서 물려오는 外來人의 橫의인 根性이 交流되면서 넓히고 넓혀서 사고(買) 팔고(賣)하는 合作으로 잘 發展해왔습니다.

이러한 縱橫의 文化는 人爲의으로만도 안되고 自然的인 條件이나 地理的인 環境을 토대로 해서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點을 감안해 볼때 橫城의 젊은이들이 諸般文化生活에 參與할길은 더 놓았읍니다.

讀書를 願하면 文化院 讀書室에서 工夫하고 美術活動은 願한다면 展示會를 通해서 詩를 쓰는 분들께는 詩朗誦會等으로 모든 分野에 機能을 發揮할수 있으리라 確信합니다.

研究하는 習慣 그 習慣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이는 場에서 共感帶를 形成하는 바른 生活의 모습이야말로 橫城地域 文化發展의 기틀이라 믿읍니다.

깨닫고 느낀 글을 本 “於斯買” 誌에 掲載하면서 다듬고 고치며 서로의 모순을 指摘하는 討論으로 無窮한 發展을 이룩합시다.

# 於 斯 羅 차 례

권두언	황성문화원장/한중희 .....	5
서 시	햇살이 사는 동네/이연승 .....	8
	애향심/국회의원/김용대 .....	9
	향도에 관한 소망/국회의원/함종한 .....	11
	문화원의 역할과 기대/황성군수/한상철 .....	14
	축사/황성경찰서장/김용진 .....	16
	축사/황성군변영회회장/정호일 .....	17
수 상	고향/이진우 .....	21
	황성문화원에 바란다/함재윤 .....	24
	학교발전과 지역발전/황성고등학교장/박선철 .....	26
	농촌청소년에게 붙인다/황성군농촌지도소장/이홍우 .....	29
	남도의 유적순례/황성정화협의회사무국장/김기원 .....	32
	산업사회와 청소년/황성경찰서보안과장/정진철 .....	38
	인간성의 논리/어사매회장/이상천 .....	41
	지도자상/황성문화원 부원장/김정기 .....	44
	작지만 몇몇한 문화/황성군 문화공보실/김승기 .....	47
	흔들리는 백세성도/황성고등학교/유상희 .....	50
기행문	자매도시 "가스텔" 을 다녀와서 .....	55
	황성문화원장/한중희	
문 예	원앙외 2편/곽영기 .....	65
	시조짓는법 기초/곽영기 .....	68
<시>	이사가던날 외 1편 /이연승 .....	71
	고향하룻밤/이진우 .....	73
	할머니꿈속으로 내리는 눈 외 1편/김성수 .....	74
	나그네길/김성기 .....	77
	다쓰지못한시 외 1편/양승준 .....	80
	소녀의 기도/권용환 .....	82
	대한의 영웅들/김기원 .....	83
	과도 외 2편 /이상천 .....	87
	저녁강에서 외 1편 /홍식운 .....	90
	북소리 외 1편 /홍명남 .....	92
	스물한살의 비망록/엄미자 .....	94

	안개 밭/김영란.....	95
<만화>	김용환.....	96
<수필>	고향/임교순.....	97
	K 간호원에게/송수영.....	100
	고진감래/조원천.....	101
<꿈트>	조속한 아이들/김양수.....	104
<단편소설>	신바람/정재영.....	108

## 논 단

국가발전과 문화의 기능.....	129
서울대학교 교수 신문학박사/차배근	
횡성인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뿌리정신.....	139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 교수/조상현	

## 횡성의 재발견

횡성의 항일항쟁사/김승기.....	149
--------------------	-----

### <움직이는 횡성문화원>

'86 횡성문화원 사업계획.....	181
---------------------	-----

#### <표지설명>

연 갈색의 기품진 횡성들 이곳에 보금자리들  
 마련한 이웃과 이웃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보  
 살피 화목한 고을을 이루어 온 우리. 하나의 힘  
 보다 둘의 힘이 더 큰 것을 잘 아는 우리는 앞  
 으로 더 더욱이 힘을 합하리.  
 그리고 발전하리.....

발행처 : 횡성문화원  
 발행인 : 한 중 회  
 편집인 : 김 정 기  
 정 재 영  
 김 승 기  
 이 상 천  
 표지화 : 이 병 현  
 인쇄 : 서 원 사  
 발행일 : 1985. 12. 31.



햇살이 사는 동네

햇살이  
사는  
동네에는

모두  
모두  
모여 듭니다.

가랑잎이  
길 가다  
쉬었다 가고

또래 또래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추위 떨던  
찬 마음이  
녹아 내리고

햇살이  
사는 동네는  
따뜻 합니다.

— 이연승 선생 제 2동시집 중에서 —



## 愛 鄉 心

國會議員 金 容 大

내故鄉 橫城에서 於斯買라는 文藝誌가 3輯째 나옴을 眞心으로 慶賀해 마지 않습니다.

勿論 橫城郡民이면 누구나 自己故鄉을 아끼고 사랑하겠지만 나는 내가 태어났고 자라났으며 죽어서 묻혀갈 橫城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호랑이해를 맞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橫城의 靑少年여러분에게 勸하고 싶은말은 愛鄉運動의 展開입니다.

“여러분은 故鄉 橫城을 爲해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하고 묻고싶습니다. 泰岐山 마루에서 始作되는 섬강의 물줄기는 3갈래로 갈라져 橫城을 싸고 돌면서 흘러 南漢江을 이룰때까지 우리고장의 젓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祖上들은 이곳을 中心으로 밭을 갈아서는 모밀과 밀 보리를 심고 가꾸면서 國難이 닥칠때 마다 이를 막아내면서 가꾸고 다듬어왔습니다. 저 有名한 高麗時節 우리橫城出身인 趙冲將軍은 37년에 걸친 靑安族의 끈질긴 侵略을 막아냈으며 마침내 公根面에 三元師밭을 만들어 냈던것입니다. 또한 屯內面 鳥項里 桑田洞 (俗稱=뽕밭골)에는 戰亂時 十勝之地라하여 6.25戰亂때 避難處이기도 한 名勝地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또한 “橫城平野”란 이름의 우리 橫城 앞뜰은 얼마나 시원하고 후련함을 주고 있습니까? 그뜰을 굽이쳐 흐르는 앞내는 (前川) 얼마나 맑습니까? 첫닭의 울음소리와 더불어 새벽잠을 깬 어린 時節의 나는 진달래 목련 피는 뒷동산을 맨발로 뛰놀면서 꿈을 키우면서 성장한 정든 고장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요즘 農村이 都市보다 못살고 있다고 합니다. 勿論 그렇습니다. 祖國의 近代化課程에서 產業의 發達을 爲해 農村의 近代化가 뒤로 밀려났으며 農村의 有能한 젊은 人力이 都市로 都市로 옮겨가다보니 勞動力이 줄고 收入이 줄은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빠빠지게 일해서 農事를 지어 밭을 갈고 소를 길러 팔아도 子女들의 學資金으로 都市로 다 보내고 나머지는 빈 주머니만으로 목정밭이 늘어나고 있음도 是認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政府도 農工團地라 해서 農村에 工團을 竝設해서 農繁期에는 農事를 지어 收入을 올리고 農閑期에도 工團에서 일해서 年中 勞動力을 풀 가동하여 所得을 올릴수 있게 하고 農業生産基盤도 마련해 줄 計劃입니다.

저는 이미 橫城邑 靑龍里에 畜協飼料工場을 비롯해서 斗山農産 其他 4個의 工場을 유치하는 農工地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 地域 靑은이들에게 일터를 마련해 주려고 努力중입니다.

아울러 農業生産基盤으로는 野山을 開發하여 平地를 마련토록 하며 農業用水의 開發과 農産物의 圓滑한 유통구조개선등 政策반영에 힘쓰겠습니다.

한편 우리 故鄉을 아끼고 가꾸려는 뜻있는 靑은이들에게는 營農資金을 融資(長期計劃)토록 해서 땅을 사는데나 소를 사는데에 도와 주는 政策을 樹立하는데에 힘쓰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俗言처럼 내가 사는 내고장을 내힘으로 잘 가꾸고 지키려는 굳은 意志가 우리 橫城을 사랑하는 愛鄉者임을 強調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與件을 最大한으로 活用하여 끊임없이 努力하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橫城의 靑은이 여러분 讀書의 場이 없으면 圖書館을 마련하기 爲해 뛰어 봅시다.

그리하여 만남의 廣場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불꽃튀는 꿈의 理想을 討論하고 實力이 모자라면 밤을 낮 삼아 冊을 읽고 富者의 꿈을 키우고 先驅者의 뜻을 새기며 닥아오는 21세기에 祖國이 先進國隊列에 들어설때에 우리고장도 先進 어느나라 農村보다도 뒤지지 않는 멋진 田園의 都市農村을 이룩해봅시다.

이웃을 살펴보고 원망하기전에 내 머릿 속을 매우는데 앞장서고 나보다 잘사는이들을 부러워 함보다도 나스스로가 잘사는 기쁨마련에 힘쓰며 불우한 내 이웃을 함께 일깨워 맡겨진 일에 한발한발을 힘차게 내어 던져 꿈을 實踐해 나가봅시다.



## 郷土에 對한 所望

國會議員 咸 鍾 漢

태기산, 덕고산, 청태산,

오염되지 않은 맑은 山河와 아침녘이면 산허리를 끼고 피어나는 차분한 안개, 그리고 저녁이면 서녘하늘을 장식하는 노을을 풍류삼아 소를 몰고 귀가하는 여유있는 농군의 모습, 相扶相助하는 아름다운 풍토……

바로, 우리 고향을 代表하는 「이미지」들이다.

고향을 잃어버린 失郷民의 아픔은 어떤 것일까?

문득, 「만당고의 후예」들을 떠올려 보며 고향을 갖게 해준 祖國과 父母님 은혜에 감사하고 싶다.

보통 「國家」, 「民族」, 「愛國」, 등의 단어들은 우리 一身과 유리된 추상적인 意味로 요원하게 받아들여 지기 쉽다.

그러나 「郷土」란 우리 이웃의 사랑과 정담이 깃들여 있는 낯익은 정서로 뜻만 품는다면, 고향을 위해 쉽게 뛰어볼 수 있고,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곳이다.

내게 郷土에 대한 計劃이 있다면 먼저 향토를 외면하고 他郷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고향에 대한 새로운 뿌리의식과 긍지를 심어주고, 향토민을 위한 도덕재무장이나 사상 강좌등, 만남의 場이 이루어 지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당신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意識이 있다면, 작은 힘이나마 기여해보고 싶다. 그리고 뿌린대로 거두는 希望의 農村, 젊은이들이 깃들 수 있는 우리 農村을 만들고 싶다. 農村에서 꿈이 實現되고 都市民, 失郷民의 포근한 「깃」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

다음은 이 세대를 짊어 질 젊은 靑年들을 위해 하고 싶은 所望이 있다.

요즘, 靑少年들은 급변하는 産業社會의 물결에 휩쓸려 배금사상에 젖어 들고 있으며  
기성세대 보다는 더 쉽게 권력이나 명예를 수용한다.

精神文明의 不在는 건전한 가치관을 병들게 하고, 정신의 「아노미」現像은 각종 범  
죄를 낳는 결과도 초래한다.

진정한 젊음은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正道를 지키며 올바르게 思考하는 者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원대한 포부를 꿈꾸며 巨視的인 안목으로 일을 계획하고 실천, 평가하는 重大한 사  
명을 짊어진 者가 바로 우리 靑少年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不安을 正視시  
켜 주고 역사를 책임질 主人意識을 일깨워 준다면 그들은 자신의 잠재 가능성에 도전  
해 정열을 불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靑少年들에게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靑少年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기성세대가 물려준 유산이라는 점에서, 기성세대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어떤 모범을 보였는가를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것이다.

現代社會는 기성세대와 청소년들 간의 대화를 나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으므로 思  
考의 異質化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  
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對話의 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을 위해 하고싶은 일이 있다면 靑少年 研究에 진력하여 그들의 不安과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고, 靑少年會館이나 「광장마련」을 통해 불우청소년 교육과 상담실을 운  
영하는 일이다.

어느덧 「고향의 품」으로 돌아와 뿌리를 내린 지 벌써 10여년이 흘렀다. 작게나마  
故鄉을 위해 뿌려진 씨가 성숙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所望한다.

끝으로, 내 자신의 완성을 추구하는 일이다. 鄉土를 위한 봉사나 기여는 個人의 完  
成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우선 내 자신을 성찰하고 자아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성숙한 결실이 맺어졌을때 비로소 넓은 바다를 바라볼 수 있  
는 의로운 者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길은 어려움을 인내해야 하는 외롭고 험난한 길이다.

보고 느낀것을 진정 바르게 전달하여, 수용보다는 거부, 도전보다는 안일이 판치는 社會에서, 외치는 소임을 감당하며 돈이나 권력보다 소중한 「뜻」으로 설득하는 뜨겁고 진실한 가슴을 갖고 싶다. 내게 주어진 의미와 여건을 바로 깨닫고 바르게 思考하여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한민족의 의식을 옹기 이끌어 가는 신념을 가진 者가 되는것이 나의 所望이다.

「한알의 밀알」이 되어 작은 일에도 나를 희생하며 고통과 어려움도 기쁘게 감내하는 소명의식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역사에 남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巨視的인 안목에서 작은일부터 계획하고 실천, 평가하여 結果에 연연하지 않는 過程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겠다.



## 文化院의 역할과 기대

橫城郡守 韓 尙 澈

橫城文化院의 文藝誌 於斯買 第二集의 發刊을 祝賀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地方文化創達을 위해 애쓰시는 文化院과 文化界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本人은 그동안 郡民의 精神啓發과 愛郷運動으로 歷史의 뒤안길에 묻혀서 빛을 보지 못한 郷土史를 再發見하여 祖上의 빛난 얼과 愛國 愛族精神을 추앙하며 郡民의 和合과 번영 그리고 자긍심을 함양하기위해 노력해 왔읍니다.

高麗名將 趙冲將軍 義兵將 韓相烈隊長을 비롯하여 崔仁舜·韓基錫·韓甲復·姜道永 朴性默隊長 獨立支士 崔養玉등의 人物과 橫城의 3·1運動 6·25 동란시 自治隊 活動등 橫城의 人物과 歷史的 事件들을 찾아내어 갖고 닦으므로서 우리 橫城은 愛國의 高장이며 우리는 愛國의 後裔라는 榮光되고 자랑스러운 郡民像을 定立하는데 成功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運動을 전개하는 과정에 文化院이 기여한바 큼을 잘알고 있습니다.

이제 1986年 부터는 우리의 努力으로 새롭게 뿌리를 내린 「愛國의 高장」 그리고 「愛國의 後裔」라는 자부를 生活과 밀착시켜 이 傳統을 우리의 表象으로 昇華시키므로서 地域社會發展과 豊艷하고 繁榮된 21世紀를 建設하는데 있어서 우리 橫城의 精神의 支柱로 삼아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精神運動은 地方文化의 産室인 文化院이 앞장서야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橫城文化院이 地方文化創達을 위하여 헌신정려하여 많은 文化事業을 성공리에 이루어 왔으며 文化人口의 底邊擴大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읍니다만 앞으로의 文化院은 文化活動과 精神文化運動을 調和있게 추진해나가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文化院에서는 橫城이 愛國의 高장이고 우리가 愛國의 後裔라는 點을 7万郡民에게 歷史的事實을 들어 널리 弘報함으로서 郡民全體가 自信感에 넘치고 自矜心에 充滿하여 先進祖國創造에 旗手가 되어 우리 祖上이 그랬던 것과 다시 한번 橫城의 명예심을 떨치도록 主導해야 하겠고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아직 발굴되지 않은 史料를 찾아내어 정리하고 再照明하여 널리 선양하므로서 우리 郡民이 자랑스러운 橫城人

이라는 自負와 矜持를 가지고 生活할때 우리 고장은 더욱 發展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  
다.

文化院과 우리郡民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大命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  
으며 橫城文化院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하며 편집위원 여러분의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 축 사

횡성경찰서장 김 용 진

이번에 어사매 향토문화지를 발간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창달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온 국민이 긍지와 슬기를 모아 분연히 일어나 위기에 처해있는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있을때 그러했고, 경제전쟁의 회오리가 불어올때도 그러했으며, 한강의 기적을 세울때도 우리는 또한 그러했습니다.

제 5 공화국이 출범한 후에도 크고 작은 역경은 있었으나 우리 온 국민은 영명하신 전두환대통령 각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국민소득 2,000불을 지향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민족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가꾸는데 또한 진력하여 선진조국을 창업하는 민족답게 문화유산을 가꾸고 사랑하며 승화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조상들의 열과 슬기가 담긴 값진 문화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은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민족문화는 올바른 국가관과 건전한 정신을 양양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문화창달을 위하여 전통문화 유산을 보호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정신문화의 성장 없이는 선진 국민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문화 창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고장에도 정신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킬 어사매가 뿌리를 정착하였습니다. 우리 고장의 슬기를 모아 삶의 근본으로 삼고 후손들에게 정신문화를 물려줄 본지의 발전을 기원하며, 횡성군민에 더 없이 소중한 선물을 건네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 축 사

횡성군 번영회장 정 호 일



지방시대에 발맞추어 향토애와 더불어 연면이 흐르고 있는 우리 생활속에 문화를 재 발견하며 또한 창출하여 지방 문화의 꽃을 피우고져 이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의 목고로 꾸며진 문예지 「於斯買」 제3집의 발간을 우선 축하 하면서 이책이 나오기 까지 애쓰신 한중희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름지기 문화라 함은 자연을 이용하여 인류의 이상을 실현시켜 나가는 정신 활동이라 할진대 이에 근거한 모든 행동과 각양 각색으로 나타나는 사물은 그 시대를 형성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고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문화사(민족사)로서의 존재가치가 부여될것이다. 고로 문화는 민족과 더불어 과거가 있고 현재와 미래가 있기 마련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전국이래 항상 외우내환이 뒤따랐던건만 5천년의 역사를 간진한 민족문화만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찬란하게 고수되어 오늘의 민족사를 형성하였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그 후손으로서 긍지를 느낄수 있음은 오로지 자주적 정신활동에 기인한것으로 믿어 마지 않으며 국력의 신장과 더불어 문화민족으로서의 세계에 과시할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시대와 지역에 따라 고유의 특색은 있기 마련이기에 우리 고장에도 여러 사물이 입증하듯이 전통적으로 농경을 중심으로한 순후하고 정의와 의리에 넘치는 애국의 고장이라는 자랑스러운 전통과 문화를 간직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그러나 근대에 격고 있는 정치사회의 격변하는 사회상과 고도 산업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천과 혼란으로 문화질서의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음은 부인 못할 현실인바 이러한 혼란속에서 올바른 우리 지방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사안이라 많이 할 수 없다. 오로지 애항심에 입각한 전통성의 확립과 주체적인 창조력의 발휘가 요청될 따름이다.

이러한 우리 고장의 대명제에 도전하여 횡성 문화원이 재건된지 짧은 시일이긴 하지

만 그간에 벌려온 활동과 업적은 누구도 찬사를 아니 보낼 수 없는 터에 「於斯買」  
2집에 이어 이번 제3집의 발간은 비록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나 과거를 발굴 정립  
하며 현대를 슬기롭게 빛내고 미래를 접쳐 우리 군민의 문화적인 가치관을 어느 지방  
에 못지 않게 발휘할 수 있는 일대 장거라 하겠는바 이후 해를 거듭하여 가일층의 예  
지와 용기를 발휘하여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축간사에 가름하고저 합니다.

# 수 상



## 故 郷

李 振 雨

“나의 살던 故郷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누구든지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저마다 나름대로의 어린 時節과 故郷을 生覺하게 될 것이다. 나는 橫城에서 태어난 한적한 시골 산이다. 그 곳에서 國民學校를 다녔고 中高校의 과정을 마쳤다. 그 곳에서 30年을 살았고, 故郷을 떠난지도 어언 20年이 넘는다. 20年이 지나도록 故郷이란 의미를 하루도 잊지않았다. 時間만 있으면 달려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게 現實의 삶이다.

지난 8月에야 겨우 時間을 내어 단 하루의 故郷을 방문하게 되었다. 恒常 조심스러운 交通事故의 위험을 까맣게 잊고, 단 일초라도 빨리 故郷 땅을 밟고 싶고, 故郷하늘을 이고 싶은 마음으로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질주하던 버스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린지 不便한 마음의 갈피를 헤일 수 없었다. 차라리 내려서 달리고 싶은 마음의 衝動도 느꼈다.

原州 市街地를 근접하면서 同期生인 崔 範澈(原城 某校 校長)도 만나 보고 싶고 原州市 教育廳에 勤務하는 先輩이신 權 聖熙님께 人事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 懇切하다. 그러나 故郷을 찾는 마음은 급하기만 하다. 마치 동구밖에서 어릴 때 친구가 두 팔을 벌려 기대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다.

초라한 모습으로 변했지만 거의 옛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살던 집, 뒷뜰에 사과가 알몸을 드러내어 크고, 한가마니씩 收穫을 하던 대추나무 가지엔 대추가 주렁 주렁 달렸다.

學校에 갔다 돌아 오면서 매일 같이 쉬어 오던 슬무정과 멀고 먼 학교 길, 고기잡이 하면서 즐기던 냇가, 뼈꾸기가 요란하게 울어 제치던 뒷산, 숨바꼭질 하던 동네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모습들이다. 초가 지붕이 없어지고 기와집으로 현대식 건물로 변했고, 우물이 상수도로 변했지만 구획과 모습은 옛날 그대로였다. 집 앞으로 강릉행 고속도로가 산허리를 뚫었고, 바둑판처럼 정지된 農地가 隔世之感을 禁치 못하게 한다. 그러나 옛날 같이 자라던 소꿉친구들은 별로 없고 아논이마저 他鄉에서 낯익은 얼굴이 分明치 않아하듯 서먹서먹한 마음들이니 “山川은 의구하되 인물은 간데 없네.” 라는 옛 선비의 시귀가 生覺나기도 했다.

나의 故鄉은 山水가 秀麗하고 風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住民들의 마음씨 또한 맑고 아름답다 交通의 中心地요. 많은 文人들을 輩出한 고장이기도 하다.

여하튼, 나는 이렇게 마음에 그리던 故鄉을 보게 되어 多幸스럽지만, 우리 周圍엔 咫尺이 故鄉이건만 가 볼 수 없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한번은 어떤 분의 故鄉에 關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하루에도 수차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休戰線 바로 너머에 故鄉을 두고 오신 분이다. 父母 兄弟와 故鄉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잘 잊지 못하는 복바친 울음을 보았다.

나보다 數百배나 더 故鄉生覺을 하였을 것이다. 放送局에서 이산가족 찾기 放送이 있을 때 혹시나 하는 生覺에 나가보았지만 허사였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없다.

옛부터 末年에 故鄉에 내려가 모든 시름을 잊고, 즐거웠던 친구들과 故鄉 山川에서 余生을 보내며 살았던 先賢들이 많이 있다.

옛날 中國의 동진이라는 나라에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田園 生活에 對한 思慕의 情을 달래지 못해 벼슬(官職)을 버리고 鄉里의 田園으로 돌아가 羹이를 들고 農耕生活을 하면서 一生을 보냈다.

그러나 그것으로 滿足하지 못하여 그는 하나의 別天地를 상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가 쓴 傳說的인 小說 桃花源記에 記錄되어 있다.

그 소설을 보면, 그가 現世와는 유리된 不老長生할 수 있는 별천지인 武陵桃源이 存在 할 것이라는 所望과 미련을 버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토마스모어가 쓴 유토피아도 그 題目的 語源을 分析해 보면

“아무에게도 存在하지 않는 理想의 나라”이다. 勿論 이러한 얘기들은 어디 까지나 공상 소설이므로 實現性이 없는 공상 그 自體로 끝난다.

다만 사람들이 理想郷을 너무도 그리워한 나머지 한때의 時間과 공간을 단절하거나 초월한 양상으로 描寫 할 수 밖에 없는 人間의 限界性을 드러낸 것 뿐이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故郷을 그리워하여 찾기도 하며 또한 理想郷을 꿈꾸기도 했지만, 眞情 人間의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답고 永遠한 낙원은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공상 속의 理想郷이 아닌 死亡과 슬픔과 離別이 없는, 永遠히 實在하는 本郷, 이 곳이야말로 眞情한 나의 故郷임을 다시 한번 實感하면서 기다려 본다.



## 橫城文化院에 바란다

故郷을 떠나온지 벌써 40余年이라는 歲月이 흘렀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故郷을 生覺하는 마음은 恒常 變함이 없고 故郷의 好消息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고 사랑스러운 故郷에 對한 情感을 새삼 느끼게 하곤 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與件속에서도 橫城文化人들이 애써 만드신 橫城文化院의 文藝誌인 「於斯買」를 받아 보았을때 眞心으로 기쁜 마음 限量없었습니다. 이는 韓重熙 文化院長任을 비롯하여 文化院에 關係하시는 편집위원 여러분들의 勞苦의 結實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第25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에서 最優秀賞인 榮光의 大統領賞까지 受賞하여 橫城郡民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自負心을 심어주었고 文化暢達에 對한 認識을 더욱 새롭게 하였다고 보며 泰豐藝術祭와 泰豐展 또한 橫城文化院이 보여준 큰 成果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이 짧은 歲月에 橫城文化의 暢達에 寄與하신것은 橫城郡民들의 자랑뿐이 아니라 江原道의 자랑이며 나가서는 大韓民國의 文化發展에 寄與한 功이 크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業績을 契機로 내 故郷 橫城郡民들의 情緒文化는 勿論이요 地域 社會開發에 새로운 轉氣를 마련하여 더욱 發展하는 내 故郷을 만들어주시기 付宅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뜻에서 故郷의 文化發展을 爲하여 多少나마 도움이 된다면 多幸으로 生覺하고 平素 느끼고 있는 몇가지 저의 所見을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故郷을 떠나 全國 各處에서 各 分野別에 걸쳐 活動하고 계시는 故郷 先後輩 任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도 文化院에서 애써 만드신 文化誌「於斯買」를 보내 드리여 故郷의 文化發展에 寄與할 수 있도록 協助를 付宅드리면 좋겠읍니다.

둘째, 내가 알고 있기에는 文化院에 圖書室이 準備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圖書室에는 圖書나 여러가지 資料가 많이 準備되어야 이를 活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역시 客地에서 活動하고 계신 先後輩任들의 모임을 最大限 活用하여 이를 蒐集한다면 故鄉行進의 育成과 文化伸長을 爲하여 積極 協助하실것으로 確信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더욱 創意와 忍耐로서 橫城文化發展에 이바지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바라며, 院長任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健勝을 祈願하는 바입니다.

## 學校發展과 地域發展

橫城高等學校長 朴 善 喆

우리는 오늘보다 來日을 위하여 산다. 來日是 좀더 나아지리라는 期待感이 없다면 사는 맛이 조금도 없을 것이다. '좀더 나아지리라는 期待感' 그것은 發展의 期待感이다. 어느 地域으로 高速道路가 날 것이라는 計劃이라도 發表되면 그 곳 사람들은 너나없이 즐거워하고 흥겨워 한다.

發展의 期待感이 있기 때문이다. 또 어느 市가 直割市로 昇格이라도 하면 그 道의 또 다른 都市에선 道廳 誘致에 熱을 올린다. 역시 發展의 期待感 때문이다. 物理的인 發展을 期待하기 어려울 때 우리들은 무엇에다 發展의 期待感을 가져야 할까?

여기에 나무가 한 그루 있다. 나무는 大地에 뿌리를 박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大地의 품에 안겨 自然이 주는 물과 空氣와 營養을 받아야만 나무는 자랄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무가 자라기에 豊富해야만 한다. 척박한 땅에 자란 나무와 肥沃한 땅에 자란 나무의 差異가 어떻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잘 자란 나무들은 茂盛한 숲을 이룬다. 숲이 있는 곳에는 새와 짐승이 모여든다. 저마다 숲을 의지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꿈을 키우며 살아간다. 숲속에 흐르는 강물은 더 맑고 즐겁게 노래 부르지만 公害에 찌든 都心에 흐르는 江은 썩은 냄새를 풍기며 죽어간다. 숲은 또 空氣를 깨끗하게 해 준다. 우리가 살아 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산소를 공급한다. 나무야말로 人間이 必要한 重要한 것들을 대주는 主要 供給源이다.

우리들 世界에서의 나무는 學生이라고 할 수 있다. 地域社會는 大地요, 물은 學父母이며 營養은 教師라고 하겠다. 學校라는 限定된 區域에서 教育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地域社會, 學父母, 그리고 教師는 서로 하나의 고리로 連鎖되어 學生이라는 나무를 기르는 것이다. 이 고리의 어느 한 部分이 끊어지더라도 하면 教育은 그만큼 어려움에 봉착한다.

우리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길러진 學生들은 人材의 숲을 이루고 그들은 나뭇

대로 社會와 國家와 民族을 위해 必要한 存在가 된다.

일찍이 教育을 無視한 民族이 興한 例가 없으며 教育을 重視하여 亡한 國家가 없다. 이 말의 범위를 좁혀 말하면 教育을 輕視하는 地域社會는 發展이 있을 수 없고 教育을 重視하는 地域社會는 必然的인 發展을 約束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孫子 兵法에 있는 말이라고 記憶한다. 國家를 굳건히 지키는 세 가지의 重要한 점을 天時, 地利, 人和를 말함이고, 地利는 地形의 이로우므로 人和는 國民의 團合을 이룸이다. 그러나 天時는 不如地利라 하였고 地利는 不如人和라 하였다. 아무리 하늘이 준 機會라도 地形의 이로우만 못하고 지형이 아무리 이롭다 해도 人和만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過去를 보더라도 鎖國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天時를 잃은 것이요, 四色 當爭으로 人和에 금이 가게 한 것은 우리가 아는 뼈저린 歷史다. 半島라는 地形을 올바르게 利用하였다면 無限한 발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의 先祖들은 그것을 몰랐다. 나는 人和보다 더 所重한 것이 있다고 감히 말하겠다. 그것은 教育이라고 우리 民族이 이 程度나마 發展國의 隊列에 설 수 있었던 것도 教育의 힘이 큰 것이다. 아니 教育이 없었으면 도저히 不可能했을 것이다. 人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教育을 바탕으로 해야만 이뤄지는 것이다.

橫城은 작은 社會다. 작지만 거인 소리를 들을 수는 있다. 이 작은 社會가 크게 되는 길은 教育에 힘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橫城이 教育의 重心地가 되었다고 假定해 보자. 이 地域을 이끌어 갈 사람은 勿論이거니와 나라의 人材들은 이곳 學校를 거친 사람이 大部分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橫城地域과 學校의 出身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며, 橫城의 發展을 위해 일할 것이다.

教育은 부메랑과 같다. 잘못된 教育은 惡의 화살이 되어 되돌아 오고 잘된 教育은 榮光의 빛으로 反射된다. 진작부터 橫城의 教育은 부메랑의 效果를 보았고 또 보고 있다.

저 숨막히는 日帝 治下, 橫城은 道內에서 三·一 運動의 燄불을 처음으로 들었

던 바, 그 主動이 이 地域 出身 學生이었고, 共產黨의 南侵時에는 祖國의 방패로 앞  
장섰던 바, 그 亦更 學徒志願兵이었으며 國家가 安定된 오늘에 이르러서는 各 方面에  
많은 人材들을 輩出하고 있다.

教育이 없었다면, 또 學校의 發展이 없었다면 모두 不可能한 일들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학교의 發展은 地域社會의 발전이라는 等式이 成立된다. 우리들은  
地域社會의 發展에 이바지할 學生이라는 나무를 잘 길러야 한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 混濁한 社會의 空氣를 맑게 하고 '不' 과 '非' 와 '否' 를  
씻고 淨化시키는 강물이 흘러 가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教育에 거는 期待感이  
크고 잠시뿐일 수도 있는 物理的 發展보다 永遠한 발전의 原動力이 되는 教育을 重視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教育이 우리들의 責任이라는 先人の 誓詞를 引用해 보면서 이 글을 맺  
고자 한다.

若性不耕與不教

更乃父兄之過歟

(오직 갈지 않고 가르치지 않음은 이는 곧 父兄의 허물이니라. )



## 農村靑少年 여러분에게 붙인다

橫城郡 農村指導所長 李 興 雨

農村靑少年 여러분.

우리나라는 現在 經濟發展의 急流속에서 격심한 社會變動期을 맞아 農村靑少年의 世界에게는 克服하기 어려운 동요와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時點에서 여러 靑少年의 善導育成問題는 오늘날에 있어서 未來을 爲한 關心事가 아니고 바로 오늘의 심각한 現實의인 社會問題로 등장하고 있어 하루 速히 計劃的인 어떤 對處가 이루어져야할 時點에 이르고 있다고 뜻있는 분들의 크나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農村靑少年 여러분은 農村社會 發展의 原動力이며 國家發展의 礎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持續的인 發展을 爲해서는 여러 農村靑少年의 올바른 育成이야 말로 다른것에 比較할 수 없는 國家的인 課題라 하겠습니다.

배우는 靑少年에게는 教育理念에 부합되는 均衡있는 學習經驗을 주고 일하는 靑少年에게는 일하는 人으로서의 自負心과 國民性을 심어주며 방황하는 靑少年에게는 自我成長의 健全한 過程에서 離脫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감싸주는 家庭, 學校, 地域社會가 되어야 우리나라는 풍요속에 不幸을 克服할 수 있다는 것은 教育理念의 基本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날 격심한 社會變動 속에서도 가장 많은 變化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地域은 農村社會 일것입니다.

· 傳統的 農村社會가 어느 사이에 近代의 都市社會의 諸般性格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農村과 都市間의 人口 流動性도 훨씬 빈번 하여 졌습니다. 그 代表的 移動階層이 바로 農村靑少年들로서 여러분들은 農村社會에서의 排出要因, 都市社會로의 吸引要因, 靑少年의 心理的 要因에 의하여 많은 數의 農村靑少年들이 都市로 모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總人口에 對한 農家人口의 比率은 65년에 55%에서, 80년에는 28%로

15年間に 27%나 減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大規模 離農은 農村 靑少年을 中心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農村은 心然的으로 農業 勞動力이 婦女化 및 社會化를 가져오므로서 農業 勞動力의 質的 低下를 가져온다는 問題와 農業 生産量의 차질, 그리고 農村에서의 都市로 물러간 靑少年들의 問題는 單純히 脫農에 依한 農村社會 問題뿐만 아니라 都市로 移住하는 農村靑少年들로 하여금 都市社會 問題를 誘發하는 潛在的 可能性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쯤 생각해 볼 時期에 왔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 農村 靑少年들은 農村社會의 教育, 就業, 文化의 相對的 制限, 어렵게 된 結婚 問題를 인지하고 있는 以上 農村生活에 對한 不滿과 幻滅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겠지만 여러분은 現實에만 집착하지 말고 머나먼 앞날을 내다보며 設計하는 젊은이가 더 重要하고 슬기롭다고 한번쯤 생각해 봅시다.

農村靑少年 여러분.

한 人間을 決定지을 가장 重要한 起點인 그 時期에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눈부신 5月の 太陽처럼 밝으며 빛나는 일새처럼 푸르른 여러분은 싱싱하고 아름다움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無作定 집을 뛰어나와 都市로·都市로, 그리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靑少年은 올바른 것보다는 퇴폐한 장소에서 상처를 입고 때문에 하고 있기도 합니다. 農村靑少年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自身의 人生을 살고 있음을 銘心해야 하겠습니까. 自身의 人生을 그르쳐 버렸을때 여러분에게는 누구도 탓할 변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自身의 責任이기 때문입니다.

人間은 자기 삶의 무게를 홀로 지탱하며 살아가야 할 義務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험겨운 것입니다.

옛적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聖賢들의 말씀이 人間의 存在가 무엇이며 가장 價値있게 사는 方法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애써 왔습니다. 수 많은 정의를 내리려고도 아직도 未決의 章으로 남아 있는 삶의 行路를 여러분과 우리 人間 모두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自身의 價値와 여러분 自身의 行路를 걸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옛 聖賢은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세사람이 길을 같이 가면 左右의 두사람은 自身の 스승이 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山間 벽지의 한 農夫가 봄에 씨뿌리고 여름에 곡식을 잘 가꾸어 가을에 거두어 드리고 겨울에 휴식을 取하여 大自然의 攝理을 성실하게 일구어 간다면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한 農夫가 이렇게 농사일을 함에 있어 欲心없이 순서와 기다림속에 착실하게 사는것이 바로 眞理이라고도 하겠지요.

권세와 富와 學識을 한 몸에 지니고 있으나 不正과 퇴폐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는 사람과는 比較할 수 없는 價値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農村靑少年 여러분.

人間은 자기 나름대로의 無限한 可能性을 지니고 있습니다. 훌륭한 가르침을 가져 알아서 훌륭한 人格을 쌓을 수 있음은 오직 人間만이 해 낼 수 있는 능력이며 어려움이 닦쳤을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克服할 수 있는것도 人間만이 해 낼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합시다. 農村靑少年 여러분. 우리 人間은 自身の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自身이 처해 있는 상황에 눈을 밝게 뜨고 바라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가” 날마다 이러한 질문을 自身에게 던져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있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굳게 닫고 일어서서 힘차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 가십시오.

來日을 向해 굳건히 살아가는 農村靑少年이 되고 福祉農村 建設의 旗手가 되는 農村의 젊은이가 되도록 努力 합시다.



## 南道の 遺跡巡禮

횡성사회정화협의회 사무국장 金 基 元

우리 一行을 싣은 軍艦은 고요한 새벽 하늘에 汽笛을 울리며 미끄러지듯이 잔잔한 바다 위를 徐徐이 움직이기 始作 했다. 시원한 海風을 마시며 暫時동안 談笑를 즐기고 있는 동안에 어느덧 鎮海灣은 뒤로 물리시고 浩浩茫茫한 大海에 등실 등실 떠 내려 간다.

海上에 그림 같이 솟아오른 無數한 섬들을 바라보면서 巨濟島를 끼고 猪島 大竹島를 돌아 뱃머리는 다시 方向을 고쳐 北쪽으로 向한다.

甲板위에 서서 맑고 시원한 晩秋의 海風을 마시고 싶노라니 不然듯이 蘇東波의 赤壁賦의 한 句節이 머리에 떠 오르기도 한다. 마치 거울을 깎아 놓은 듯한 이 맑고 푸른 南海는 限없이 고요하기만 하다.

卷怠로운듯한 갈매기들이 海上에 앉았다간 날고 날았다간 다시 앉아 詩心의 벗이 되어 주기도 한다.

이렇게 海上風景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閑談으로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동안에 閑山島는 벌써 눈앞에 다가선다. 그러니까 鎮海灣을 出航해서 約 일곱時間만에 閑山島에 다다른 셈이 된다.

軍艦은 暫時 水深이 깊은 閑山島 附近에서 닻을 내리고 우리 一行은 다시 小型 보트에 分乘하여 地方有志들의 따뜻한 迎接을 받으면서 단풍이 무르익는 閑山島에 上陸 했다. 閑山島라면 누구나 다 입진왜란 때 忠武公 李舜臣 將軍이 거북선을 타고 倭軍을 南海의 문턱으로 끌어들이어 一擊에 쳐 부신 눈물겹도록 찬란한 歷史의 한 페이지를 連想 하리라.

이 「閑山島」란 代表的인 地名의 하나요 이외에도 많은 地名이 예로부터 傳해오고 있다. 閑山島는 壬辰倭亂 當時에 倭軍의 목이 億個나 쌓였다 해서 「頭億」이라고도 하

고, 我軍間에 相互 信號를 하기 爲해서 山위에 올라가 소라고동을 붙던곳이라 하여 「高銅山」이라고도 하며, 將軍이 甲衣를 풀은 일이 있다고 해서 「解甲島」라고도 한다. 이 外에도 將兵들이 옷을 빨아입은 바위라고 해서 옷바위(衣岩)라고도 하며, 敗戰한 倭兵들이 개미 떼 처럼 달아났던 곳이라고 해서 「蟻項」이라고도 하며, 軍需物資를 쌓아 두었던 곳이라고 하여 「荷所」라고도 하며, 軍糧을 두었던 곳이라 하여 「倉洞」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閑山島의 地名 하나 하나에는 壬辰 丁酉의 戰蹟과 關連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는것 같다.

깨끗이 다듬어 올린 콘크리트 階段을 층층 걸어 올라 珠紅色 大捷門을 열고 들어서면 南海를 발밑으로 내려다 보는 山頂에 吉風으로 아담하게 세워진 단층建築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史蹟 第一—三號로 保存되고 있는 制勝堂이다. 이 制勝堂은 忠武公이 宣朝二六年 七月에 閑山島에 陳을 친 以後에 建立 하고 이곳에서 起居하며 作戰計劃을 세운 곳이라고 한다. 制勝堂을 一名 運籌堂(운주당)이라고도 하는데 「運籌」란 말은 計劃이라는 뜻으로 傳해 오고 있다.

이 建築物은 宣朝 二八年 九月에 下人의 失火로 불탄것을 곧 다시 지었으나, 宣朝三十年 七月에 철천량 海戰에서 敗走한 慶尙石水使 裴楔이 放火하여 없어지고 쓸쓸한 廢墟로 있던것을 一四三年이 지난 英祖十六年에 第一〇七代 統制使 趙倬이 그 遺跡地에 다 옛모습 그대로 이 建築物을 다시 세우고 忠武公의 後孫인 第一二一代 統制使 李泰祥이 增修한後 여러차례의 增修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다. 晩秋의 千山은 紅綠이 우거지고 푸른 南海는 옛일을 속삭이는듯 말없이 고요하기만 한데 壬辰倭亂 當時의 閑山大捷을 連想하니 눈시울이 뜨거워 짐을 느낀다. 制勝堂 境內에는 遺墟碑·記念碑·龜船閣·忠武影堂·大捷門 등이 있고 海上에는 거북船型의 燈台가 서 있어 史蹟地로서의 價値만 있을뿐만 아니라 觀光地로서도 빼놓을 수 없는 名勝地 이기도 하다.

우리 一行은 다시 夕陽의 금빛 물결을 헤치며 忠武市長과 男女學生들의 따뜻한 迎接을 받으면서 忠武市에 上陸했다. 바다 앞에는 無數한 섬들이 散在해서 山과 바다로 調

和를 이루고 있다.

잔잔한 湖水와도 같은 고요한 바다의 都市인 이 아름다운 忠武市는 本來 巨濟縣에 屬하는 「頭龍浦里」였는데 後에 固城郡에 屬했다가 壬辰倭亂後에는 固城郡과 分離되어 鎭南郡이라 칭하였고, 西紀 一九〇四年에는 統營郡 統營面으로 되었다가 西紀 一九三一年에는 統營邑으로 昇格되고, 西紀 一九五五年에 다시 市로 昇格 되면서 忠武市로 改稱 되었다고 한다. 忠武市の 이와 같은 歷史的인 發展은 宣朝三七年에 第六代 三道水軍統制使 李慶滄이 統制營을 이 곳으로 옮긴때 부터 始作 되었으며, 이 때 부터 西紀 一八九五年에 統制使 制度가 없어질때 까지 二九二年間이나 朝鮮水軍의 本據地였으며 地名조차 統營이라고 부르던 古邑이기도 하다.

또한 忠武市는 아름다운 海景을 背景으로 해서 運河·海低道路·運河橋等の 文化施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멋진 風致도 있으려니와 이 곳을 지나면서 찾아보지 않을 수 없는 李舜臣將軍의 위패를 모신 忠烈祠와 洗兵館等の 史蹟을 간직한 戰蹟地로서도 이름이 있는 곳이다.

우리 一行은 다음날 아침에 爲先 忠烈祠를 찾았다. 祠堂을 向해 올라가는 언덕길에는 年輪을 자랑하는 동백나무들이 도열을 하고 우리들을 반가이 맞아주었다. 높다란 階段을 올라 첫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떤 寺刹境內에 들어가는 感이 든다. 祠堂 앞에 모여 함께 拜禮하고 案内者의 입을 통해서 暫時 歷史를 더듬어 본다.

이 忠烈祠는 第七代 統制使 李雲龍이 朝廷의 命을 받아 宣朝三九年에 建立하고, 其 後에 增築과 重建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建物이다. 外三門에는 顯宗께서 直接 下賜했다는 「忠烈祠」라는 懸額이 붙어 있고, 境內에는 正寢·東齋·西齋·崇武齋·景忠齋·內三門 그리고 碑閣들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이 忠烈祠에는 明나라 皇帝가 忠武公에게 下賜한 明朝八品이 保存되고 있어 訪問客들의 눈길을 모으기도 한다.

이 곳에서 발길을 돌려 바닷가로 내려 오면 運河 海低道路 運河橋를 한 눈으로 보게 된다. 規模가 큰것은 아니지만 地上·水上·地下等 세가지의 交通手段을 한자리에다 갖추어 놓았다는 點에서 훌륭한 施設이기도 하다. 바다와 陸地의 調和를 이룬 한쪽의

그림을 보는듯한 珍風景 이다.

運河橋를 건너 車를 세워두고 돌던덕 길을 十分쯤 걸어 올라가면 各種의 樹木이 울창하게 우거진 깊은 山속에 龍華寺가 자리잡고 있다. 아늑한 彌勒山 중턱에 그림 같이 놓여 있는 이 龍華寺는 新羅二七代 善德女王 元년에 創建되고, 高麗二代 元宗 元년에 태풍으로 荒墟消盡 되었다가 李朝 仁祖二년에 다시 再建된 오랜 歷史를 지닌 寺刹로 傳해오고 있다. 또한 이 寺刹은 壬辰倭亂 때 사병을 養成해서 出戰 시켰다는 歷史를 자랑하는 寺刹로서 有名하다.

서늘한 山바람에 땀방울을 식히며 深山幽谷에 앉아 暫時 俗世를 잊고 고요한 명상에 잠겨 보기도 한다. 이 고요한 山寺에서 하루밤을 쉬어가고도 싶은 미련을 남기면서 돌던덕길을 徐々히 내려오면 빠스는 바쁘다는 듯이 우리를 태우고 달아난다.

이윽고 洗兵館에 到着 했다. 이곳을 관람한 後에는 진주로 떠나야 하는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이 앞을 선다.

창해가 눈앞에 펼쳐지는 여황산 기슭에 나직히 자리잡은 洗兵館의 正門을 向해 階段을 층층 걸어올라 가노라면 이마위로 懸額이 걸린다. 그 文字를 주서 읽으면「止戈門」이다. 뒤를 따라 올라오던 案内員이 내 말에 이어「止字와 戈字를 합하면 호반「武」字가 되지요」하고 案内役을 한다. 그리고 보면 이 洗兵館은 戰場에서 돌아온 將兵들이 戈를 一時 멈추고 戰塵을 털며 피로한 몸을 暫時 쉬든 곳ियो 따라서 軍兵만이 드나들던 門이라는 뜻도 兼한것이리라. 이 洗兵館이란 名稱은 唐나라 杜子美의 詩句에 있는「于戈以息換回洗兵」이라고 한데서 따온 것인즉 그 뜻은 軍士들이 武裝을 풀게 된 것을 뜻한다.

이 建物の 歷史를 暫時 더듬어 보면 宣朝三七년에 三道水軍 統制營이 이 곳에 設置되었을 때 當時의 統制使 李慶潛이 創建한 것으로서 建坪이 一八五坪이나 되는 웅장한 建物이다. 이 洗兵館은 第六代 統制使로부터 마지막 第二百八代 統制使 까지 三道水軍 統制營의 本營建物 이었으며 只今은 國寶 第二百九十三號로 指定되어 保存되고 있는 貴重한 古蹟의 하나 이다.

우리 一行은 넓은 대청마루에 올라 앉아 暫時동안 忠武市長의 市概況說明을 듣고 나서 미리 마련된 中食과 茶果를 들면서 옛 武人들이 戰塵의 피로를 덜든 그 모습들을 連想해 본다. 中食이 끝나자 뜰 앞에 펼쳐지는 女學生들의 아름다운 戰勝舞를 감상하고 있노라니 豫定된 出發時間이 재촉하고 있다. 案内와 食事 그리고 女學生들의 戰勝舞等 여러가지로 우리 一行을 爲하여 誠意를 베풀어준 市長·市民 그리고 女學生들에게 感謝의 뜻을 表하며 豫定대로 진주를 向해 車를 몰았다.

忠武에서 西北方으로 固城·泗川을 거쳐 約 三時間동안 먼저 구름을 헤치며 달리노라면 우선 南江이 눈앞에 펼쳐진다. 南江을 끼고 暫時 달리면 南江 다리 저 건너 便 絕壁 위에 攝石樓가 바라보이고 그 뒤 便으로 晉州市가 멀리 보인다.

晉州市의 沿革을 살펴보면 元來 三韓때는 弁韓의 한 城이었고, 그 後 百濟의 居別城을 거쳐 新羅에 接受된 後로는 州가 되었고, 神武王 때는 晉州總管을 두었으며, 高麗 때는 晉州牧, 李朝때는 晉州郡으로 되었다가, 世宗 때는 晉州牧으로 되어 牧使를 두었으며, 한때 慶尙 右兵使의 本營 이기도한 古來의 巨邑 이다. 壬辰倭亂 때는 攝石樓만 남기고 온 고을이 불타버렸고, 韓末의 行政改革으로 慶尙南道 道廳 所在地로서 市勢를 떨쳤으나 西紀 一九二五年에 道廳이 釜山으로 옮겨지면서 다시 衰退하였다가 그 後 西紀 一九三一年에는 邑, 西紀 一九三九年에는 府를 거쳐 西紀 一九四五年에 市로 昇格되어 今일에 이르고 있다.

晉州를 다녀가 보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다 晉州하면 南江을, 南江하면 攝石樓와 아리따운 論介를 連想 하리라. 南江의 푸른 물결을 絕壁 아래로 굽어 보면 웅장한 모습의 攝石樓가 한쪽의 그림같이 놓여 있고 그 옆으로 「指水門」이라고 쓴 懸額이 붙은 論介의 祠堂이 있다.

攝石樓라던 누구나 다 얼핏 놀이터로 生覺 하리라. 그러나 그 歷史를 살펴보면 옛 晉州城의 南將台로서 主將이 全軍을 總 指揮하던 作戰司令部 있었는데 太平年代에는 官吏들의 놀이터로 使用되어 왔다고 한다. 이 建物은 高麗恭愍王 一四年 以前에 創建된 建物로서 七次에 걸쳐 重修를 거듭해 내려오다가 六二五動亂 때에 完全히 燒失 되

있고 지금의 이 建物は 西紀 一九五五年에 再建된 建物이다.

나는 論介 影攄앞에 香을 피워올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의 讖을 追慕했다. 예로 부터 傳해오고 있는 論介의 哀話를 살펴보면, 論介는 全羅道 長水郡 사람이며 當時에 官妓로 있었는데 宣朝 二六年 六月에 倭軍 九萬五千名의 攻撃을 받아 晋州城이 함락되고 城内外 軍官民等 都合 六千餘名이 끝까지 抗戰하다가 倭軍들에 의해 죽음을 當할 때 論介는 憤痛함을 참지 못하여 倭敵의 酒宴에 나가 倭將 “계야무라”(毛谷村之助)의 목을 겨안고 깊은 南江물에 投身하였다는 悲痛한 哀話의 主人公이다.

어찌 한낱 妓生으로만 生覺하라. 民族의 이름으로 欣然히 獻身한 그 偉大한 精神을 어찌 한낱 감투나 쓰고 呼숨이나 하며 一身의 富貴榮華나 누리고 살던 벼슬아치들에 比하라! 只수도 저 푸른 南江에는 그의 魂이 살아있고 길이 民族을 지켜주리라.

이 祠堂이 오랜 歲月을 두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 歷史는 거듭 변했으나 祠堂은 옛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다.

日帝時代に 日人이 기와장을 뜯다가 人夫가 죽음을 當하여 中斷 했다는 이야기와, 晋州의 老妓와 退妓들이 해마다 論介의 祭祀를 몰래 江邊에서 지내왔다는 이야기는 이 祠堂과 함께 숨어 내려오고 있는 傳説이기도 하다. 攝石樓에서 西쪽으로 南江을 굽어보며 十分쯤 걸어가면 옛 城터 인듯한 언덕바지에 옛 晋州城의 遺蹟의 하나인 西將台가 남아 있고, 여기에서 다시 暫時 걸어서 내려가면 聖域으로 간직하고 있는 彰烈祠에 이른다. 이 祠堂은 壬辰 癸巳 兩年の 晋州城 싸움에서 壯烈히 戰死한 忠武公 金持敏 將軍을 비롯해서 倡義使 金千鎰公, 慶尙右道兵馬節度使 崔慶會公, 忠清道兵馬節度使 黃進公等 三十一位의 神位와 諸將軍率을 모셨으며, 宣朝四十年 丁末年(西紀 一六〇七年)에 國王의 莫重賜額을 받은 貴重한 民族의 祭壇이다.

이 祭壇에 香을 피워올리고 겨례를 爲해 몸바친 先烈들의 명복을 追慕하며 拜禮하고 나서 우리는 다음 目的地를 向해 발길을 돌렸다. 晋州農大에 到着하니 이미 마련된 中食이 우리 一行을 기다리고 있다. 따끈한 햇벌이 담뭍 내려쬐이는 잔디밭에 앉아서 地方有志들과 함께 食事を 들면서 老妓들의 古典舞踊을 감상하고 나서 우리는 다시 다음 豫定地로 向했다. 마지막으로 大同工業社와 南江 댐을 두루 살펴보고 午後 五時境에 鎮海를 向해 車를 몰았다.

## 산업사회와 청소년

횡성경찰서 보안과장 정진철

현대 사회는 인류 역사상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도시화, 조직화, 대중화, 기계화의 현상을 견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나”의 능력과 업적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회적 질서로 계약에 기초한 새로운 인간 관계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익명의 사회속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가까운 주변의 눈초리와 인습, 전통을 벗어나서 자기편의 위주의 행동을 할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만큼 한편으로는 따뜻한 인간적 유대감은 사라지고 잿빛 시멘트숲속에서 다람쥐 쳇바퀴도는 고립적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대화 현대화의 과정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 학생 교부의 자율화등 생활의 풍요를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에는 군중속의 고독, 녹색 자연의 파괴 청소년의 탈선등 파괴가 스며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매우 많은 시간과 변화를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변화와 성장에의 열기를 잠시 가라앉히고 보다 장기적이며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변모하는 산업사회 속에 어떻게 청소년이 대처해 나가고 기성인으로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할지 생각해도 보아야 할것입니다.

먼저 기성인으로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에 우리 자신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많은 분들이 청소년의 선도와 불우한 청소년에 내일이 있도록 도와준 반면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 방조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읍니다. 변모하는 사회 일부 사람은 경제속에 갑자기 팽배해진 물질만능 속에 나 만이 존재했지 나 외에 속하는 모든것은 외면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을 올바르게 보는 눈, 독특한 하나의 인간, 심리 세계는 기성인과 다르다는 점, 청소년의 느낌, 청소년을 이해하는 부모의 태도등이 많이 결여되었던것 같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은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가 가정교육입니다.

인간은 가정속에서 태어나 부모의 사랑과 보호와 가르침 속에서 자라납니다. 가정이 없다면 우리는 몸과 마음을 붙일곳이 없어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건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바로 가정에서 나오고 청소년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생활의 기초도, 성격형성의 기초도, 정신적 건강을 촉진하는 과정도 모두 가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성인 부모 자신이 가장 중요한 청소년 선도의 선구자이며 책임자입니다.

둘째는 사회의 여건과 학교의 교육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청소년이 보아서는 가서는 안될곳이 많이 있고 이들의 성장과정을 저해하고 탈선으로 이끄는 불필요한 장애 요소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오락과 편의시설은 반대로 증가 되지 못한채 멈추어진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이러한 점이 해소는 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들이 건전하게 즐길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학교의 전인 교육도 학교 자체의 명성 개인의 성적을 위해 점차 전인교육은 퇴색되고 특점을 위한 성적 위주 교육으로 개인을 공부의 노예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회적 불합리한 여건과 전인교육, 부모의 가정 생활이 건전해지고 밝아질때 우리는 내일의 기둥이 될 청소년을 신뢰하게될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사고방식입니다. 산업 사회속에 청소년은 갑자기 많은 자유와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복의 자율화, 일류제품이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물질의욕의 팽배, 나 자신만을 아는 아집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집니다. 전체의 청소년이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풍요로운 급변하는 사회속에 우리는 무엇을 기초로 하여 내일의 기둥을 바르게 이끌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커다란 톱니바퀴도 혼자서는 돌지 못합니다. 사회의 구조도 작은 바퀴와 큰 바퀴가 맞물리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은 작은 톱니바퀴로 내일을 이끌어갈 미래의 일꾼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바라고 있는것을 대개는 믿으려고 합니다. 그 어떤 강제에 의해서는 청소년은 결코 바르게 성

장 할 수 없으며 행복하게 될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좀더 좋은 이야기로 타이르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때 많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작은 틈니에 많은 손질과 기름을 자주쳐서 변모해 가는 산업 사회속의 청소년을 우리모두 내일의 훌륭한 동량으로 만들고 보람되게 복된 미래를 이어 주어야 할것입니다.



## 인간성의 논리

어사매 회장 이 상 천

### I

기독교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앞으로 데리고 와서 돌로 쳐야 하느냐고 물었을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죄가 없는 사람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으며, 그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였다.

잘못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운은 양심에 따라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인간사회가 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은 항상 시대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것으로 믿는다. 젊은이들은 시대와 사회의 생명을 상징한다. 우리 지역에 젊은이들이 현실에 아픔을 승화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어떠한 위치에서 그 가치를 판단하여야 할까? 소질 개발하고, 취미 써클활동, 대화의 모임이 꿈과 낭만을 스스로 발견할 때 그 속에서 사상과 가치를 나누며 자아의 삶을 찾아야 한다.

시대에 따라 시대정신 (Zeitgeist)이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정신적 경향과 이념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며 가치관을 정하고 삶의 목표를 지시해 주기도 한다.

젊은이들은 삶의 형태에 따라 사회와 호흡하며 그 속에서 참된 삶의 길을 정하여야 한다. 목표속에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다.

외적세계란 물체의 세계이고, 내적세계란 우리들의 의식 세계이다. 공간과 본질이 다른 시간의 세계이고 의식은 시시각각으로 움직이고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이 의식의 본질이고 우리의 의식은 생명이면서 우리의 인격이다.

인간이 산다는것? 존재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창조해 나아가야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바른 자세로 냉철한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며 사회와 자신의 갈등에 정신적 조화를 이루어지며 이상과 목적을 추구하

고 인간은 사고, 감각, 감정, 의욕 행동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고 목적을 추구하며 가치를 실현시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인생에 최고선은 무엇이며, 인간에 생애는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인간의 가치의 세계란. 진은 학문에 가치. 선은 도덕의 가치. 미는 예술적 가치. 성은 종교적 가치이고 인간의 생은 푸른 숲속에서 한없는 지식이 샘이 솟아서 학문시대를 이루었고 아름다운 감정의 씨앗들이 자라서 화려한 예술의 꽃밭을 만들었고, 의지의 뿌리가 떨어져서 종교인 바위가 되었다.

## II

### 인간의 매력!

야성적이며 지성이 높은 인간적인 철학으로 인생관이 투철이 서있는 인간에게 매력을 느낀다. 이 사회에서 매력을 느끼는 인간은 지식과 교양. 지성이 몸에 배 있으면서 현대적인 야성으로 도전하는 사람이다.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능력있는 젊은 이들은 매력을 느낀다. 자기를 사는 인간. 자기를 살출 아는 인간.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아는 인간. 인간에 고독을 아는 인간. 인간의 존재에 애수를 아는 인간. 죽음을 지니고 있는 인간. 생존에 순수고독과 순수허무를 아는 인간은 실존을 이해하면서 살고 있다.

### 실존이란!

인간의 진실 존재와 현실존재를 의미한다.

진실의 실, 현실의 실자와 존재의 존자를 따서 실존이라고 한다.

본질에 대한 현실존재의 근본적 특징은 이것 저것하는 개별적인 개체이고 나너하는 개개의 하나의 주체를 의미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진리이다.

내가 그때문에 살고, 그 때문에 죽을수도 있는 그러한 진리이다. 나의 혼이 움직이고 나의 혼을 구제하는 파토스적진리 이러한 진리가 주체적 진리요. 주체적인 진리는 곧

실존적인 진리이다.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고, 주체적인 진리 실존적인 진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진리이다.

본질에서 보면 인간은 진리를 사랑하는 존재이며 선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며 이상을 추구한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모순과 불합리 범죄와 혼란으로 가득찬 것이 인간의 현실적 모습이 아닌가? 선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며 정의를 생각하면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인간의 현실에는 이러한 부조리가 있고 이것이 바로 본질이 아니고 나타나 있는 그대로 현실의 인간을 실존주의가 상실된 자아를 되찾고 자아회복을 종교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현실적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고 고독한 존재. 절망적 존재.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다.

나는 죄인이다. 인간은 자기가 지은죄 때문에 불안하다.

이 불안과 절망. 죄에서 우리를 구원이 가능한가?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삶의 최고 목적을 쾌락에 두고 사는 인간이여!



## 指導者像

橫城文化院 副院長 金鼎基

요즘 知性人들의 입에서 支配者는 많으나 指導者는 不足하다는 말이 종종 나온다. 이런 現狀은 韓國뿐 아니라 世界的인 추세적인 것 같기도 하다. 支配者와 指導者의 差異를 캐보기로 한다.

支配者는 힘을 바탕으로 무리(象) 위에 君臨하는 者이다. 히틀러 못소리니 스탈린 東條등 2次大戰의 戰爭을 일으켰던 歷史的인 人物들이 이 範疇에 屬한다. 自己의 힘을 기르기 爲해 愛國이나 愛族 그리고 團結을 외치면서 衆의 總力을 集結시킨다. 表面에 내세우는 것은 勿論 愛國愛族이지만 自己의 獨裁를 수립하기 위한 手段이다. 히틀러가 獨逸을 그리고 東條가 日本을 못소리니가 伊太利를 스탈린이 蘇聯을 團結시켰고 特히 젊은층의 힘을 總集合시켜 戰爭을 도발시켰다.

指導者는 說得과 妥協을 통한 理解로서 正道를 가르치며 實行을 바탕으로 둔다. 指導者가 많은 나라와 社會는 弱한듯 하면서도 外柔 內剛으로 엄청난 힘을 發揮한다.

希臘의 哲人 “디오게니스”는 대낮에 햇불을 밝히고 “아테네” 市街地를 헤매면서 場날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人間을 찾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돈것같은 「디오게니스」에게 무엇을 찾느냐고 물었다. 사람을 찾는다고 외쳤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안보이냐고?고 反問했을때 사람다운 사람이 있어야지? 하고 한숨 쉰 “사람”이란 指導者像을 갖춘 올바른 人間을 말한다.

支配者는 하나의 目的을 爲해 手段이나 方法을 따지지 않는다. 結果만을 重視한다. 中共의 政治人 鄧小平이 “흰고양이던 검은 고양이던 쥐만잡으면 된다.”라는 式이다. 그러나 指導者는 目的이 좋고 結果가 좋아도 手段과 方法 卽, 目的에서 結果까지의 過程이 重視된다.

나는 橫城의 젊은이들에게 指導者像을 가지라고 勸하고 싶다. 올바른 指導者像에 對해 써보련다.

사람들은 하루에 두번씩은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데, 平生 거짓말을 안했다는 사람

은 聖者이거나 지독한 거짓말쟁이며 어쩌다 거짓말을 한다는 사람도 普通人은 아니며 指導者像에 가깝다.

① 나의 거짓말이 他人에게 얼마나 害를 끼칠것인가? ② 거짓말이 단 한번으로 끝나 는 것인가? ③ 이것이 發展하여 또다른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것 인가? ④ 나의 거짓말이 탄로날 境遇 正當化할 수 있는가? 거짓말에 對한 說明이 他人에게 어떻게 들릴것인가? ⑤ 나의 거짓말이 나의 自尊心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 인가? 라고 自己省察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態度와 過程이 꼭 必要하다.

英國의 文豪「셰익스피어」는 먼저 내가 할 일은 내가 나 自身에게 眞實해야 한다. 어쩌 스스로 眞實치 못하면서 남이 나에게 眞實하기를 바라는가? 라고 했다. 指導者의 資質은 끊임없이 닦아오는 아름다운 맛의 誘惑과 快樂 그리고 平安을 물리치려는 克己를 위한 싸움의 過程에서 完成된다. 내가 목 놓아 울고 싶은건 가슴을 뒤 흔들고 가버린 / 거센 파도 때문이 아니라 / 한밤을 보채고도 끊이지 않는 / 목췌 바람소리 탓도 아니라 / 스스로의 어둠을 울다 / 빛을 잃어버린 / 사랑의 어둠 / 죄스럽게 비좁은 나의 가슴을 / 커다란 웃음으로 용서하는 바다여 / 적안에 덮인 山에서 어둠을 걷고 / 오늘도 나에게 노래를 다오 /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서투른 異邦人 / 언젠가는 모두가 쓸쓸히 부서져 갈 / 한 잎 외로운 혼임을 / 바다여 당신은 알고 있는가 / 영원한 메아리처럼 맑은 餘韻 / 어느 彼岸 끝에선가 鍾이 울고 있다 / 어제와 오늘 사이를 가로누워 / 한번도 말이 없는 묵묵한 바다여 / 잊어서는 아니될 노래를 내게 다오 / 당신의 넓은 길로 걸어가면 / 나는 이미 슬픔을 잊은 / 행복한 작은 배 / 이글거리는 태양을 火山같은 파도를 기다리는 네 가슴에 / 불지르는 바다여 / 폭풍을 뚫고 가게 해 다오 / 돛 폭이 찢기워도 떠나게 해다오. 이상은 하나님과 自己사이의 對話를 읊은 李海仁 수녀의 詩句이다. 指導者의 資格은 이 詩의 心情의 連續이어야 된다. 첫째 이웃을 사랑해야한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잘사는 사람 권세있는 사람<sup>은</sup>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他人에 不過하다. 때문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강도를 만난사람, 돈이 없는 사람, 몸이 불편한 신체장애자들이 우리들의 이웃이다. “예수는 네 이웃을 네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 이웃을 도와줄때도 도와주는 내立場보다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담을 안느낄수 있는 方法을 강구해야 된다.

卽, 左手의 善行을 右手가 모르게 도우는 方法을 강구하자!

둘째, 말과 實踐이 同一해야 된다. “나는 “바담風”해도 너는 “바람風”하라”는 式은 支配者이지 指導者가 아니다. 없는 사람은 節約할 物件이 없다. 外製物件이 없는 사람에게 外製를 쓰지 말라면 反抗心만 용솟음친다. 고기를 먹을수 있는 富者가 국수를 먹고 절약하는 자세가 指導者의 態度이다. 말과 實踐이 같은것은 約束에 遵守로서 남의 示範인것이다.

셋째로 謙遜해야 된다. 冊을 많이 읽었다고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업수히 여김은 指導者가 못된다. 잘 모르는 이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을 正道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指導者이다. 어느 教師가 弟子에게 공부를 못한다고 돌대가리라 꾸짖으면 弟子로부터 尊敬을 받지 못한다. 나도 배우기 前에는 몰랐던 사람임을 깨닫고 겸손해야 된다. 오늘날 18億의 弟子를 가진 예수도 當時에는 無識했던 弟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을 몸소 행해보였다.

넷째로 理想을 크게 가져야한다. 끊임없이 알고 싶어하는 맘 또한 넓고 멀리 알아서 깨달으려는 꿈이 있어야 훌륭한 지도자이다. 中國의 達磨大師가 9년간 벽을 向해 앉아서 座禪했던 知覺의 慾望, 달나라를 往服하려는 尖端科學의 成就慾이야 말로 훌륭한 指導者像이다.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지 않고는 멀리 광활한 自由의 天地가 있으며 그속에서의 變化無雙한 發展相을 볼수 없듯이 꿈과 理想을 갖고 實踐하자.

다섯째, 奉仕하자. 세상에서 나만을 爲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내게 있는 모든것을 가지고 아는 知識으로서 그리고 나의 身體로서 나에게 있는 精神으로서 物質로서 奉仕하는 자세를 갖자. 海外토피란에서 7億원을 가진 獨身인이 방안을 테을 돈이 아까워서 얼어죽었다는 記事를 보고 虛無함을 느끼듯이 우리는 아무리 가진것이 없다해도 現在 가진 적은 것으로서 남을 돕고 섬기는 삶을 가꾸어나가자.

결론적으로 買賣되지 않는 사람, 저회心 이 眞實하고 正直한 사람, 罪를 罪라고 부를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南北을 가르키듯이良心이 그 義務에 忠實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爲해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 指導者像이다.

## 작지만 몇몇한 文化

橫城郡廳 文化公報室 金 承 基

半島人의 特質을 단적으로 「머리가 좋고 노래를 잘부르며 또한 조급하다」고 하는데 이말이 地理的이나 歷史的으로 볼때 지극히 타당한 것인지도 모른다.

半島란 항상 大陸民族의 침략과 海洋民族의 침략을 받아왔고 또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산속으로 바닷가로 쫓기면서 생활을 영위하다보니 자연 지혜롭고 슬기로와야만 했을 것이니 위험부담이 덜한 大陸이나 海洋族들 보다는 머리가 좋아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숨가쁜 生存의 노력은 民族性마저 조급하게 만들었을 법하고 노래를 잘 부를수 밖에 없는것 역시 밤에는 대륙의 낮에는 해양의 기습을 받아 가족과 재산을 잃기 일수였을 터이니 수많은 한숨과 눈물이 울음을 誘發시켜 聲帶의 발전을 가져왔을 법하니 이 어찌 민족적 숙명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半島인들이 歷史를 永續시켜올 수 있었던 原動力이 되었는지도 모르며 半萬年의 역사를 면면이 이어온 韓民族에게 있어서는 더욱 두드러진지도 모른다.

아무튼 우리민족이 이스라엘 게르만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은 민족으로 정평이 나있고, 최근 유럽에서 선풍이라는 모가수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모두가 대어섯곡의 노래를 불러제끼니 國民平均歌唱力은 가히 세계적이라하던데, 물론 노래 곡절, 곡절마다 애환과 限이 담긴것이 흠일테지만 어찌거나 이 모두가 安住해 살고 있는 오늘 날에는 아픔이 아닌 훌륭한 정신적 資產이요 自矜心일수도 있다.

헌데 문제는 가장 큰 特質이랄 조급함에 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지나치게 조급한게 아닌지 모른다. 민족최대의 과제인 南北의 긴장이 존속해 있지만 이제는 바다의 해적도 대륙의 오랑캐의 기습도 약탈도 없어 숨고 쫓기며 살아야했던 시대는 벌써 지났는데 어쩐일인지 조급한 기질만은 더하면 더했지 조급도 변하지 않는다.

어쩌면 60년대에 「世界最短期日」이란 용어가 우리 산업 경제의 代名詞였으니 그 전통을 지킨 셈이고, 하다가 잘못돼도고칠수도 있으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수도 있었고 반면 逆作用도 심했지만 그 성과도 엄청났다.

헌데 문제는 결코 서둘러서는 안될일을 서둘러대는 조급함에 있다. 宇宙에서 보이는 유일한 人造物이라는 萬里長城을 中國人들은 수십세기에 수십대 王이 쌓았다는데 우리는 무엇이든 當代에 내가 당장해야 한다는 불같은 의지때문에 해서는 안될 수많은 施行錯誤와 拙速과 拙作을 낳았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산물은 감히 歷史와 文化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人生은 짧고 藝術은 길다」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만만년을 두고 생성되어온 문화는 傳統이며 生活일수도 있고 民族性일수도 있으며 歷史의 含蓄이기도 한다. 그런데 경제발전과 산업사회의 뒤편에서 잠자야만 했던 地方文化를 하루아침에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는 지나친 서두름만 같다.

미신을 타파한다고 하루아침에 서낭당을 알뜰히 허물어내더니 이제 토속신앙이라고 보존하자다. 새마을운동이 여지없이 草家를 벗겨내더니 민속마을을 보존해야한다고 아우성인데 앞뒤없이 신속하게 없애버린 뒤 무얼 보존할 것인가.

겨우 5회를 지난 泰豐文化祭의 명칭부터 벌써 구설수에 오르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뿐이라, 어엿한 郡歌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르는 것은 고사하고 있는지 조차들 모르니 과연 그것이 군민과 뜻이 통하는 노래인지- 왜 부르기 좋고 사랑받는 노래를 만들지 못했을까?

橫城의 상징이 白슴이고 왜가리라는데는 또 얼마나 肯定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녕 郡民의 뜻이라면 집집마다는 아니라도 서너집 건너 한집 枵락에 한포기라도 있어야 하는데 나라에서 指定한 天然記念物은 白鷺일진데 더러 왜가리가 섞여 있어 稀貴性때문에 이름도 천덕스러운 왜가리를 꼽은 것일까.

계대로 틀을 갖춰 문을 연지 몇해 안되는 橫城文化院이 엄청나게 큰 일을 당장 이루기를 희망하고 털숭이 젊은 文藝人의 集團인 어사매회가 횡성문화의 책임자이기를 강요하면서 뜻대로 안되니 地方文化의 不在라 비웃는다. 이모두가 조급한 기질의 소산인 듯 싶다.

어디 문화가 그래프로 그려지는 실적이고 길뚝뚝 눈에 보이는 작업인가. 文化란 대중의 숨결과 어우러져야하고 地方文化는 거기에 흙냄새와 뒤섞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

루아침에 이루어질수 있겠는가. 작은 마당에서 몇안되는 배우와 조역이 관중없는 연극을 단시일에 해치운대야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문화가 아니라 虛構에 불과하다. 더우기 역사의 맥이 흐르는 郷土史를 전문가나 권위자가 없는 마당에 어줍잖은 전문으로 사료를 건드린 나도 조급함과 졸속의 연출자이기도하지만 향토사학은 보다 많은 인재가 시간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다듬어야 한다.

어쨌거나 부끄러운 所産을 많이 創出했던 기질을 文化的인 면에서부터 여유있고 너그럽게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韓半島의 地形을 조상님네 들은 호랑이 상이라고 했다는데 그것을 日帝時代에 日인들이 토끼상으로 비하시켰다고하여 「우리민족은 토끼처럼 겁이 많고 조급하다」고 맞장구치며 스스로 토끼이기를 원하며 해방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본래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타의에 의해 뒤집어쓴 조급한 토끼의 탈을 벗어 던지고 어질고 용맹스러운 호랑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地方文化는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듯 속이빈 쪽정이 文化를 만들지 말고 다시 우리의 손으로 눈앞의 업적이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까지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진정한 文化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워 그것을 곧고 바르게 키워 비록 작지만 몇몇한 文化를 꽃피우자.

## 흔들리는 百世盛都

橫城高等學校 柳 章 熙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항해중인 유람선 한척이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닿았다. 폭풍우가 잠자고 아침이 되어보니 섬은 정말 아름다웠다. 선장이 배에서 내려 구경을 해도 좋다고 하자 앞을 다투어 섬으로 구경을 떠나는데 대개 다섯 무리로 나누어 졌다.

첫째 구름은 상륙하지 않고 배에서 멀리 섬의 전경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배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고 우려하여 남은 사람들이었다.

둘째 구름은 섬에 급히 상륙하여 몇개의 과일만 따먹고 곧장 배로 돌아온 사람들이며

셋째 구름은 이곳 저곳을 다니다 허겁지겁 달려오느라 소지품을 잊어 버리고 난리를 친 사람들이고

넷째 구름은 실컷 놀다가 출항 벨고동 소리를 듣고 달려와 보니 배가 움직이므로 헤엄쳐 오르느라 물을 먹고 다치고한 사람들이며

다섯번째 구름은 너무 많이 먹고 경치에 도취되어 출항 고동소리도 듣지 못하고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썩어버리고 자다가 배도 놓치고 결국 맹수에게 잡혀 먹히고말았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배는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는 선(善)이요, 아름다운 섬은 쾌락(快樂)이라고 생각해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첫째 무리는 인생의 쾌락을 전혀 추구하지 않는 조금 바보같은 사람들이요. 둘째 무리는 다소의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본분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며, 셋째 무리는 쾌락에 빠지기는 했어도 고생을 좀 하면서 원상태로 돌아온 사람들이요, 넷째 무리는 깊은 쾌락에 빠져 있어 고생을 많이 해야할 사람들이며, 마지막 무리는 일생을 허영과 쾌락속에 허덕이다 장래를 망치고 보잘것 없는 일생을 마칠 사람들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도 그러하지만 한 지역사회나 한국가 또한 마찬가지이다.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쓴다면 그 사회는 발전할 것이고, 장기적 발전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너나 없이 퇴폐풍조에 휩싸이며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회는 발전은 커녕 인근의 발달한 도시에 종속화(從屬化)되고 말 것이다.

몇년전 우리 횡성이 소도읍 가꾸기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하였을때 우리는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그로부터 몇년이 지난 지금 횡성시가지를 바라보는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기만 하다. 모두가 쾌락속에 빠져 장래를 망쳐버린 다섯번째 무리가 되려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횡성에 다방이 몇개나 되느냐는 어떤 친구의 물음이 있어 아는대로 헤아려 보았더니 거의 20여개라면 1천명에 다방이 하나라는 셈인데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짚은 모르지만 하루에 평균 20만원씩 매상을 올린다면 400만원이 차값으로 쓰여진다는 이야기요, 한달이면 1억가깝다는 계산이고 보면 어찌 놀랄일이 아니겠는가. 그 반이라고 생각해도 엄청난 액수이다. 다방만을 생각해 본것에 불과한데 맥주홀, 당구장, 술집, 음식점을 헤아려 보면 더욱 놀랄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영업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 그러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탓하는 것도 아니다. 왜 이런 업종들이 자꾸 자꾸 늘어나고 있는지 다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횡성 사람들이 쾌락속에 깊이 젖어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서관은 하나도 없고 박물관 하나 없으며 책방이라고는 단 두개요 이렇다할 생산공장도 없는 횡성인데 다방과 여관과 음식점과 당구장은 즐비한 혼들리는 도시. 허기야 군청소재지이니 있어야 할 기관과 사회단체들이 있어야 하며 소비성이 강한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외형적인 것은 우리들의 의식구조의 표현이다. 우리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횡성을 이렇게 변화 시켰을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물론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요인은 허세(虛勢)이다.

아이들 등록금과 책값은 찌프리며 던져주듯 하는 우리들이 차 몇잔 술 몇병 마시고는 몇천원 몇만원은 선뜻 손에 쥐어주는 허세. 양말 한 켤레 책 한 권을 사도

원주에 나가 사야 속이 풀리고 양복 한 벌도 원주에 나가 맞추어야 권위가 선다고 생각하는 허세. 목욕과 이발도 횡성에서는 못 하겠다고 우겨대는 허세. 바른 말쯤 하는 사람은 못쓸 사람이라고 몰아부치고 나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허세. ……

이제 우리는 좀더 솔직하고 좀더 생각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리하여 책 읽는 소리와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고, 동화를 읽어 주는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고, 서로 고마워하는 상인과 고객의 인사 소리가 들리고, 운동장을 흔드는 함성과 호각 소리가 들리고, 장학금에 감사하는 학생들의 밝은 소리가 들리고, 다 함께 지역 발전을 토론하는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야 하겠다.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쾌락의 도시가 아니라 알맹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하겠다.

탈무드의 이야기에 나온 두번째 사람들 처럼 적당히 낭만과 쾌락을 누리면서 우리 인생의 바른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저을때 내가 발전하고 내 가정이 행복해 지며,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돌에 깊이 새겨 세워 놓은 「百世盛都」는 피곤을 모르는채 번영을 거듭할 것이다.

횡성인이여!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한번 깊이 생각 해 볼 일이 아니겠는가.

# 기 행 문

## 자매도시 '가스텔'을 다녀와서

문화원장 한 중 회

6. 25 동란의 참전국이며, 특히 768명의 젊은이를 황성땅에 바친 혈맹국 네델란드 방문초청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자매도시인 OUD GASTEL (아우드 가스텔)시를 한상철군수님과 함께 방문하게 된 것은 더욱 뜻깊은 여행이라 아니할수 없다. 우리들에게는 튜립의나라, 혹은 풍차의 나라로 알려진 곳을 가게되었으니 벌써 며칠째 밤잠을 이룰수 없었다.

8월 21일

마지막 점심을 마치고, 오후에 김포공항으로 출발했다. 출국 및 탑승수속을 끝내고, 오후 8시경에 KLM 866기에 오를수 있었다. 해외여행이 처음인 나에게서는 마음이 편할리 없었다.

특히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안감마저 들었다. 예정시간 보다 약 40분 늦게 이륙하기 시작했다.

어둠속을 계속 오르고 있었다. 눈을 붙여보려 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다행히 옆좌석에 우리나라 사람이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다. 뜬눈으로 밤을 새운셈이다.

알라스카시간으로 22일 12시 30분경 앵커리지공항에 도착하였다. 하늘에서 본 알라스카의 경치는 한폭의 그림 같았다. 산위에는 눈이 쌓여있고 가을같은 기온에 나무에는 단풍이 물들고 있었다. 공항의 면세점에는 모피제품으로 가득 차 있었고, 특히 놀라운 것은 일본인들이 많이 보였다.

12시 50분에 다시 여행은 계속 되었다. 에스키모의 머리뿔을 날아 북극해를 통과하고 있었다. 다시 어둠이 오고, 잠시 잠을 잘 수 있었다.

눈을 떴을때 노르웨이근해를 지나 암스텔담 상공에 도착하였다. 비행기속에서 두밤을 지냈지만, 네델란드 날짜로는 22일 이었다. 07시 30분에 암스텔담 교외의 스키폴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가스텔시장내외분, 주화관대사관 참사관, 그리고 라이덴대학의 신교수님이 나와계셨다. 새벽이라 공항주변은 조용한 편 이었다. 우선 공항 근처에 있는 IBIS HILTON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되어있으나 긴장감 때문인지, 긴여행에도 피로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후 세시까지는 싫어도 낮잠을 자야되는 꼭 짜여진 스케줄이 시작되었다.

가스텔시장부부와 암스텔담 관광을 위해 시내로 들어갔다. 도로 주변에는 여기저기 풍차가 보였고 젓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암스텔담은 어느곳에나 운하로 통해 있고, 시가지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유럽선을 타고 시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여기저기를 구경했다. 내가 꼭 꿈속을 헤매는 기분이 들었다. 암스텔담은 해변보다 3m얕게 있으며 우리가 휴식을 취하던 호텔은 해변보다 9m나 아래에 있다고 한다. OUD GASTEL로 가기위해 암스텔담 시가지를 벗어나자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려있었다. 고속도로는 4차선으로 요금ی 없었다. 도로주변에는 축사가 따로없는 초지에서 젓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초지 사이사이에는 관개수로가 잘 설치되었으며, 그곳으로 조그만 배들이 다니고 있었다. 유럽최대 항공인 로텔담을 거쳐서 루센달(Roosendaal)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다. 아우드 가스텔에는 숙박시설이 없어서 이곳에서 묵어야 한다고했다. 루센달에는 안제국후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조그만 마을이지만 주차시설도 잘 되어있고 모든 도로가 부둣으로 잘 포장되어 있었다. 간단한 저녁식사를 하고 안제국후배와 고향이야기와 내일부터의 스케줄을 의논했다.

8월 23일

맑고 상쾌한 아침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가지는 황성의 새벽거리처럼 조용했다. 8시 30분경 안제국후배가 벨지움으로 부터 왔다. 가스텔시청 직원과 함께 10시경에 OUD GASTEL시에 도착했다. 가스텔시는 OUD GASTEL과 NIEU GASTEL로 구성되어있으며 인구는 약 7,000명정도의 전원도시이다.

시가지에는 약 700년된 성당을 중심으로 시청, 우체국 도서관 복지회관 국민학교등이 있었다. 주산물은 낙농제품이며 사탕무우도 재배하고 있었다.

시민홀에서 시장내외 주한화란대사, 한국전 참전용사인 탁장군, 참전용사회 사무총장 Shreduler대령, 국민학교 교장선생님과 시의회 중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환영연이 있었다.

주화란 한국대사도 참석했으며 공공건물에는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태극기와 화란기가 게양되었다. 리셉션이 끝난후 공장시찰을 했다. MENKEN LAND B-AW라는 유럽 최대의 유가공공장을 보았다. GASTEL시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가공하여 멀리 아랍까지 수출하고 있었다. 시설은 완전자동으로 생산되었다. 다음에 국민학교와 복지회관 도서관등을 방문했다. 국민학교는 약 70명정도의 학생이 있었으며 주로 생활교육에 중점을 두는듯 하였다. 복지회관

에는 체육관, 전시실 레크레이션센터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었다.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부러웠던 것은 도서관시설 이었다. 잘 정리되어있는 수많은 장서와 모든 자료가 수록되어있는 컴퓨터며, 유아들을 위한 유아열람실은 마음에 꼭 들었다. 우리횡성에서는 언제나 저런 시설을 가출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오후에는 네델란드의 민속촌이라 할수있는 **WILLEM STAD**를 관광했다.

강하구에 위치한 마을로 옛날에 오렌지공이 살던 곳이었다. 경비정을 타고 주변을 관광했으며 시청에 들려 진귀한 유품과 그림 전통의상등을 구경 할 수 있었다. 이마을은 운하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금까지 두차례 범람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돌아오는 길에 축산농가를 방문했다. 모든 작업은 기계화 되었으며, 가축수정에까지 컴퓨터를 이용했다. 6시경에야 루센달호텔에 돌아왔다.

8월 24일

아침부터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풍차원형지 관광에 나섰다. 풍차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35m나 되었으며 종류도 꽤 여러가지라고 한다. 화란인들은 요즘도 풍차방앗간에서 쪼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맛이 더 좋다고 했다. 풍차 속의 대부분의 부품은 나무로 제작되었으며 풍향에 따라 풍차의 방향을 조절할 수도 있었다.

간척지 공사장으로 가는 도중 **Haamstede** 라는 마을에 들려 점심식사를 했다. 식당은 전형적인 남부네델란드식으로 많은 골동품이 장식되어 있었다. 벽에 걸린 농구들은 옛날 우리나라 농구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 네델란드인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간척사업지에 도착했다.

거대한 규모의 간척사업장을 많은 유럽인들이 관광하러 왔었다. 브리핑실에는 모형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여러방에서 영어, 독어, 프랑스로 통역하여 간척현장을 영화로 보여 주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Zeelandbrug** 라는 다리를 건너왔는데 길이가 5km나 되며 바다위에 놓인 다리이다.

가도가도 끝없는 들판을 달려 가스텔시장맥에 도착하였다. 조용한 주택가로 집집마다 담장이 없었으며 아름다운 꽃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다. 도로는 모두 부록으로 포장되었으며 집집마다 서로 다른 꽃나무로 장식되어 있었다.

8월 25일

가스텔시의 모든 일정은 끝나고 북부라벤트주 수도로 떠나는 날이다.

루센달을 떠나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Philips 회사가 있는 아인트로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전자산업의 상설전시관인 EVolun을 관광 할 수 있었다. 현대 기계문명의 발전과 정과 유전공학 및 전자공학의 발전상을 모형과 비데오를 통해 전시하고 있었다.

오후 1시에 그곳을 출발하여 한적한 시골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나라는 도시와 시골의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았다. 식당의 시설도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장식품도 잘 조화를 이루었다. 온종일 여행 끝에 SHertogenbosch 혹은 Den-Bosch라고 부르는 북부라벤트주 수도에 도착했다. 인구 8만의 이도시에 마침 축제로 술렁이고 있었다.

주 경제협력관인 풀만씨를 소개 받았다. 풀만씨는 향만전문가로 우리나라에도 여러차례 다녀갔다고 한다.

풀만씨내외의 안내로 800년전 성당을 관광 할 수 있었다. 많은 조각품으로 섬세하게 덮여 있으면서도 규모가 웅장했다. 이성당을 건축하는데 130년이 걸렸다고 한다. 성당앞의 가설무대에서는 각지에서 모여든 브라스밴드들이 축제 분위기를 더욱 무르익게 하고 있었다. 풀만씨내외와 저녁식사후 교외에 있는 Nuland라는 곳에 여장을 풀었다.

8월 26일

풀만씨와 함께 Den-Haagc (헤이그)로 향했다. 11시 30분에 헤이그에 도착했다. 헤이그는 이나라의 행정수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준열사의 밀사사건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거리는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곳곳에 많은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수상 접견실에는 주화란대사께서 기다리고 계셨다. 수상실 주위에는 예상외로 삼엄한 경비도 없었고 일반사무실처럼 한가로웠다. 루버스수상을 약 30분간 예방하고 서부화란의 화해단지를 시찰했다. 온 들판이 온실로 덮여 있었으며 모든 작업은 기계화되어 있어서 농장이라기 보다 꽃공장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어울릴것 같았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꽃이 미국 및 동남아 일본까지 수출 된다고 한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장을 방문했다. 이곳에도 유리온실속에서 일년내내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었다.

그곳에서 포니자동차를 보니 마치 우리나라 사람을 만난것 처럼 반가웠다. 다시 헤이그로 돌아와서 초대 주한대사를 역임한 Verkard씨를 방문했다.

한국을 좋아하는 노신사 였다.

6시 30분에 친한인사들과 만찬이 있었다. 직전 주한대사를 역임한 **V-an Dan Bourg**씨가 **Host**로 많은 친한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전 참전 용사로 현재 농수산차관인 푸루후씨, 주한대사 호이팅크씨, 가스텔시장내외, 라이덴대학의 한국어교수 두분, 풀만씨, 주화란한국대사 등 이었다. 저녁 10시 까지 옛친구를 만난것 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특히 참전 용사인 푸루후씨는 우리횡성을 마치 자기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밤길을 달려 **Nulad**에 도착하니 거의 자정이 가까왔다.

8월 27일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현화했다. 기념관에는 6.25당시의 사진과 기념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이국땅에서 6.25당시 감리교뒤틀산과 청일면 유동리 사진을 보게되니 감개무량했다. 당사자인 우리들이 잊고 있는것을 그들이 더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니 좀 부끄러웠다.

참전용사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역역히 보였다. 모두들 한국을 방문하여 자기들이 지켜준 땅의 발전상을 보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아쉬움을 남기고 북부라벤트주청사로 떠났다. 주청사는 23층으로 맑은 인공호수가에 세워져 있었다.

내부에는 많은 벽화와 조각품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23층 라운지에서 반 아그트 주지사와의 오찬을 했다. 반 아그트씨는 지난봄에 횡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분으로 지난번 화란수상을 역임했다. 반 아그트씨의 정중하면서도 유머가 있는 자세 때문에 우리들은 세시간에 걸친 오찬을 지루한 줄 모르고 지낼수 있었다. 오찬을 끝으로 공식일정은 모두 끝난 셈이다.

**Nuland**의 숙소에서 안재국후배와 벨지움으로 떠났다. 벨지움으로 가는 도중에 로텔담에서 그동안 통역과 안내를 맡아주신 라이덴대학의 신교수님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신교수님은 서울이 고향으로 꽤 활동적인 여자였다. 벨지움과 네델란드는 이웃간이지만 국경을 넘으니 차이점이 보였다.

도로는 네델란드가 아스팔트포장인 반면에 벨지움은 시멘트포장이었고 벨지움에는 전고속도로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안트워프를 거쳐서 안재국후배가 살고 있는 저택에 도착했다.

안재국후배는 한세희라는 사람과 안트워프에서 청혜진이라는 무역환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두사람 모두 한국해양대학 출신으로 옛날 신라시대에 장

보고의 청해진을 생각하여 회사 이름도 청해진으로 정했다고 한다. 두사람 모두 너무나 건실한 기업인이라 우리들은 후배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안트워프에서는 청해진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PR 되어 있었다. 청해진의 심볼마크는 거북선으로 그들의 차체에 대형으로 그려져 있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자랑스런 대한의 젊은이들을 만날수 있었던 것도 우리들의 행운이라 아니할수 없다.

오랫만에 김치맛을 보며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식사를 할수 있었다. 안후배의 집은 일요일에는 한국인을 위한 교회로 사용되며 평소에도 선원회관으로 한국선원들이 향수를 달랠수 있는 안식처로서 사용되고 있었다.

8월 28일

유럽에 온 김에 파리구경을 나서기 위하여 아침일찍 짐을 챙겼다. 청해진의 한세희사장내외가 안내를 담당했다.

안트워프, 브루셀을 거쳐서 약 4시간만에 파리에 도착했다. 유럽의 중심지라서 지금까지 보아온 도시들보다 복잡하였다. 개선문에 올라서 주변 경관을 볼수 있었다. 루브르박물관에 들어서 간단히 예술품을 감상할 기회를 가졌다. 며칠 걸려야 모두 볼 수 있다는 것을 단시간내에 보려니 나중에는 머리가 아팠다. 모두들 훌륭한 작품이고 항상 보고싶었던 것들 이긴만, 너무 피곤하니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 이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노틀담사원을 구경했다. 이제 는 지쳐버려서 파리자체가 달갑지 않는 곳이었다.

벨지움으로 오는길에 길을 잘못 들어서 여러시간을 소비했다. 그러나 그덕에 파리교외의 아파트단지를 구경할수 있었다. 아파트마다 같은 모양을 거의 볼수 없었고 아파트 외벽에도 모자이크로 벽화가 그려져있어서 역시 예술의 도시임을 실감 할 수 있었다.

8월 29일

안트워프와 브루셀 관광에 나섰다.

안트워프에서는 처음으로 간단한 쇼핑을 즐길수 있었다. 나토본부와 EC본부가 있는 브루셀에 도착했다. 청해진에서는 이곳에 곧 백화점을 개점한다고 했다. 브루셀의 그랑프라제를 구경했다. 대리석건물사이에 널다란 광장이 있었고 거리의 화가들이 여기저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건물은 유럽의 다른곳이나 마찬가지로 조각품으로 덮여 있었다. 내일의 긴여행에 대비하여 일

찍 돌아왔다.

8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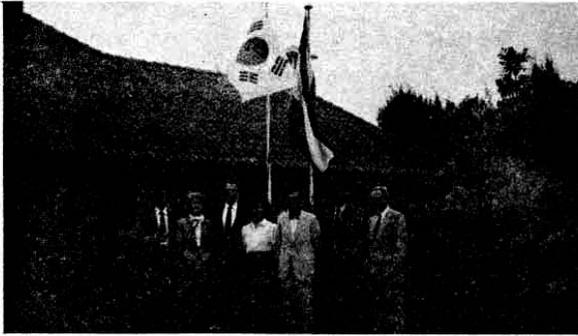
아침일찍 네델란드로 출발했다. 오늘은 안재국후배가 안내를 맡아 주었다. 우리가 묵었던 루센달주변을 지나서 헤이그에 도착했다. 주화란한국대사관에 들러 그동안의 후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준열사의 묘소를 찾았다.

공원내에 있는 묘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헌화를 하고 스키폴공항으로 떠났다. 공항에는 KLM직원이 우리들을 찾고 있었다. 안재국후배부부와 작별인사를 하고 비행기에 올랐다. 베크하우트가스텔시장부부의 친절하신 환대와 바쁘틈에도 시간을 내어 우리들을 안내한 신교수님과 안재국후배 친구처럼 대해주던 참전용사들을 생각하며 이르러니 서서히 이륙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두바이와 방콕을 거쳐서 돌아오도록 되어 있었다.

태국에서 이틀간 묵어서 9월 2일 김포공항에 도착할수 있었다.

그동안 후의를 베풀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스텔시와 우리형성의 우의가 깊어지길 바라며 맺을까 한다.



# 문 외

원시원

원 양

관영기

눈빛으로  
끌고 쫓는  
사랑이란 쇠울안에  
부리를 마주 대고  
노래하는  
별이 다가  
폭팔로  
생명을 잇는  
太陽의 分身이여.

( 83. 11. 6. )

\* 시조 \*

— 광 영 기 —

## 담 배 연 기

광 영 기

運命이

타오를 때

연기 저리 나는걸까

일그러진 눈빛에는

달무리 어울지고

時間이

停止된 방엔

갈등의 앙금이 진다.

동그란

연기 고리

흔들리는 생각 넘어

안으로 타오르는

불덩이는 무엇인지

죄 없는

공초를 부벼

또 하루의 재를 툰다.

\* 시조 \*

-곽 영기-

## 사 랑 애 기

곽 영 기

無重力 電磁場에

뒤엉키는 무지개는

永遠한 暖間에선

心賜만한 質量인데

虛像의

격한 본능이

목숨들을 태우고 있다.

### 프로필

- 1939년 황성출생
- 강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돌기와 문학동인
- 시조 문학 천료
- 강원 시조문학동인 회장
- 한국문협 원주지부 시조분과 위원
- 현 강릉대학 서무과장
- 시조집 <개나리> 출간
- <대관령> 출간

# 時 調    짓는    法    基 礎

관    영    기

時調는 우리 韓民族이 만들어 오랜 歷史를 지나오면서 發展시켜온 傳統民族時로서 韻律이 잘 다듬어진 世界的인 定型詩다.

解放以後 自由時를 많은 詩人들이 배우고 쓰고 한까닭에 過去 30餘年間은 傳統民族詩인 時調의 人口가 많지 않은 實情이었으나 지금은 全國에 二百餘 時調時人이 作品活動을 하고있어 傳統文化의 繼承發展의 努力이 그 어느때 보다 活發하여 지고있다.

이에 여기 時調 짓는 法의 基礎를 한두 페이지로 簡略히 紹介하여, 初步者에게 그 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古代에는 모든 時調가 三章六句의 한首 한篇이었으나 現代에는 現代詩가 그리하듯 時調도 3~4首 한篇으로 長篇化의 추세에 있다.

## 1. 用語의 紹介

篇 : 篇이란 하나의 詩題目으로 完成된 時調한 篇을 말한다.

首 : 首라함은 三章 六句의 時調 한首를 말한다.

章 : 章이라함은 한首안에있는 세 줄을 일컬음이며 첫줄을 初章, 둘째줄을 中章, 셋째 줄을 終章이라고하여, 序論, 本論, 結論의 性質을 가지고 있다.

句 : 句는 主로 두 單語로 되어 있으며, 한章은 두句로 한首는 여섯句로 되어있다.

其他 : 詩語, 이미지, 詩題등은 現代詩와 모두 같으나 다른점이라면 먼저 時調는 韻律이 살아야하고, 三章六句의 型式에 맞아야 하는것이다.

## 2. 構成의 例示

初章	3	·	4	첫 句	3	·	4	둘째 句	
中章	3	·	4	셋째 句	3	·	4	넷째 句	첫 首
終章	3	·	5	다섯째 句	4	·	3	여섯째 句	
									한 篇
初章	3	·	4	첫 句	3	·	4	둘째 句	
中章	3	·	4	셋째 句	3	·	4	넷째 句	둘째 首
終章	3	·	5	다섯째 句	4	·	3	여섯째 句	

### 丹 心 歌

이 몸 이	죽 고 죽 어	일 백 번	고 처 죽 어
3	4	3	4
백 골 이	진 토 되 어	넋 이 라 도	있 고 없 고
3	4	3 ④	4
임 향 한	일 편 단 심 이 야	가 실 줄 이	있 느 나
3	5 ⑥	4	3

(주) 1. 三章 六句와 각 句의 글자수는 3~4, 3~4, 3~4, 3~4, 3~5, 4~3으로 定型이 原則이다.

다만, 韻律이나 詩語 선택에서나 또는 內容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各 單語의 글자수가 한, 두, 세字 加, 減 되는 것은 무방하다.

이때에, 終章 첫 句의 첫 單어 세 자는 (임향한) 加, 減이 不能하며, 둘째 단 어 다섯 자는 (일편단심이야) 다섯字以上 8字~9字 以內가 되어야 한다.

(주) 2. 그러므로 丹心歌의 넷째 句 첫 單語가 (넋이라도) 三字에서 四字로 一字 增

加하고, 다섯째句 둘째단어가 (일편단심이야) 五字에서 六字로 一字 增加  
하였으나, 定型 詩原則에 벗어나지 않는다.

(주) 3. 時調에는 古代로부터 定型時調外에 옛 時調, 辭說時調등의 發展型的 時調가  
있으나, 이는 既成詩人들도 짓기 어려운 것이므로 여기서는 說明을 略한다.

- 끝 -

이사 가던 날

이 연 승

트럭위에  
장농이 실리고  
마지막으로  
강아지도 실리고

모두들  
헤어짐이 아쉬워  
목소리만 커진다.

식구마다  
사람마다  
잡은 손 못 놓고  
웅성 거리는데.

어서 가자  
시간 없다  
재촉하시던

아버지도  
정든집 추녀끝의  
기왓장을 세신다.

[ 프로필 ]

- 횡성 공군 삼배리 출생
- 1975년 월간문학 신인상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아동문학가협회 회원(이사)
- 강원아동문학회 회원(부회장)
- 복원문학회 회원
- 현동시집 「해를 파는 가게」「햇살이 사는 동네」  
출간
- 현주소: 영월군 교육청 근무

진홍빛 사람들

이 연 승

- 평양에서 -

35 년만에 만나도  
말 못하고  
부등켜 안고  
숨 죽여가며 울던 사람들

아픈 정에  
몸이 녹아  
만져보며  
옛일 되새길때

진홍빛 눈초리가  
만남의 따뜻한 정을  
퐁퐁 얼구었다.

눈감고 꺾으며  
큰 소리로  
잘 산다는 말만하던  
진홍빛 동네 우리 친척들.

- 서울에서 -

1950년  
피난 길에  
헤어졌던 아픈 마음들

고향애기  
살던 애기  
너무 많은데  
진홍빛 눈동자가 하도 무서워  
말 못하고 눈물로 갔다.

집에가서  
절하고 절 받으며  
이름 묻고 자고 쉬며  
하룻밤만 새웠어도 좋을텐데.

아픈 정  
다시 두고  
보름달로 애기 하자며  
떠나가신  
진홍빛 동네 우리 친척들.

고향 하룻밤

이 진 우

어릴적 소꿉터에  
술을 마신다.

못생긴 사나이  
못내 잊어 한 계곡  
술무정에

반월이 찢기운  
한 平生  
어인

숨진지 20年世月  
아직  
길손 나그네 가슴에  
한이 막히는데  
옛가락은 이슬에  
젖고  
부연끝에 달이 걸렸다.

草葉에 色級 파분되어  
다감한 우의에  
잠맛을 잃어  
고수한 자리

잔을 비듯  
대낮 같이 밤이 기우는데  
비가 섞은 사연으로  
歲月을 늦추자.

“ 할머니 꿈속으로 내리는 눈 ”

김 성 수

할머니 꿈속으로 내리는 눈은  
 한울 한울  
 質 고운 목화실이 되어  
 은빛 실꾸리에 감겨 들고  
 우리 할머니 흥겨운 베틀노래는  
 박달나무 용두머리를 춤추게 한다.  
 기억의 바다에  
 젊은날의 꿈이 나래실로 께이고  
 눈발같이 오가는  
 북 속에는  
 목화송이로 피어오르는 소박한 사랑.

잉앗대가 오르내리던  
 눈썹노리는 까닥거리고  
 꿀신을 움직일 때 마다  
 도투마리는 신이 나는데  
 “ 에헤야 베틀이로다.”  
 “ 에헤야 베틀이로다 ”

때묻은 치마귀에 슬쩍 감춰두던  
 한숨과  
 웃고름으로 꺾꺾 찍어 누르던  
 눈물일랑  
 앓을꺼에 깔아놓고  
 사흘 한나절 베틀 짜다보면  
 가난이야 아홉새 무명천처럼  
 곱기만 한것  
 “ 에헤야 베틀이로다 ”  
 “ 에헤야 베틀이로다 ”

[ 프로필 ]

- 1943년 횡성 출생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오악장 동인
- 제 9회 창주문학상 수상
-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
- 한국문협 원주부지부장
- 예총 원주지부 감사
- 현 원주 북원국민학교 재직

편 지

김 성 수

I

푸른 달빛이었네  
 곱디 고운 지혜의 울실로  
 내 꿈을 수 놓아주던  
 그대 마음은

자면서도 내 영혼은  
 맑게 깨어있었지.  
 설레이는 눈길 아래로  
 그대와의 사랑은  
 꽃바람되어 흘러가고  
 바람이 잠시 머무는 곳,  
 에로스의 푸른 가슴이었네

II

색감고운 무지개였네  
 그대 마음은

슬프도록 아름다운 염원을  
 하늘 위에 치가려 놓고  
 조용히 흔들어 보는  
 연민의 손수건이여.

그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대 있음을  
 말하지 않더라도  
 눈물 속의 상봉과  
 눈물 밖의 작별을  
 말하지 않더라도.

[ 프로필 ]

- 1943년 횡성 출생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오악장 동인
- 제9회 참주문학상 수상
-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
- 한국문협 원주부지부장
- 여흥 원주지부 감사
- 현 원주 북원국민학교 재직

Ⅲ

「 낮에 짜면 일광단  
밤에 짜면 월광단  
울울이 고운 천  
도포 지어 드리면  
임은 어찌 꿈에만 오시는가」  
“ 에헤야 베틀이로다 ”  
“ 에헤야 베틀이로다 ”

김 성 수

할아버님 의병되어  
독립만세 부를 때  
흐르는 피 닦아주던  
그 무명자락  
갈피 갈피 서리인 정성이 고마워  
왈카 눈물을 흘렸다는데

잠드신 할머니 주름살 속으로  
고향길이 열린다.  
피내울 지나 노루재에 오르면  
산녘으로 펼쳐진 하얀 목화밭,  
끝마다 아낙의 웃음이 넘친다.  
때문지 않은 평화가  
조용히 자고 있는데...

그리움으로 다스려온 가슴  
연연한 추억의 바다 위에  
아린 세월이 나래실로 꺾이어  
우리 할머니 베틀노래는  
박달나무 용두머리를 춤추게 한다.

시 詩

## 나그네 길

김 성 기



나의 한 해도 겨우내 칼날을 세우고 온 누리를 깎아 내리던 바람이, 포근하게 마른 풀밭 위에 앉아, 햇살을 등에 받으며 새싹을 찾아 내기 시작하면 눈을 뜬다. 기대에 부풀며 웃음의 갈피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먼 산허리의 것들까지 신뜻 다가서고, 탄탄히 차 오른 물 오르는 가지마다, 속살이 아귀트며 푸른 깃털로 꽃혀 날개를 달기 시작하면, 날마다 싱그럽게 채워지는 산천에, 산모의 체중 같은 결코 싫지 않은 답답함을 앓기 시작한다.

푸른 날개가 깃을 펴고, 겹쌓인 산등성이는 끊어 오르는 듯한 이내를 뿜고, 초록의 물감을 지천으로 흘리는 태양이 우리의 거추장스러움을 훨훨 벗겨 놓는 진실의 계절이 되면, 긴 겨울잠의 시간을 참아 온 기쁨에 북받쳐, 몸도 마음도 날개를 달고 바다로, 강으로, 혹은 계곡으로 후조처럼 떠나는가 보다.

얼마 전 무계획의 여행, 그저 가다 쉬다 그게 좋아 무턱대고 떠난 나그네 길이었다. 청평사 계곡에서 낯선 학생들과 어울려 점심을 함께 하다가 금방 한 때가 되어 오봉산 석탑까지 오르던 일, 꽤나 가파르고 험한 길을 피로한기색도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잘도 오르더니…….

철 늦은 경포 해변에선 밤 늦게까지 들이서 취하여 흐느끼고…….

한려 수도를 통통거리는 잔잔한 파도의 포말을 마시며 적당히 피로한 몸으로, 불빛 많은 항구의 굴곡 있는 밤바람이 부드러운 자락으로 감기는 부두의 목노가, 금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밤바다의 달빛인양 담뱃취하기도 하고, 새벽부터 달아오른 클래식스의 경적이 몽롱한 여관문을 두드리는 재촉을 따라 “백마강 달밤에…….” 통통배를 타며 백제의 의자왕이 되어, 고란사 샘물만은 실컷 마셔와, 지금까지도 청량제로 조금씩 아껴쓰고 있다.

해변의 암벽에 묵중한 시간의 퇴적을 말하는 아름답드리 향나무들의 몸짓에 넋을 빼앗

\* 시 \*

-김 성기-

기며 바닷바람에 나도 같이 펄럭이던 삼척 해변의 기억, 미네르바의 부영이처럼 황혼이 짙어지면 날기 시작하던 등대의 불빛도, 끝없이 하얀 물거품을 고르던 파도도 언제까지나 그대로일 거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나 저때나 무엇이건 타는 곳이면 성냥갑처럼 뻑뻑하게 들어 찬 사람들의 공포가, 나같이 요령이 없는 사람이 차를 탄다는 행운은 바랄 용기도 나지 않는다.

앞으로 떠난다면, 제곡의 푸른 태양이 하얗게 녹아 쏟아지는 폭포가 있는, 신속 후미진 곳을 찾아 막소주 한 잔으로 사색이나 마음껏 하며 지내려 한다.

기실, 난 오랫동안 크작진 물 곁에 방울 정하면서 살고 있다. 여름이면 암폐전 정한 시간 없이 짜릿함에 전신을 행구고는, 반나의 몸으로 덩굴면서 책장이나 넘기는 즐거움에, 제곡의 맑음을 찾아 즐기려 한다.

천했던, 그리고 보고픈 얼굴들, 먼동빛을 바라보는 아침나절의 풋풋함과, 이 축제의 계절, 비상한 여름을 모두 주고픈 그런 얼굴들이나 떠올리며 고독한 시간들을 모아, 뚜렷한 모습으로 조형하는 노력으로 여름의 열기를 응시하려 한다.

미소 주신다면

모든 光茫 그대에게 모으고

먼동빛의 산맥을 바라보는 아침나절과

일과 후 발목에 감기는 여울소리와

달맞이꽃 터지는 산기슭의 풋풋함을

넉넉한 마음으로 바칩니다.

[ 프로필 ]

난만한 기대의

잔잔한 봄날씨 고르고

신록의 나날 묶어 드리려

마련하는 바다 위

구름의 숨털 골라 밤마다 지새며 잔

束帛을 들고 찾았다가

- 1946년 횡성출생
- 춘천교육대학 졸업
- 강원일보 신춘문예 동시당선
- 아동문예 동시천료
- 아동문학 동시천료
- 한국문협 원주지부 아동문학분과위원
- 현 횡성 춘당국교 교사

\* 시 \*

-김 성기-

문 아니 여시면  
더욱은 자람이 없는 가을날에도  
푸르게 돋는 늦별까지 펼치면서  
그런 밤 세레나데로 지새겠습니다.

하늘이 ping ping 터져 쌓이는 날과  
가지런히 늘인 빗발 속  
극채색 똑딱이는 날은 두고  
구겨 두었던  
꽃샘잎샘 살피 같은

달 뜨기 전 불안정한 시간이나  
눈보라처럼 설블리 휘날리는  
폭풍의 전야 같은 시간들로  
아무렇게나 바꾸어만 주신다면,

그대 버림으로 비롯하여  
나의 무딘 낮을 갈아  
풀숲에 선뜻 들이대고  
경멸로 몰락하며  
孤芳에 시중드는 즐거움으로  
비어가는 가슴으로 무겁게 짊어지고  
쓸쓸한 사막을 걸겠습니다.

—졸작 중에서—

진주 조개는 바다 밑에서 오랜 기간 일정한 운동을 반복하면서 한 알의 보석을 생성시킨다고 하는데, 그 커단 날개 아래 계곡의 물소리는 무얼 읽어주는지, 모든 공리를 떠난 사무사의 경지를 배우며, 하나의 또 다른 세계를 깨닫고 창조하기 위해, 나의 모든 감각을 지느러미로 세우고, 계곡을 거슬러 폭포가 있는 나의 계곡을 찾으려 한다.  
오래 전 조탁해 놓은 산벼랑 바위와의 약속을 위해…….

시

-양승준-



다 쓰지 못한 詩

양 승 준

한밤중 깨어나  
사는건 다 이런겐가  
두살짜리 아들놈  
잠든 모습 바라보며  
긴긴 겨울밤  
담배 한대 붙여 물고  
흔탁한 세상일  
태워 날리며  
이 못난 아버지는  
이렇게 운단다.

사루비아 I

양 승 준

아내의 熱病은  
9월 해거름으로 자라나고  
그만큼의 무게로 어둠이 온다.  
이따금 病室 창밖을 내다보며  
붉은 사루비아,  
아내의 사랑만큼 진한  
사루비아 꽃잎이 떨어지고  
어디서부터 여름이 떠나는지  
귀뚜라미가 울고 있다.

〔프로필〕

- 강원 고성 출생
- 75 춘천고 졸업
- 79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 강원대학교 「바람」문학동인 활동
- 78 강원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주최
- 학예술 공모에 시당선 - 「망우리」
- 78 고려대학교 신문사 주최 전국대학생 학예술공모에 문학평론당선 - 「한국고대시가에 나타난 죽음의식 연구」
- 81 특진사령부 주최 특진장병 백일장 시당선
- 현재 횡성고에서 국어 가르침



소녀의 기도

권 용 환

번뇌의 때묻지 않은  
매니큐어도 맛보지 않은  
뽀족한 손을 모은다.

파아란 하늘 밖에 모르는  
망울진 꽃잎 처럼  
눈썹은 눈물 맛을 모른다

나약한 무릎 모래터에는  
고뇌의 파도소리  
귀없는 나비 같다.

하늘을 향해 달린다.  
십자가의 못 박는 소리  
피호르는 홍수소리  
가시 관이 면류관으로 흐르는 소리  
손과 눈썹과 무릎은  
하나님 은혜의 소나기를 받는다.

프로필

- 횡성읍 조곡리 출생
- 대동여자중학교 20년 근무
- 1940년 2월 13일생

大韓의 英雄들

金 基 元

大洋 건너 異國萬里  
 萬邦의 和合의 場 L.A로  
 氣笛을 울리는 遠征의 깃발.  
 구름 밖으로 旗幅에 새기는  
 仁慈한 母情의 祈願.  
 뭉게구름뿔 피는 一念은  
 法堂과 聖堂에서  
 求援의 祈禱로 安息 하고  
 촛불은 녹아 지새는 밤에  
 感天의 至誠은 영글었나니

× ×

家庭 마다  
 職場 마다  
 이 江山 송두리로  
 숨 막히는 決戰 앞에  
 化石 인양 박혀 앉아  
 勝利의 錦衣還鄉을  
 至誠으로 聲援 했노라.

× ×

레스링의 金原基 柳寅卓  
 유도의 安柄根 河亨柱  
 복싱의 申俊燮  
 양궁의 徐香順의 차례로  
 勝利의 금빛 메달이  
 코리아의 목 가슴으로  
 燦爛히 빛날 때 마다  
 L.A의 蒼空으로 휘날린  
 榮光 스런 太極旗 물결은

\* 시 \*

—김기원—

뜨거운 눈시울 앞에 펄럭이었고  
萬邦으로 울려 퍼진  
우렁찬 大韓의 愛國歌는  
몽쿨한 가슴속에 波濤 쳤노라  
아! 장하여라  
祖國의 아들과 딸들 이어!  
별빛 처럼 빛나는  
大韓의 英雄들 이어!.

× ×

여섯개의 금메달  
또 여섯개의 은메달  
그리고도 일곱개의 동메달로  
世界 十位의 勝利를 爭取한  
千秋에 빛나는 오늘의 歷史  
이 기쁨  
이 榮光은  
世紀의 靑史로 빛나리라  
아! 장하여라  
祖國의 아들과 딸들 이어!  
별빛 처럼 빛나는  
大韓의 英雄들 이어!.

通禁의 地域에서

金 基 元

寂寥한 솔바람 소리에  
老松은 옛일을 속삭이고  
荒莫한 太古의 山野에  
풀벌레 슬피 우네  
여기는 通禁의 地域  
핏 무늬 얼룩진 山河여.

× ×

이 江山 暗昧한 밤에  
雪辱의 曙光이 밝아오네! 날  
日帝의 解甲이 猥設한  
美蘇 領駐의 悲憾한 分界는  
祖國의 怨恨을 孕胎했나니  
아! 不運의 三八線 이어!.

× ×

歲月이 靑苔로 치가린  
斷腸의 城壁 그 위로  
北進의 進軍 나팔은  
解恨의 地軸을 울리더니  
他律이 치가린 痛痕의 城壁  
아! 怨恨의 休戰線 이어!.

시

戰車 大砲 機關銃 앞에  
血淚로 對敵한 父母兄弟들  
三十餘 星霜은 흘러가도  
넋쿨진 惡夢은 千萬 갈래  
돌門이 잠긴 城壁 앞에  
오늘도 守門의 哨兵은 셋네.

× ×

뉘라 함부로 말 하리오.

三者 會談

四者 會談

六者 會談을

三千里 江山은 白衣의 근역

서린恨 풀리는 뜻 모으리.

× ×

어서 오라 白衣同胞여

仁慈한 祖國의 품에 안겨

白衣統一의 聖業을 열고

繁榮하는 來日의 祖國을

뜻 모아 기리 빛내리

아! 어서 오라 白衣同胞여!.

시

파 도

이 상 천

긴머리 풀어 헤치고 긴허리 늘어뜨리며  
거친 숨소리도 잊은채 암초에 설레면서  
뜨거운 태양의 오열을 알몸으로 던지며 돌아 간다.

거품이 되어 하얗게 하얗게 쌓이고  
살과 살이 깎숙한 곳에서 뼈를 만들어  
코게트 허물벗고 돌아간다.

해변에 모래위로 밀려 와  
아픈가슴 움켜쥐고 고통속에 떨다가  
심장의 맥박소리에 상흔을 안고 돌아간다.

육신의 허물은 잔잔한 바람으로 살아나고  
이야기는 거품으로 토하며  
밀려간 자국속으로 죽음을 안고 돌아간다.

수평선 너머 그리던 님이 물려와  
헤메어도 모래 무덤 뿐  
아무도 없는 바다의 독백위로 눈물은 한없이 흐르는데  
아무런  
설음없이 밀려왔다가 사랑을 안고 돌아간다.

## 새 벽 안 개

이 상 천

새벽길에서 詩를 집는다  
 기워도 기워도 끝없는 공백을 집듯이,  
 결코 풀수없는 마음이 되어  
 누더기 옷자락으로 치부를 가리운채  
 새벽 안개속으로 질주한다.

가시내 웃음소리 역겨워 음악은 광란을 만들고  
 목제리 잔잔한 호수에 몸을 푼 휴식은  
 생각하는 갈대의 뿌리깊은 아픔이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못하는  
 인생의 톱니바퀴  
 태양을 잡아먹는 어둠속에  
 기워도 기워도 끝이없는 詩를 집는다.

당신이 물고온 안개빛 숲  
 어디선가 스쳐온 순풍은  
 고독한 女人의 한조각 부푼 심장에 파고들고  
 새벽안개의 꿈이 되어  
 내삶이 지치어 돌아올때  
 품안에서 기다리는 꽃이 되어  
 그결에 바람이 바람을 부릅니다.

### [ 프로필 ]

-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 출생
- 황성문화원 이사
- 어사매 회원
- 시동인 “목소리” 회원
- 극단 “산야” 회원

◆ 시 ◆

## 여 름 밤

이 상 천

정적을 깨고  
이슬을 맞으면서  
가슴과 가슴이 쉬어가던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뒤에 앉아 나누는  
어둠의 이야기  
나와의 외로운 별들이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스며드는 아픔의 깊이로  
서로의 숨결을 지켜야 하는  
여름밤 쉬고가는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람이 어둠을 일구어 놓고  
맨살로 비벼대는 만큼  
떠나는 피로움도 이별속에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방랑의 집시가 되어  
당신이 주는 웃음속에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 프로필 ]

- 황성군 무천면 정금리 출생
- 황성문화원 이사
- 어사매 회원
- 시동인 "목소리" 회원
- 극단 "산야" 회원

◇ 시 ◇

## 저 녀 江 에 서

홍 석 운

저녁강에 비가온다  
미친년도 가슴 설레이는 사월  
우산을 쓰지 않고  
벗을래야 벗을것도 없는 우리  
그대로 흥건히 젖어야 한다.

끝을 알수 없는  
비수처럼 파고드는 그리움속에  
속옷하나 걸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은 사월.

지금 우리는 젊음 불살라 사랑해야 한다.  
등겨진 창마다  
다시 등을 밝히고 밤을 맞아야 한다  
따뜻한 손길로 식어가는 사랑을 다독여  
바로 우리는,  
절망을 절망하여야 한다.

쓴 소주로 달래어도 무의미한  
점점 깊어져 싸늘한  
까마귀의 예감도 아닌 한 구절의,  
서점에 아무렇게 버려진 詩

우리는 버려진 모든것을 보듬고  
비오는 저녁강에 나와  
지난겨울 풀잎과 함께  
이름없이 죽어간 빗을 위하여  
목청을 가다듬고  
사랑을 노래해야 한다.

미친년도 가슴 설레이는 이 사월에

[ 프로필 ]

- 횡성군 공근면 출생
- 시동인 "목소리" 회원

◇ 시 ◇

## 흔 떠난 육신을 세우고

홍 석 운

흔떠난 육신을 세우고 돌아오며 안심하지만  
깡통소리도 못내고 기침소리도 못내는  
참새 무리는,  
오히려 그를 비웃지 않는다.

찢긴 가슴 펴려일때마다 마지막 갈채를 보내며  
저승에 닿을듯 한점으로 사라졌다가  
무어라 저희들끼리 재잘거리며  
한점으로 돌아오는 地上에

날이 저문다.

흔떠난 육신은 찬 이슬 다 맞고도  
감기는 커녕, 지쳐 눕지않고  
빈 들녘을 지키는데

거친 바람 말발굽소리 할퀴고가는 도적떼에게  
어느나라 法에도 없는,  
죽은 者를  
또다시 처형케 하는가.

◇ 시 ◇

## 복 소 리

홍 명 남

나발수를 버려둔채로 복소리는 들렸다  
형장의 회도위에 알팍한 숨통을 붙인대로  
다시  
가무의 도포는 나비처럼 흩어진다.

밤이건 새벽이건 불꽃속에 새 장작을 지피고  
어디와 —. 갈증돋구는 노래에  
이녀은 신발을 잊고왔음을 알았다.

세간이편에 북망저편에  
돌아서지 않은 발길이 아직 남아  
등줄을 가르는 바람소리  
반득이는 날뚝처럼 가슴을 썰어내고 있는것일까

나무는 머리칼을 풀어 허리를 동여매고  
바위는 이끼털을 덮어쓰듯이  
우리는  
스스로의 어깨를 포박해 버린채  
낡은 목발을 잡는다.

다시 다음에, 다음에  
이제 가면 언제오나  
이제 가면 언제오나

나발수를 버려둔채로 복소리는 들렸다  
형장의 회도위에 숨죽인 가구위에  
다시  
가무의 포도는 나비처럼 흩어진다.

[ 프로필 ]

- 황성군 안흥면 강림출생
- 시동인 “복소리” 회원
- 현 상지대

◇ 시 ◇

시 계

홍 명 남

잠자고 있거나 깨어있거나  
부던히 살아가고 있거나  
헛된것을 위하여 사사로울때  
문득  
잠깨어난 새벽아침에…….

끊임없는 고통으로  
알수없는 본원을 향해 비석처럼 굳어져간 날들과  
현재와  
허상의 표적으로 빨려갈 뿐인  
우리들의 또다른 새벽이 되었다.

무엇?  
고통이 없다고.

나무처럼 실연하고  
가지처럼 수고하고  
돌처럼 과묵하다  
꽃잎처럼 누울지라도.

찰라 만큼도 머물지 않아  
잠자고 있어도 차이없는 눈금이되어  
지금도  
허다히 지나간 버스를 기다리는 친구들을 위하여  
「뚜. 뚜. 뚜」

◇ 시 ◇

## 스물 한살의 비망록

엄 미 자

떠나자 —

촉촉한 비에 발자취는  
잃어버린 스물하고 한살을 찾아서  
거리에 덩구는 밟혀진 낙엽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퇴색되어 있는  
힘한 인생고를 벗어나  
작은 집시가 되어  
서러운 진리를 찾고 싶어  
길가에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이젠

막혀버린 콘크리트 벽 사이로  
사라져 버린 인간의 정  
가로등 아래서 떨고 있는  
무서운 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잔술에 묻어 버린 슬픔은  
스물하고 한살에  
서로운 진리임을 알았을때

### [ 프로필 ]

- 횡성군 공근면 출생
- 시동인 “북소리” 회원
- 현상지 전문

◇ 시 ◇

## 안 개 발

김 영 란

피어나는 안개  
가을의 냄새를 물고온다  
아무도 모르게

혼동한다  
땅과 하늘 사이의 사물들이  
아주 취해버린다.

아스팔트가, 허영고  
나무들이 휘청거린다  
그 매력  
그것은 지상의 향수였나 보다.

새벽의 이슬을 동반하고,  
숨사탕같은 실비가 나린다  
온통 하늘과 땅사이를  
연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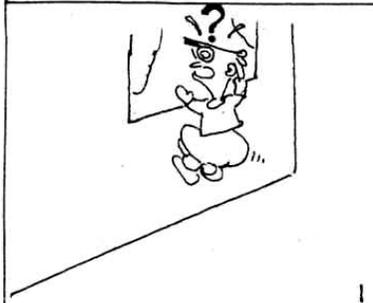
아  
안개발  
그것은 온통 안개투성이의 발이었다.

### [ 프로필 ]

- 시동인 “목소리” 회원
- 상지대 졸업
- 현셀제약 근무



김응환.



◇ 수필 ◇

## 故 郷



任 教 淳

國土는 민족의 터전이고 故郷은 鄉民의 요람입니다. 아기가 어머니 품속에서 태어난 뒤 요람 속에서 웅아리를 하며 크는 그 幸福과 平和는 하느님이 人間에게 베푸신 최대의 祝福입니다.

누구나 부모가 있고 故郷이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고, 故郷 없이 成長한 사람 없습니다. 비록 그 고향이 북한 땅에 있을지라도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고향은 무덤 속에 들어가기전 자기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고향의 모습은 자기 자기 마다의 얼굴이 다르듯 모습도 다르게 각자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것입니다.

나도 지금부터 내 기억 속에 아롱다롱한 옛 고향의 모습을 이 지면에 그려 보고자 합니다.

황성군 안흥면 소사리 태오리가 나의 고향입니다.

지금부터 49년전 내 고향 태오리는 일제시대의 막바지, 소위 대동아 전쟁의 끝무렵 나는 솔뿌리를 캐어 학교에 바치고, 밥숟갈이 공출 당해서 나무 숟갈로 밥을 먹어야했던 민족의 억울함을 모르고 어린 동심에 마냥 좋기만 해서 산과 들과 냇물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덕고산과 봉화산에 흰 안개가 내린 새벽에 진달래 꽃을 꺾으러 산을 뛰어오르고 고래실 논배미에서 개흙을 온몸에 칠하면서 올챙이를 건져내며 놀았습니다.

안흥국민학교 터를 뚫으러 부역나갔던 마을 사람들 10여명이 어정에 치여 직사하고 우리 아버님은 척추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져 사경을 헤매는 사건이 나의 어린 시절 영영 울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 합니다.

산골 논밭배기가 모두 아버님의 구명을 위해 탕진이 되고 풀뿌리 나무 열매를 먹으며 의원을 찾아 심부름을 다니던 내 어릴적의 일이 이제 아득한 추억으로 그냥 아름다

운 고향으로만 기억 되는것은 세월 속에 괴로움도 아름다움으로 변하게 하는 조물주의 예술적인 위력인듯 싶어집니다.

배가 고파서 찢레덤불마다 찾아 다니며 찢레를 꺾어 먹든 염소 생활만큼이나 원시적이었던 내가 이제 밥맛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은 미울만큼의 사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곶아 울던 동생을 업고 산나물 뜯으러 가신 어머니를 마중나가던 봉화산 기슭에서 몇번이고 얼어지며 “어머니”를 울며 부르던 그 메아리가 이제 내 귓결에 아득한 남의 목소리인듯한 것은 사람은 너무나 현실에 젖어 사는듯한 밋도룩 알팍한 마음이 자연의 섭리라고 자위를 해야 합니까?

휴가 왔던 국군이 귀대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면화재를 넘다가 공비가 숲속에서 쏜 총에 맞아 시체로 변해 돌아오는 것을 뛰어가 구경하던 나는 숲 속이 무서워 흘끔대며 다녔던 기억이나, 6·25때 아군이 진주해 들어온다고 바위굴 속에 숨어 피난한 청년이 태극기를 들고 국군을 맞으러 나가다가 후퇴하는 인민군 잔유병의 총에 가슴이 확혀쳐진 참극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내 친구의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가고 말았지요.

이러한 고향에서의 이런 추억 저런 추억이 이제 몽롱한 기억으로 멀어져 가고 그냥 아름답게만 여겨지는 지금, 내가 살던집터는 서울 강릉간 고속도로가 흰이 뿔리어소사 휴게소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올 여름 아이들과 직원들이 동해안 야영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기서 쉬면서 나는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내 살던 집은 흔적이 없고 멋진 현대식 건물과 관광객을 위해 마련된 물건과 시설들이 정말로 이상하게만 여겨 졌습니다.

내가 토끼 잡이를 하던 산은 아직도 내 옛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네 교수가 아닌가?”

하고 손을 덥석 잡을것만 같아 돌변 돌변 살피도 기억나는 얼굴은 없고, 젊고 심성 한 청년들이 담배를 빼서 물고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가 하더군요.

아쉽게도 잃어버린 故郷인듯, 너무도 다르게 변한 고향의 모습이 가슴 뭉클하도록 고마워졌습니다.

고속버스의 찌개지는듯한 격한 굉음이 아름다운 내 기억을 밀어제키며 지나가 버리  
드군요.

내가 동화를 쓰면서 항상 그렸던 내어릴적의 마을은 송진냄새가 나는 태오지의 솔밭  
과 국민학교 4학년 음악 교과서에 <방울꽃> 노랫말처럼 아무도 오지 않은 깊은 산  
속에 쪼로롱 방울꽃이 혼자 폈어요. 라고 한 내 고향이 영원히 그렇기를 바랬던 나의  
마음을 적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국민학교 4학년 애들이 <방울꽃> 노래를 부르지만 내 이런 고향의 마음을  
담은 뜻을 알까? 하는 마음이 몽클거려 집니다.

괴롭고 어렵고 슬펐던 어린시절의 내고향이지만 <방울꽃> 속에 산노루의 울음 소  
리 같은 서러움을 담고 쪼로롱 소리 날까 그냥 듭니다. 나는 내 마음을 적었던 것입니  
다.

이제 나는 이 노래 속에서 내 고향을 되 새기며 이 글을 마치려 합니다.

#### [ 프 로 필 ]

- 1938 6.25 황성군 안흥면 소사리 태오지 출생
- 1957 춘천사범학교 졸업
- 1971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화당선으로 문단에 나옴
- 1975 강원도 문화상 수상
- 1983 소천 문학상 수상
- 1984 강원 문학상 수상
- 현재 한국문인협회 원주지부장  
원주국민학교 교감 재직중

◇ 수필 ◇



## K 간호원에게

송 수 영

아지랑이 손에 잡힐듯 화사한 봄의 길목에서 못내 잊힐 그리움을  
장미빛 노을에 불사르며 흐려지는 눈망울로 또 잊어야 할 당신을 생각하는군요. 너무나  
쓰린 상처였기에…….

K양!

봄빛 아련한 매화철에 때아닌 폭풍이 누리를 휩쓸어 못다핀 한 송이 꽃망울이 산새  
우는 두메 산골에서 외로히 흐느끼며 저주하고 원망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  
는가?

떨어진 꽃잎마다 구수의 한이 쌓이고 만날 길 없으면서 헤어져야했고 다시 못을 길  
임을 알면서도 가야할 이렇게 가야만 할길 이었던가.

이제 산화된 영령 앞에 명복을 빌며 못내 잊힐 그리움 속에 못다 핀 한의 값이 헛되  
지 않기를 빌지 않으려는지…….

지금 나는 내 힘으로 감당키 어려운 그 후한에 흐르는 눈물마저 말라 버리고 그리움  
마저 굳어버려 갈기 갈기 찢기운 가슴을 안고 아슴 아스레 다가서는 노을 속에 아스라  
이 심연에 눕는다. 너무나 가슴 아픈 죄수이기에.

K양!

당신은 아름다운 내일을 가꾸어야 할 정원사요. 또 내일 움틀 새 생명을 위해 비  
장한 운명에 의사가 되어야 하지않겠는가. 손길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하며 간호원  
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어찌자고 잊고 있는가. 허탈해진 걸음. 휘청거리며 차라리  
입술을 깨물고 모든 슬픔을 나혼자 먹음더라도 당신을 슬프게해야 하지 말자던 것이  
또 이렇게 뇌까라게 되는군요. 영원히 볼 수 없는 다시 보고 싶은 얼굴이기에…….

오늘도 지표없이 방향하며 매마른 눈물을 되썩고 호흡을 해야만 하는군요.

내일을 위해서 무섭도록 고독한 이 순간에 아슬한 수평선을 울리며 알알이 사무치도  
록 가슴에 맺힌 온갖 사연이 소뭇이 사라지고 아쉬움 없이 필 그날이 오기를 회구하면  
서 비정에 발자취를 남긴다.

◇ 수상 ◇

## 고 진 감 래

수백 교사 조 원 천

4 식구가 갑천면 구방리라고 하는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농토라고는 유산으로 밭 600여평과 논 300여평 즉 2마지기가 고작이었다.

일년 동안 알뜰하게 가꾸어 보았자 콩 3가마, 쌀 3가마 정도로 식생활은 물론 기타 생활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더구나 어머니는 일찍 여의시고 늙으신 아버지와 위로는 누님 한 분, 아래로는 여동생과 어려움을 남몰래 이겨가며 겨우 식생활만 해결하고 살아가는 처지였다.

완고하신 아버지는 언제나 남에게 불쾌한 언행을 하기 싫고 오직 정직만으로 삶을 영위하려는 의지와 신념으로 인하여 자손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 왔었다.

늙으신 아버지는 언제나 자식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남보다 두터워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생속의 나날을 탈피할까 하는 생각 끝에 남의 집 머슴살이로 가기로 하였고, 누님은 이웃집, 농촌에서는 땅마지기나 있고 부자라고 하는 장씨 집에 식모살이를 하였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 대신 여동생과 함께 집에서 일을 맡아하기로 하였다.

아버지는 사경 추니가 울면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어 주인으로 부터 힘있게 일은 하지 못하지만 성실성이 드러나 그집에서 몇년 동안 있도록 작정이 되어 있었다.

더우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누님도 언제나 근면하고 성실하여 장씨 집에서는 가엾은 아이라고 하여 많은 일꾼들이 일하는 날이면 남은 음식도 집으로 보내고, 가끔 장씨 집으로 여동생과 그를 불러 배불리 먹으라고 하면서 많은 음식을 주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몇년이 지나자 아버지의 새경과 누님의 보탬으로 사경전을 사들여 이력저력 가꾸어 어느정도 살림살이는 겨우 형편이 펴가고 있었다.

이때 누님의 나이가 25세로 장씨집에서 오랫동안 생활 한 터라 장씨집의 사정은 훤히 하였고, 식구와 다름 없게 돼 버렸다.

장씨 내외의 강요와 굶주림과 고난 속에서 헤어지지 못했던 아버지의 생각으로 농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장씨집의 아들인 철규와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한지 일년 반이 지났을까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임신이 되지 않아 성실과 사랑을 받아 왔던 누님은 날이 갈수록 단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공들여 쌓았던 탑이 무너지듯이 마침내 장씨 집으로부터 소박데기가 돼 버렸다.

소박데기가 돼 버린 누님은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끝에 정신 분열증으로 사리를 판단할 수 없게 되었고 드디어 동네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천박한 여인으로 되어 버렸다. 애써 시집을 보냈더니 이 꼴이 되었냐고 하면서 아버지는 누님이 싫다고 현재 살고 있는 우천면 ○○리에 여동생과 함께 이사를 오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던 누님을 거리가 먼 사이로 바뀌어 누님이 가까이 오면 몽둥이로 패면서 안보이는 곳에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으라는 호령과 냉대를 했다.

그는 누님을 볼때마다 가슴 아렸으나 아버지의 눈치 때문에 도저히 누님을 보살필 수가 없었다.

어떤 때는 추운 겨울 오들 오들 떨면서 싸리문을 열면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몽둥이가 무서워 들어 오지도 못하고 흰 고무신을 끌고 비실 비실 도망할때면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곤하여 아버지 몰래 동네 담배 건조실에 숨겨 두어 밥을 날라다 먹이곤 하였으며 음식을 먹다간 다 떨어진 치마 폭에 밥이니, 씨래기 장이니 나물등을 쏟아 부어 쓴살같이 담배 건조실을 뛰쳐나가 흠뻑 흠뻑 뒤 돌아 보면서 손가락으로 밥을 입에 구겨 넣는 것을 볼때면 더욱 한스러워 누구를 원망할지? 통곡을 하였던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죽게 내버려 두라는 말씀은 귀가 따가웠고 누님을 땅에 묻고 돌아 서던날 막걸리를 먹고 동생과 얼마나 울었는지 눈시울이 부어 앞이 안보인 날이기도 하였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 누님이 그렇게 개 죽음이 아니었다고 뇌 까리면서 돌아셨다. 이렇게 하여 노령이신 아버지는 누님의 죽음 2년 후에 돌아 가시고 여동생은 모

육군부대 신 중사와 결혼하여 현재 1남 2녀로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행복하게 살고있다. 그는 동생을 출가시킨 후에 농사의 뒷 바리지와 식사 짓기등 어려움을 참아가며 빈농의 딸과 이듬해 결혼하여 지난날을 회고하며 고난과 역경을 거울삼아 알뜰하게 씨뿌리고 가꾸어 그런대로 농사에 힘썼다.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과 같이 부인도 알뜰하게 살림하여 그와 호흡이 잘 맞았다.

결혼한지 5년후에 두 남매를 낳게 되었고 는 3마지기를 장만하여 조금씩 살림이 불어나기 시작하였다.

동네에서도 인심을 잃지 않고 동네 어른들에게는 예절을 알세우고 어려움을 같이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가며 생활 하던중 그것이 인연이 되어 33세에 ○○학교에 고용원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학교 고용원으로 일 할때에도 집과 동네에서와 같이 근면 성실하게 맡은 일을 완수 하므로 직장인에게 또 어린꼬마들에게도 좋은 학교 아저씨라고 소문 나 있다. 많은 꼬마 친구가 생기고 커다란 집에서의 생활이 편쉽지는 않았지만 옛날의 고생이 밀거름이 되어 능히 견디고 이겨 나갈만 하였다.

재직 2년후 성실성을 인정받아 횡성읍으로 전근이 되었다.

새로운 가족과 식구들이 생겼지만 그직장에서도 열심히 일 하였다. 횡성 읍하리에 조그마한 샅월세 방을 얻어 자취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횡성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였으며 부인은 꼬마를 데리고 농사를 지었으며 직장에서 받는 보수는 꼬박 여축하였다.

5년 후에 먼저 직장으로 원대 복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직만을 신조로 삼고 살아온 그는 가족과 함께 누님의 묘에서 풀을 뽑으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꽃피우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곤한다.

성장한 자녀들은 교환양으로 재직 중 결혼하였고,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막내동이는 모 대학 재학중이다.

한 인생의 발자취를 더듬고 갈고 닦아 오늘의 결과를 낳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너무 절약하였고 아꼈던 탓인지 나이답지않게 걸눌었고,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리라 생각되어, 또한 가정에서는 자녀교육 및 알뜰한 살림살이의 가장으로서……. 직장내에서는 성실 근면하고, 책임 완수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는 효행을…….

<소개하는 이 글은 ○○학교 고용원 ○○○씨의 이야기를 옮겨 본다.>

◆ 핑트 ◆



## 조속한 아이들

김 양 수

숨소리까지 빨아 들일 정도의 조용한 분위기를 깨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맨 뒷좌석에서 들리는 여자의 흐느낌이었다.

“누구나 시험 보는 데 울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게을리해서 답안을 쓸 수 없으니까 걱정이 되어 연막탄을 터뜨린다고 생각하고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여느때 같으면 다시 조용해질텐데 울음소리는 반사적으로 높아만 가는 것이 이상해서 나는 뒷쪽으로 가 보았다.

경화가 책상 위에 얼굴을 묻고 훌쩍거리고 있었다. 공부도 항상 1등을 하는데 나 는 이상히 여기고

“경화가 어디 아픈가 보구나?”

이마를 짚어 보았으나 열은 없어서 일단 안심을 하고

“왜 그래?”

조용히 자초지종을 물어 보았다. 그래도 경화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왜 그러 나고 묻잖아!”

관한을 앞세웠다. 그래도 경화는 들은 체도 안했다. 나는 더이상 아이들 앞에서 창 피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경화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일으키며

“넌 선생님을 필로……”

언성을 높이다 말고 깜짝 놀라 더 이상 경화를 나무랄수가 없었다. 책상밀에 빨간 피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속수무책이었다.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몰라 당황하기만

했다.

“선생님 제가 화장실에 데리고 갈게요”

용케 눈치 채 로사가 경화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시험지에서 눈을 뚫 아이들의 시선이 뒷문을 빠져나가는 경화에게로 쏟아졌다.

“뿔들해 어서 시험이나 쳐!”

아이들을 나무라며 나의 무지를 무마해 보려고 애썼다. 그러면서 나는 로사의 어른스런 행동에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항상 휴지를 너무 많이 주머니속에 넣고 다니는 경화를 소비심이 강하다고 야단치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날부터 나는 성교육 교재를 탐독해 가기 시작했다. 조속해져 가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못가르친 것이 깨롭적 하기만 해서였다.

다음날 나는 자신있게 교단에 섰다. 그렇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다

“사람은 크면 결혼을 하지요?”

겨우 이 말을 꺼냈을 때

“선생님 애인 생겼나요?”

성호가 불쑥 일어서서 내뻗는 바람에 아이들이 배꼽을 쥐고 까르르 웃어 젖혔다. 나도 그냥 피식 웃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다하던 나는 다시 마음을 강하게 먹고 천장만 바라본 채

“꽃씨를 심으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지요”

아주 그럴듯하게 서론을 끌어 냈다 계속해서 또

“빨간 맨드라미씨에선 역시 빨간 맨드라미……”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 데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거나 마찬가지로 말씀이지요”

종화가 거기까지 비약해 버렸으므로 나는 뒷통수를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사나이로서 한번 똘 잘을 집어 넣는 다는건 불명예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선 꽃이 되듯이……”

월경이라든가 수업애길 하려 했는데 무섭게 경원이가 가로채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가지요?”

단길로 빠졌다. 지현이도 덩달아

“선생님 애인 사진 보여주세요”

영똥한 질문을 했다. 그 소리에 의기 양양하게 군중심리로

“좀 보여 주세요?”

아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실은 온통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졸지에 공세를 받게 된 나는 목소리를 높여

“조용히 하지 못해!”

그 한마디로 억누를 수 밖에 없었다. 나는 더이상 설명할 것이 없었다.

다음날 출근하차마자 나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책상위에 핑크 봉투가 던져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른 열구리를 찢어 읽어 보았다.

<사랑하는 바지씨에게 드립니다.

그동안 속으로 연모해 왔으나 고백하지 못한 죄 이제서라도 털어 놓고 싶습니다. 오늘밤 8시 행복다실에서 기다려도 괜찮겠지요. 미스 박>

편지를 다 읽고난 나는 얼른 책상서랍에 감춰 버렸다. 여자애들이 구석에서 킁킁거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하루종일 마음이 쓰여 수업이 되질 않았다. 박선생 교실이 바로 옆이라서 화장실엘 가려면 꼭 지나쳐야 되어서 소변까지 참느라 고생했다.

망설이다 다방에 나갔다. 박선생은 벌써 와서 열차를 들고 있었다.

“웬일이세요?”

그 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좀 늦었지요?”

앞에 가서 앉았다.

“누굴 만나러 오셨나요?”

박선생이 시치미 떴다고 있다고 생각하니 쾌쩍한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리시지요?”

나는 편지를 꺼내 박선생에게 보여주며 거드름을 피웠다.

“어머나! 이진 내 글씨가 아니어요”

박선생은 기겁을 하고 편지를 박박 찢어 버렸다.

나는 흥당무가 되어 도망치듯 다방을 빠져 나왔다.

거리에는 흰눈송이가 펄펄 날리고 있었다.

#### [ 프 로 필 ]

\* 김양수 ( 1953. 2.22. 황성 우천 산전리 출생 )

- 정금국교 원주중, 원주고, 춘천교대 졸
- 1984. 1 강원일보 신춘문에 당선
- 1984. 3 아동문학 평론 천료
- 현대아동문학가협회원
- 두레 동인협회
- 한국문협회원
- 강원 아동문학회원



## 신 바람

정 재 영

땀뺀기는 언제나 발끝에서 부터 시작해 올라 갔다.

허기사,

뒤편 땀뺀는데 무슨 엠병할놈의 순서가있고 법칙이 있는건 아니었지만, 웬지 힘주어 묻지르면 사르르 녹아서 꺼져버릿듯한 새하얀 얼굴만은, 맨나중에 땀아드리는게 병수 맘성엔 옳을것 같았다.

방바닥엔 흔들리는 등잔불 밑에, 곧바로 내려다 보면 어질어질 현기증이 날것같은, 아줌니가 실오라기 하나 안걸치고 누워 있었다.

병수는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땀에 젖어 과감치가 된 아줌니의 꼬얀 두다리를 땀고, 물오른 장딴지를 땀아 올랐다.

병수의 두손이 신비한 그곳에 이르자 아줌니는 무의식중에서도 그 잘난 속곳하나 안 걸친 그 부분을, 손으로 가리며 허벅지를 찼다.

병수는 두눈을 질끈 감았다.

건드리면 '툭' 터져버릴 듯한 팽팽한 젖무덤을 지나 얼굴까지 땀뺀기가 완전히 끝나서야, 아줌니는 선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슬뻗 올려 땀다.

병수의 두손이 지나간 아줌니의 온몸은 솟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아줌니를 위한 육체적 공양인 노그매 2부 행사에, 병수는 스스로 없이 한마리 양이 되었다.

× × ×

“여섯째 딸이 들어 오디마는

어무이요, 아시다 시피, 내가 시집간지가 꼭 석달째 안 나는교,

우리 신랑 내 얼굴 일시라도 못보면 죽을락 하고,

나는 신랑의 얼굴 한시라도 못보면 환장을 하는데, 내 사랑에 미쳐 가지고, 나는 못

가겠습더……”

“ 덩—더쿠웅—, 덩더—쿠웅 ”

“ 어라 만수(萬洙) 어라 대신(大臣)이야 ”

“ 덩—더쿵— 덩더쿵— ”

×

×

×

췌소릴 하늘에 날려 올리는 박무당(朴巫堂)의 신장(神將)님 부르는 바리데기 사설은, 하늘에 흰옷을 치트리며 내질러대는 초혼소리 와도 같이, 구구절절이 가슴을 녹여 내리는 애앓음이 서리 설켜있었다.

병수는 ‘주당살가림’이 깨름직해, 까만 어둠의 휘장이 내려지는 당집의 어스름을 지켜 보며, 방문 앞에 멈춰 섰다.

병수는 저녁전누리 참에 얻어 둔 끈연을 빼 물었다. 푸르스름한 연기가 당숲 칠회한 어둠사이로 날아 올랐다. 시농뿐인 조각달이 실기죽 걸려있는, 팽나무 가지에선 언제나 처럼 밤까마귀가 꺾끄름한 울음소릴 ‘작작’ 토해 내고 있었다.

병수는 팽나무를 향해 침을 ‘작’ 내 뱉었다.

씩어 문드러진 팽나무 밑등치엔 시퍼런 도깨비불들이, 알록달록 새끼줄에 매여진 형질쫄가리들과 어우러져 잔치를 벌리고 있었다.

새카만 매화산 어둠이 고양이 걸음으로 멈춰 선 당집 안에 선 자지러질듯 장고소리가, 초가머리에 짓쳐 오르는 달을 따라 여덱박자의 증물리로 치닫고 있었다.

바리데기 사설은,

스무해 동안 간직했던 꽃같은 몸을 주고, 부모를 위해 영약을 구한 바리공주의 신명을 싣고, 박무당의 어깨위를 타고 올라 꿈팡내 나는 녹녹한 방안을 어지럽게 맴돌고 있었다.

장고소리가 ‘통’ 소릴 내며 멈춰서고 숨통을 끊는듯한 한순간의 정적이 당집을 내리췌었다.

이어서 기다렸었다는 듯이 방울소리가 증증물리의 장단을 싣고, 박무당의 손목에서 딸랑거리며 빨간 빛갓과 시퍼런 활옷이, 하얀 원자창 위로 황홀한 원색의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다.

‘색 - 색’

가쁜 숨소리가 문풍지를 두들겨 댔다.

그소린,

흡사 절정의 순간 참을수 없는 쾌감에 몸을 떨며, 병수의 배 위에서 내질러 대던 아줌니의 숨가쁜 교성처럼 들려왔다.

철딱서니 없이 병수의 불두덩이가 꿈틀거렸다.

“엠펙할 - 지금이 어느때 디-”

해피하게도 병수의 발등은 아랫것이 한바탕 옥신거리고 나서 꼭꼭 걸리곤 했다.

이적지 보쌌기다리는 여편네 처럼 병수의 몸속에서 숨죽여 지켜 섰던 무당 아줌니의 신장흔이, 신명을 싣고 병수의 온몸을 짓 두들겨 댔다.

이제 병수는 몸뿐이지, 그의 핏줄속에는 곰팡구 냄새나는 신장흔만이 제멋대로 자맥질 했다. 짜릿한 전율이 병수의 등가죽을 ‘스르릉’거리며 내리 달렸다.

병수의 온몸은 풀무질에 바싹 단 첫덩어리가 되어, 아줌니의 황홀한 신바람속으로 빨려 들었다.

곰같은 병수의 몸이 바싹 바른 저룬단 처럼 ‘경중경중’ 마당을 뛰어 울랐다. 병수의 중우적삼에서 안개처럼 뽀얀김이 감자산꽃의 연기같이 피어 울랐다.

아줌니의 노그매는 제한시간이 없었다.

신명만 잡혔다 하면 장담이 옷나무 쾌를 칠때까지 밤을 패 댔다.

팽나무 가지에 걸렸던 조각달이 즐린 눈을 비비적 거리고 제풀에 떠나버린 한밤중 이속해서야, 방울소리가 숨을 멈추고 노그맨 끝을 맺었다.

병수가 방문을 벌적 열었을때 아줌니는 후줄그레한 한쪼가리의 걸레가 되어, 날개 죽지를 방바닥에 축 늘어 트리고 있었다. 병수는 무릎을 꿇고 아줌니를 들어 울렸다.

아줌니는 나비처럼 가벼웠다. 한옹큼도 안되는 허리가 금방이라도 틀어 쥐면 ‘바스락’ 소릴 내며 부스러 질것만 같았다.

‘불쌍한 아줌니……’

병수는 시뻘건 빛갓을 벗겨 내렸다. 삼단같은 머리가 등잔불 밑에서 찰찰 윤기를  
註) 1. 노그매 : 무당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무속 의식.

냈다. 시퍼런 활옷의 끈을 끄르는 병수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활옷 속에 반쳐입은 옥양목 속고쟁이는 눈처럼 희고 정결했다.

눈을 감고 방바닥에 누워 있는 아즙니는, 천상에서 갓 내려온 천사 같았다.

병수는 깨끗이 뺨 광복수건으로, 아즙니가 맘을 다해 신당을 닦듯, 땀에 젖은 아즙니의 온몸을 닦기 시작했다.

이적지 바리데기 사실 한토막 못 외우는 돌무당(?) 병수였지만, 아즙니를 살아있는 신장님 피시듯 극진히 모시는 길만이 신장님께 복을 받을수 있으며, 그 또한 병수로선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걸,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병수에게 있어서 아즙니는 살아 있는 신장님이요, 보이는 믿음의 실상이었다.

여자로 태어나서 이적지 애 한번 못나본 몸이라서 그러한지, 서른에도 귀가 붙은 아즙니 몸은, 물오른 한창 바람의 열여덟 처녀와 조금도 다름데가 없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문지르는 병수의 손놀림에, 아즙니는 태초에 무생물체에 생명의 불꽃이 집화 되듯, 온몸에 이름하기 어려운 뜨거운 열기가 소용돌이 쳤다.

이적지 아즙니의 은밀한 몸속에서 숨죽여 섰던, 불꽃이 맹렬히 빛을 통졌다.

「작작」

아즙니 온몸에서 진땀이 콩비지 처럼 내 났다. 수줍던 젖무덤이 터질듯이 부풀어 오르며, 앵토라진 젖꼭진 개암열매처럼 단단하게 여물어 갔다.

아즙니는 ‘꿈’소릴 내며 더 이상 못참겠다는 듯이 허벅지를 짰다.

허벅진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병수는 중우적삼을 벗어 제켰다. 온몸을 불살러 신장님께 몽땅 바쳐야 하는 육신공양에, 병수는 불꽃을 향해 모강질 길고 달려드는 불나비 처럼, 온몸을 던져 버렸다. 노그매 2부 행사는 밀도 끝도 없이, 병수와 아즙니의 완전화음속에 서서히 잦혀 들고 있었다.

삼단머리 풀어 헤친 어둠들이 들쭉날쭉 거리며 당집 골방안을 내리 쓸었다.

× × ×

병수가 아즙니 집에 풀머슴으로 짐을푼건, 병수나이 열여섯 나던 된통 추운 동짓달 어느날이었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다가, 이곳 장거리 주막까지 흘러 들었고, 그곳 주막에서, 잘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야실대는 나긋나긋함도 없는 작부 하나를 붙들고 세월을 죽이고 있던, 권아저씨 병수는 만났었다.

오입밑친 다 털리고, 들피진 얼굴로 부수수 일어 서는 권아저씨 따라, 병수는 세경도 없이 입이나 얻어 먹겠다고 그길로 달다 쓰단 말한마디 없이, 실광옆 골방에 터를 잡았다.

특 붙겨진 광대뼈, 움푹 패인 두눈, 길쭉하게 빠져버린 하관하며, 병수 첫눈에도 권아저씨 천생 타고난 역마살 낀 난봉꾼 가다였다.

거기에다가 소싯적 청상과부로 사내에 주려 세상을 살아 온 할멈은, 몇십년 묵은 음충맞은 백여우 였다.

아들을 서방 삼아, 이적지 긴긴 밤을 베짖어 풀어 앉고 좋은 세월 죽여 온 여자답게, 할멈은 아들 오입 단도린 뒷전이고, 며느리에게 불을 켜고 낮 간지런 사내새만날려 댔다.

“느 서방 바람 나 저 지랄 하는건 어디까지나 니 잘못이다. 눈썹만치두 느 서방 야속타 마라. 아! 니 물건이 오죽 째으면 첫날밤 소박을 맞고, 느 서방이 처삼촌 벌초하듯 발신양도 안하겠니, 에이 못난 것 같으니라구”

쫄증(羞症)난 시애비 쳇머리 흔들 듯 야멸차게 몰아 세우는 할멈 앞에, 아줌니는 주먹같은 눈물만 뚝뚝 떨구어댔다.

사실 권아저씨가 저모양으로 발정하는 수캐모양 돼버려 주막을 나돌아내기게된것도, 따지고 보면 모다 할멈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천생 타고난 색골인 권아저씨, 할멈은 이핑게 저핑게로 아줌니방에 발을 드려 놓질 못하게 했다.

권아저씨 애꿎은 술만 작살 냈다. 그리곤, 할멈에 대한 분풀이와 채워지지 않은 갈급한 성욕에 대한 욕구불만을, 죄없는 아줌니 한테 폭력으로 앙갚음 했다.

할멈은 할멈대로 빼앗긴 사내에 대한 분풀이와, 아줌니를 향한 타오르는 질투심에, 매질하는 아들을 부추키며 야릇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천둥에 개 뛰듯 조저대는 매를 아줌니는 돌부처 마냥 꺾꽂이 서서 감수 하곤 했다. 맞는것도 다 버릇할 탓이었다. 아줌니는 살을 저며내는 통증이, 그래도 아들 오길 기다

리느라 바상대며, 자길 향해 피를 말리는 고통을 가하는 시어머니의 소가지 보다 몇배 낫다고 생각했다. 할멈도 아들이 집구석이라고 붙어 있는 날이면, 소가지질 누그러트리고 아들을 향해 「행행」거리며 알랑떨기에 바빴다.

그래도 서방이 랍시고 몇달을 가슴 졸이며 기다린 며느린 아랑곳 없이, 할멈은 독수리 닭 채가듯 전아저씨 할멈방으로 불러 들였다.

“애야 에미방이 뜨뜻 하구나 들어와 폭 자련……”

그동안 객지에서 으등그러진 날씨에 얼마나 개 떨듯 했겠누— 어서 들어 온 어서어 이구 내—새끼— …… ”

젊은것이나 늙은 것이나 사내샘 하난 못 당한다구, 아 — 오죽하면 첫날밤. 신방든 아들을 할멈은 자기방으로 불러 들였다. 하니, 엄청난 여자임에는 틀림 없었다.

“아—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 며느린 별수 있남,

그럼시롱 씨없이 싹 트는거 봤남—

그집 과부가 돌일세, 청상과부에 쌍과부라— …… ”

입가진 동네 사람이면 모두 다 그 집구석을 향해 한마디씩 엿을 뱉어 댔다.

실팍하던 논섬지기 노름뒤로 제집질로 야금야금 작살이 났다.

병수가 그집서 세번째 겨울을 나던해 가서는, 전아저씨에게 남은것 이라곤, 밤을 패가며 검은피를 「콕콕」토했 내는 가슴앓이병만 남고는 모든 재산은 먼지 하나 없이 거덜이 나 버렸다.

바싹 마른 등걸토막이 된 전아저씨가 들어 누운 사랑방에선, 봉당에 까지 썩는피 냄새가 ‘확확’ 풍겨 났다.

몸뚱아린 그렇게 썩어 가도 그짓할 기운은 어디서 솟아 나는지, 매일밤 궁하니 자가 용(?) 이라도 타야 겠다는 심보로 아줌니를 찾아 댔다. 그럴때 전 아저씨 눈은 흘레하다 애들 뜨거운물에 도루묵이 꽤버린 암캐 같이, 파란불꽃이 튀곤 했다. 밤마다 아줌닌 틀어진 치마폭을 움켜 쥐고 방문을 차곤, 봉당을 내달았다. 그병엔 술과 계집을 가장 멀리 해야 한다고 귀에 딱지가 앉도록 할멈이 해댄 탓도 있었지만, 아줌니가 사랑방을 들어 서기가 무섭게 들어 닥치는 할멈의 닥달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이년, 사타구니에다 말뚝을 박고 다닐년, 즈 서방 잡아 먹으려는 여우 같은년, 당

장 나와, 화냥년아 —”

그럴때마다,

천아저션 씨벌개진 눈을 휘번덕거리며 아줌니의 치마꼬리를 붙잡고, 젓달라는 어린애  
마냥 애걸복걸을 했다.

“어무이요. — 하룻밤 만이요 — 예—에 아니 딱 한번만……”

“안돼—!! 다 너 살구자는 거여—”

할멈은 매달리는 아들을 향해 겨울강변의 사금파리 처럼, 싸늘하고 냉랭한 소리를 버  
럭 질렀다.

천아저션 미친사람 처럼 벽에다 ‘팡팡’ 머리를 부딪다간 ‘꺼이꺼이’ 통곡을 했다.

그리곤,

옆에 사람이 있건 말건 바지를 까 내리고, 까치런 두손으로 용두질을 쳤다. 뱀이 물  
켜 들고 개소주가 가마솔 시루에 받쳐 졌다.

그러나 눈꺼풀에 내리 덮혀지는 죽음의 그림자는 뱀이나 개소주 따윈 아랑곳 없이,마  
지막 죽음의 종점인 주독에 새빨개진 코를 향해 한치두치 내려 앉았다.

‘어무이요 — 딱 한번만’의 피맺힌 恨을 못풀어 본채 천아저션 ‘왈칵’ 검은 피를  
한사발 내 쏟고는, 죽음의 그림자를 따라 콧구멍을 빠져 하늘로 날아 올랐다.

저승에다가 죽음을 알리는 이승에서의 신고식이, 흰옷을 지붕으로 치트리며부르는 초  
혼을 시작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연극의 각본처럼, 가장행열(假裝行列)의 예비연  
습처럼 착착 진행 돼 갔다.

지광일 짚고 조문을 받으며 질러대는 ‘아이고’ 소리도, 외로 끈 새끼줄에 일곱매듭  
을 묶여 칠성판 위에 누운 천아저씨도, 병수 눈엔 가장행렬의 연기자처럼보여 졌다. 오  
색만장을 펼럭이며 ‘어허렁차’ 소릴 하늘에 울리며 밀고 밀리다 걸핏하면 망흔이 다  
리가 아파 쉬었다 가진다며 행성을 세워 놓고, 담배 보루와 노갓돈을 요구하는 상엿꾼  
들은 가장 행렬의 연기자가 분명했다.

그러나 동서남북을 휘휘 보며 피가 튀도록 내질러 대는 횃꾼들의 회 달는 소리는 가  
장행열이 아니었다. 장난스레 행성을 타고 매화산 네모난 구덩이 까지 올때만 해도, 그  
는 분명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세상 사람이었는데 황토흙이 한켜 두켜 그의



잠을 번개서 뒤척이던 병수는 바지를 추수려 입고 탕기에 냉수를 떠가지곤 아줌니 방 앞에서 주뻗 거뻗다.

“아줌니 여기 물……”

“고마워, 잠깐 들어와……”

큰기침을 두번 하고 병수는 안방문을 들어 섰다. 밤에 봐 그런지 수건을 머리에 동여 맨 아줌니는 무척 수척해 보였다.

“열이 심하신가 봐요 아줌니”

“필…… 조금,

요즘 감자 거두미 혼자 하느라 힘들지, 내가 빨리 일어 나얄 텐데……”

“까짓 감자거두미가 일인가요. 신선 병거지 늙음 인걸요.”

“병수 아재!……”

“예—”

“엄니 안 보고 싶어? 참 엄니 얼굴 한번도 못 봤다면서?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저렇게 훌륭하게 장성한 아들을 보시면……”

“대견 하긴요. 당신몸으로 난 새끼 내던지고 간 여잔 대요.” 병수는 그말이 입안에서 뱅뱅 돌았으나, 입술을 옥물었다.

외숙모 말에 의하면 병수엄니는 병수 아버지가 몹쓸병에 쓰러진지 두달만에 장거리 장돌뱅이와 배가 맞아 야밤도주를 했다고 한다. 뿔덩어리 병수를 남겨놓고 떠난 병수엄니를 향해 외숙모는 입에 거품을 물고 옥바가질 퍼부어 댔다.

‘피도 눈물도 없는 년, 췌 받아서 마땅할 년, 그짓하다 살 맛을 년……’

외숙모는 병수가 엄니를 그리워 하고 어찌구할 틈을 안주기 위해 모질게 병수를 키웠다.

밀도 끝도 없는 아줌니의 엄니 얘기였지만, 병수는 괜히 콧마루가 찡해지고 그답지 않게 눈물이 「핑」돌았다.

「피는 물 보다 진해질까?」

병수 자신도 모를 일이었다.

눈물에 얼보여 선지 까물럭거리는 등잔불 밑에 누운 아줌니 얼굴이, 한번도 본적이

없는 어머니의 얼굴로 보여졌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어지러웠다.

몸의 중심을 도대체가 잡을수가 없었다.

‘병수야 — 아 나다 네 에미다.’

방바닥에,

병수를 낳아 준 어머니가 누워, 병수를 향해 손을 뻗치는 것만 같았다.

이적지 꾸역 꾸역 세상 살며 참어 왔던 설움들이 병수의 목구멍으로 되넘어 왔다.

눈에 열비쳐 서인지, 가슴속 저편에 묻어 뒀던 어머니의 얼굴이, 히뿌영게 되살아 났다. 그리곤 촛점 잃은 병수의 두눈으로 두팔을 꼭 벌리고 어머니가 다가왔다.

“어머니—!!”

병수는 자신도 알수 없는 어떤힘에 이끌려, 앞뒤도 생각할 겨를 없이, 덩석 아줌니의 손을 잡았다.

아줌니 두손은 솟불처럼 뜨거워져 있었다.

‘이놈우 새끼 머슴 주제에 감히 누구 손을……’

원아저씨가 시키면 꺾 뒤집어 쓰곤 병수 눈앞에 열쩨 뒀다.

‘이놈우 자숙 즈 에미년 화냥년 아니랴까봐……’

악마같은 할멈이 으등그러진 얼굴로 병수를 향해 목덜미를 조여 오는것 같았다. 병수는 전기 먹은 뿔바리 처럼 후다닥 손을 뺐다. 얼굴이 화끈 거리고 가슴이 마구 후당당 거리며 다리에 맥이 탁 풀렸다.

방안이 빙빙 돌며 귓속에선 때 아닌 맴소리가, 억머구리 꿍뚱 먹먹하게 들려 왔다.

“괘찮아 병수 아재, 다— 그게 정에 주려 산 탓인걸 — 뭐”

서걱서걱 얼어 붙었던 병수의 가슴을 찌르는, 따습고 정에 어린 아줌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울적하며, 잠자던 설움을 목구멍 위로 치받쳐 올렸다.

밀도 끝도 없는 아득한 우물 밑바닥으로, 병수의 온몸이 가라앉는 듯한 외로움이 불켜 들었다.

정을 담뿍 담은 눈으로 쳐다 보는 아줌니 얼굴은, 다시 엉뚱하게도 어머니의 얼굴이

되어 파인더 속의 물체 처럼 가로 세로로 확대 되었다 겹쳐지곤 했다.

병수는 짚단 쓰러지듯 아줌니 가슴에 털썩 쓰러졌다. 20년을 꾸역꾸역 참아 왔던 설움들이 터진 붓물 처럼 흘러 넘쳤다. 병수는 서너살 응석받이 처럼 아줌니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도리질을 쳤다. 남달리 정이 많은 아줌니도 뿌리치지 않고, 병수 머리와 등을 쓸며 같이 울고 제쳤다.

아줌니도 이때껏 세상살며 꼬깃꼬깃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恨들을, 가슴을 활짝 열고 접혀 있던 조각들을 하나하나 펼치며 恨풀일 하고 있었다.

얼마만한 시간이 흘렀는지 병수는 알수가 없었다. 아니 그순간만은 거대한 지구도 숨을 멈추고, 병수를 향해 발길을 쉬고 있으려니, 병수는 생각되었다.

병수가 몸을 일으켜 열적어 눈을 떴을때, 방바닥에 누운 사람은 업니가 아니고 주인 집 아줌니란 엄연한 사실과, 아줌니의 얇은 여름적삼이 병수의 두손에 의해 마구 파헤쳐져 병수의 혼을 뜨게 했다.

무우 속살같은 아줌니의 알몸이 등잔불 밑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큼직한 병수의 두손에 쥐어져 있는 터질듯한 젖무덤의 새카만 젖꼭진 옆에 들떠 산머루알 처럼 부풀어 있었다.

아줌닌 덜덜 떨고 있었다. 몇년동안 굳게 잠켜 뒀던 내부와의 처절한 싸움이 막다른 골목을 향해 불을 뿜고 있었다. 아줌니의 이마에선 식은땀이 뿑뿑 흘러 내리며 어금니 부딪는 소리가 “따—악 딱” 연속적으로 들려 왔다.

불처럼 뜨거운 입김이 병수를 녹여 버릴듯이 아줌니 입에서 새어 나왔다. 차라리 비명이라 해야 좋을 단발마 같은 거친 숨소리가, 아줌니 가슴 밑바닥으로 부터 울려 나와, 녹녹한 방안을 어지럽게 맴돌았다.

“병수 — 나 — 좀 살려—줘……”

거미줄에 거린 풍뎡이를 향해 달려드는 말거미 처럼, 불처럼 뜨거워진 아줌니 손이 병수의 중우적삼속을 파고 들었다.

‘안돼, 안돼, 이래선 안돼……’

병수는 악을 썼다.

그러나 맘과는 달리 훈수도 없는 몸뚱아린 끈적 끈적한 거미줄에서 한발자욱도 움직

일수가 없었다. 빠져 나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거미줄은 더욱 더 온몸을 조여 왔다.  
꼬옥 꼬옥,

덜덜 떨며 아줌니 손이, 이적지 어느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던 병수의 그곳에 이르자 병수는 눈을 감았다.

몸과 마음이 하늘 끝점을 향해 내려질을 쳤다.

× × ×

아줌니가 무병(巫病)을 앓기 시작한건 가을걷이가 거지반 끝나 갈 무렵이었다. 여름부터 소화가 안되고, 개좃몽데이 처럼 시름시름 골치를 앓아 오다 가을 걷이가 콩튀듯 바빠지면서 부터, 아줌닌 며칠을 못 버티고 자리보전(保全)을 하고 말았다. 답답한 노릇이 꼭 집어 어느곳이 아픈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픈곳이 없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마디마디 쑤시면서 자꾸만 모든게 헛 보인다는 것이었다. 병수는 몸이 허해서 그런가보다 여겨, 창백출과 뽕나무껍질로 엿을 고와 환을 지었고, 체기를 딸구기 위해 의원을 불러 뒹침을 놔 냈다. 병세는 하루게 다르게 악화 돼 가기만 했다. 거기다가 해만 실뿔하면 난리때 청방나가 총맞아 죽은 아버지와, 검은필 「작」 뒤집어 쓴 썩 아저씨가 보인다고 아줌니는 바싹 마른 팔을 내두르며 헛소릴 했다.

병수는 겁이 덜컥 났다.

궁하면 통하고 통은 통으로 때운다는건, 그러한 처지에서 무당을 찾은 병수를 두고 한말 같았다.

병수는 마지막으로 이판사판 잡고실라무네 「쪽집게」란 별명이 붙은 살짜곰보인 박 무당을 찾았다.

“오라! 귀하신 大主 한분 오셨군 오셨어 째째째, 아! 아무리 급하기로서니 처떡 던 보리밥 사발 복지개도 안 덮고 와, 실광 쌀항아리 옆 동동주는 다 시어서 어찌나, 째째째—

말명귀와 원혼귀가 장난을 하는군 恨을 품고 말야, 갈라 쥐야 돼, 한풀일해 쥐야 해, 그 멀쩡한 여편넌 巫病이야 神딸이 잡혔어 째째째”

‘헛 — 헛’ 휘파람 소릴 내며, 애충손가락을 잘라서 백일을 말린후 오지항아리에다 넣었다 신(神)을 올린후 제자로 만들었다는 애동제자가, ‘쌩’하니 아줌니네 집을 다

너 오후 박무당의 입을 빌려 나불 대고 있었다. 그 목소린 잘 됐어야 대어섯밖에 더 안 돼 보이는 제집아이 목소리 였다.

박무당 입에서 나오는 어린제집아이 목소리도 신기하려니와, 근 사십리나 되는 아줌니네 집사정을 미주알 고주알 내리생기는데 병수는 학을 뺏다. 박무당 말따나 그날 병수는 급하게 오느라고 부뚜막에 먹던 보리밥을 뚜껑도 덮지 않은채 달려 왔었으며, 실광에는 타작날 먹으려고 해 뒀던 동동주 항아리가 쌀독 옆에 분명히 놓여 있었다.

병수는 도깨비에 홀린 뉘시기 모양 정신이 멍해졌다.

“스무 하루날이 손이 안끼 낄이여 깔깔깔, 쌀 스말 스흠을 담겨 흰무릎 찌고, 신장님 배 꿍지 않게 준비 허드라고 용한 神말 날거야 깔깔깔—깁”

애동제자가 어른이 어린아이 혼제하듯 일방적인 명령을 내쫓고는 거짓말 같이 박무당 목구멍 속으로 사라졌다.

박무당은 약속 대로 스무날 저녁무렵 얼굴이 시퍼런 두 여자에게 짐을 이켜 앞세우곤, 이웃마실 오듯 아줌니네 대문턱을 들어 섰다.

동네 아줌니들이 쑥덕거리며 분주히 부엌을 드나 들었다. 먹시루에선 흰무리가 그럴싸 하게 풀풀 김을 뿌려 뒀고, 쌀을 가득 담은 오지동우엔, 소닝구에 문창호질 비끄러 맨 신장대가 떡하니 꽃혀졌다.

강신(降神)을 위한 내림굿은 일곱마당을 밟는것이 통례였다.

번쩍 거리는 은장도, 파란색과 빨간색이 조화를 이룬 하늘을 나뉠듯한 활옷, 가슴을 두들겨 대는 무던 징소리, 징소리……

번쩍 번쩍 박무당이 휘둘러 대는 칼끝에선,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하는 요상한 살기가 푸른빛을 통졌다.

연실 허연 소금이 액메기로 풀풀 뿌려지고, 한마디도 알아 들을수 없는 사설이 눈만 뜨면 되풀이 됐다.

사흘 한나절이 되도록 신장대가 끔찍을 앓자, 박무당 보다는 동네아낙 들이 더 조바심을 태웠다. 어서 빨리 신장대가 ‘부르르’ 떨어 꽃같은 아줌닐 일으켜 세우고, 나비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신명을 돌구워 줬으면 하는, 똑같은 바람들이 그들을 조바심으로 타게 했다.

남정네들이야 껴떡하면 막걸리추렴이랍시고 모여서는 신명들을 쫓지만, 사시장철 방구석에 들어 박힌 우리네야 언제 신명풀일 해보겠느냐며, 식구들 밥 푹 떠 주곤 들 돌같이 굶마당으로 물러들었다.

내립굿을 시작한지 나흘날 저녁이었다. 드디어 박무당에게 원혼귀의 녀이 입으로 부터 실리어 졌다. 뱃창자를 잡아 뜯는 박무당의 구슬픈 녀두리가, 질식 할것만 같던 방안 아낙들의 숨통을 텃다.

“우리 神딸 전생에 무슨 죄가 그리 많아 이다지도 가날픈 가슴에다 ‘괘괘’ 못을 박았누, 하늘갈던 부모님네 못된놈들 불총에 꺾이우고, 파뿌리 다 되도록 백년을 기억했던 낭군님네 어이해서 먼저 갔오, 애고 슬프고도 애통하다.

하늘에 계신 천신님, 땅에 계신 지신님네, 북두칠성 칠성님, 동서남북, 중방에다 오방신장님, 가엾비 보옵소서……”

구성진 박무당의 녀두리가 이제껏 세상 살며 꺾꺾 참아 왔던 설움들을, 뚫은 종창 터 치 듯 시원스레 터쳐 냈다. 둘러선 아낙들의 어깨가 출렁거리고, 소복하고 엷드린 아줌니의 나비같은 두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누에고치 실풀리듯 이구석 저구석에 서리 설켰던 恨의 울들이 줄줄이 풀리어 졌다.

잠자던 신장대가 아줌니 손에서 한길씩 진동을 했다.

일곱자 일곱치 베행깊이 망혼과의 마지막 이별을 고하려는 듯 ‘작’ 소릴 내며 갈라져 나갔다. 한가닥은 이승 이요. 한가닥은 저승이라!!

성깔 지독한 원혼귀의 이별 치곤 너무나도 싱겁고 간단했다.

촛불에서는 망혼들의 이름이 적힌 소지가 촛불의 불꽃과 함께 서서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것은 참으로 찬란한 이별의 한토막이었다.

거짓말 같이 말명귀와 원혼귀가 날아간 아줌니 얼굴은 생기가 돌고, 박무당은 신바람이 나 몸초에게 새神을 베려달라고 소명(召命)을 했다.

신장말 잡은 아줌니 얼굴에선 비오듯 땀이 흘러 내리고 온몸은 학질환자 저녁참 맞듯, 사시나무 처럼 떨어 졌다.

부정한 모든것이 온통 땀으로 변해, 아줌니 몸을 빠져 나오고 있었다. 한나절 동안 피를 말리는 고통은 계속됐다. 아줌니가 접신(接神)을 시작한건 중참이 조금 못 돼서

었다. 아줌니 맥만 ‘톡—톡’ 튕뽀 몸과 마음은 이승을 완전히 떠나 있었다. 작은 「죽음의 늪」속에 누운 아줌니 얼굴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 스러웠다.

아줌니는 기—인 고통속에서 찻질을 깨고 한토막 한마리의 영롱한 나비처럼, 인간으로선 마지막인 어떤 끝점의 경지에 올라 갔다가, 한송이의 꽃이 되어 돌아 왔다.

일곱마당을 밟는날,

술꾼 모든 사람들은 강냉이밭 쥐대기 품앗이들을 깨고서 까지, 자들박 아줌니네 집으로 몰려 들었다.

마당 한가운데 사방예자 명석이 ‘두르르’ 펼쳐지고, 도랑무궁 위에는 물이 찰찰 넘치는 오지동우가 날름하니 울려졌다.

작두!!

말만 들어도 가슴의 더운 피가 서걱서걱 얼어 붙는 날 시퍼런 작두가 물동이 위로 올려졌다. 아이 허벅지 만한 무우가 작두날 위에서 「헛경」 잘리어 나갔다. ‘휘—휘’ 소금이 사방을 날며, 자지러질듯한 징소리가 박무당을 날 시퍼런 작두 위로 사뿐히 올려 보냈다.

구경꾼들의 피가 ‘톡’ 소릴 내며 멈춰서고, 천지도 변화를 멈추곤 일순간 서 있는 듯 했다.

아줌니가 박무당을 따라 날아 갈듯 작두 위로 올라 섰다. 햇살이 멈춰선 아줌니의 하이얀 발뒷굽친 해말간 계란 같았다. 금방이라도 작두 위에선 ‘뚝—뚝’ 새빨간 피가 허공에대가 꽃을 만들며 떨어 질것만 같았다.

구경꾼들 입에서 ‘헛’ 소리가 났다.

작두위 아줌니는 한마리의 학이었다. 날개만 펼럭이면, 금방이라도 아줌니는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 갈것만 같았다. 꿈속 같고 도깨비 놀음 같던 며칠이 휘까닥 지나갔다.

아줌니는 신장님 명이라며, 대낮에도 소름이 착착 끼치는 술꾼 북쪽 언덕바지의 외딴당집으로 집을 옮겼다.

이때다 싶어 병수는, 시퍼런 신장그림 안보이는 그 어디론가 도망치려 단단히 품을 잡아 봤다. 그러나 그건 한 순간의 맘뿐이지 병수는 말거미줄에 걸린 한갓 한마리 풍뎅이에 불과했다.

자신의 힘으로 아줌니 곁에서 단 한발자국도 움직일수 없는 풍행이,  
아니 어쩌면은 그 거미줄은, 매일밤 노그매 2부에 자신의 몸속에서 방출되는 수많은 정자(精子)들이 모여 만든, 단단한 울가미 인지도 몰랐다.

단하루라도, 몸을 불살러 치뤄대는 노그매 2부행사가 걸르며는 언제 부터인지 병수 온몸은 옥신거리 대기 시작했다.

병수는 도리질 한번 못 쳐보고 아줌니를 따라 짐보따릴 울러 메고 당숲을 올라섰다.  
아줌니는 신당을 말끔히 정리하고 ㅅ의 전부인양 하루 두번 노그매에 몸과 마음을 바쳤다.

한두입 건너 아줌니가 용하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산골짜길 넘고 들판을 내 달렸다. 사흘이 멀다하고 아줌니는 인근 동네는 물론 일이백리 외동 까지 며칠씩 푸닥거리 다녀 오곤 했다.

집안국은 물론, 동투재비에 덜뜨린 푸닥거리, 심지어 안질 일종인 개씨바릴 잡을때 도 그들은 안약을 마다하고 아줌니한테서 삼을 잡곤 했다.

아줌니는 '평가당 - 평가당' 검구를 둘러 메고 동네를 핀담 하다 파김치가 다 되어 집엘 돌아 올때면, 늘어진 해를 붙잡고 홀로 집을 지키는 병수를 위해, 문창호지에 돌돌 만 흰무리를 잊지 않았다. 어쩌면 흰무리는 새장 속에 새에게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먹이 처럼, 병수네 집구석에서 떠날줄을 몰랐다.

흰무리는 이렇다할 맛이 없었다. 호박고자릴 송송 썰어넣은 콩백설기 처럼 단맛도 거진 없었고, 차좁쌀 인절미 처럼 고소한 맛도 흰무리엔 없었지만, 흰무리 입에 넣고 꼭꼭 씹을라 치면 달착지근 하고 은은한 감칠맛이 목구멍을 녹아 들었다. 흰무리 애총산 쉼뿌리 마냥 없던 맛을 만들어 냈다.

흰무리 마치 아줌니 같았다.

엄니 같기도 하고, 또 그런것 같지만은 않은것 같고, 목이 타 도록 보고픈것도 아닌데 해만 실핏 해지면 목달개 송아지 외양간 찾듯, 포근하고 안온함을 가져다 주는 아줌니,

흰무리 바로 그런 맛이였다.

흰무릎 병수네 실팡에서 빼앗아 간건 순전히 꺾다리 목사양반 때문이었다.

이때진,

밑도 끝도 없이 솔골 공터에 들이 닥쳐서는, 매일 아침 새벽종소릴 걷어 올리는 그놈의 예수쟁이들 도깨비 잔치때문에, 아줌니는 남모르게 녹달병이 들어가고 있었다.

도깨비 장난 같다는 둥, 어디 그게 믿을게 되겠냐는둥, 나발을 불던 동네사람들은, 공짜라면 양젓물도 마다지 않는 구호물자 힘이 뻗었는지, 아니면 바다를 지팡이로 가르고, 물위를 걷고, 물고기 두마리로 기천명을 멕였다는 하늘님의 엄청난 능력 때문이었는지, 야금야금 푸닥거릴 마다하고, 동투재비살 맞는걸 우습게 알며, 꺾다리 목사양반한테로만 물려 들었다.

신당위엔, 언계적건지 기억에도 없는 먼지 낀 노랑태 한마리만이 간신히 신장님 꼭기를 이어 가고 있었다.

아줌니는 머지않아 동네가 큰살을 맞을 거라며, 더욱 더 노그매에 불을 태웠다.

그러나 형편없는 노그매 제물에 신장님도 영양실조가 걸리셨는지, 쪽집게란 아줌니의 신통력은 열성어린 노그맨 아랑곳 없이 날로 떨어져 갔다.

그나마 몇되던 단골손님들도 동문서답하는 신통력에 발길을 돌리곤 했다. 걸으론 안그런척 했지만 아줌니는 쇠퇴해가는 신통력과도 같이 생기를 잃고, 매일새벽 아침을 걸어 올리는 예배당의 종소리에, 가슴 한뼉으로 부터 한을 한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병수는 아줌니 대신 푸닥거리 견수를 올리려 좃빠지게 동네를 핀담했다.

완전히 예수패로 돌아가 버린 동네는 병수에게 너무나 냉랭했다. 냉랭한 정도를 넘어 그들은 숫제 병수를 뱀 보듯했다.

“얌마! 좃두, 너 이제 시절종던 무당년 기둥서방 노릇두 종 쳤다구,

아! 요새 어느 얼어 죽을 미친놈이 무당을 찾아—”

“종던 놈 더 망가지기 전에 손 탁 털고 날리 버려 이 빙신아—”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 차라리 느 XX 따 먹어라, 어디 제집이 없어 그 지랄이냐— 야 과부무당 그거엔 금뎌 들렀냐, 잘 돌려 줘 밑에서,

긴짜꾸야 그여자 낀……

에이 드럽다. 뭐—”

병수는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 졌다. 밝은햇살 까지도 자길 향해 비웃는것 같애, 병수 어둠속에서 울빼미 처럼 이슬을 맞으며 푸닥거리 견수를 올리려 동네를 돌았다.

‘모두다 저놈의 예배당 때문이다……’

병수 맘속엔 어느샌가, 예배당을 향한 알수없는 분노가 자릴 틀고 앉아, 음모를 꾸미며 독을 썼다.

뿔간에 한바탕 하지 않고는 병수는 가슴이 틀어 질것만 같았다.

× × ×

“아주머니 증세를 보니 지독한 영양실조 에다가 급성맹장 같애요. 빨리 손을 써주세요. 시간이 급합니다. 뭐 하시다면 음내에 있는 선교사님 차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

“이봐—병수! 뭘 꾸물 거러, 목사님 전직이 의사선생님이었다지 않아 어린 하슬러구 고집 좀 자금 부려”

“제가 음내 까지 업고 가겠어요. 괜히 갔싼 동정들일랑 하지 마세요.”

“미쳤나 이사람, 아—음내가 심리길인가? 이심리 길인가? 먼 육십리야—육십리”

“갈수 있어요. 갈수 있단 말예요!”

우리 아줌닌 神딸이예요. 그렇게 쉽게 안 쓰러져요.”

“젊은이 진정해요. 우리 우선 사람이나 살려 놓고 무당이구 예수꾼이고 따집시다. 나도 목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다같이 따순 피를 나눈 동포로서 말씀 드립니다. 병수는 안타까웠다.

뚝고집은 부렸지만 서두 지금 끊어질듯한 복통에 기절한 아줌닐 일으켜 세울 약도, 맹장을 자르고 꺾매 놓을 기술도, 치료비도 병수에게 없었다.

음내 까지 아줌니를 업고 뿔 기운도 문제 였고, 그 안에 아줌니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병수에게 없었다.

금방이라도 아줌니 눈꺼플 위론 죽음의 그림자가 내려 앉을것만 같았다.

병수의 머릿속으로 내장을 열어 볼게하는 찬바람이 ‘윙윙’ 소릴 냈다.

‘아—! 빌어먹을……’

신장님에겐 백근도 채 안나가는 아줌니를 음내 까지 실어다 줄 알량한 능력도 없단  
말인가?……

신장니—임? 신따알? 엠병할 뱃창자 하나 못 붙여 놓는 주제에, 무슨놈애 영혼구  
제를 한다고 지랄이여……’

참기 어려운 울분과 허망한 생각들이, 조각조각 병수의 마음을 헤집어 뜯었다.

이적지 병수 맘속에 고이 자리 잡았던 믿음의 탑들이 일순간에 ‘와구르르’ 무너져  
내렸다. 은근하고 달착지근 하게 입속을 축여 주던 흰무리의 감칠맛이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이제껏 병수의 온몸을 끈끈하게 붙잡아 뒀던 말거미줄이 ‘툭’ 소릴 내며 맥없이 떨  
어져 나갔다.

풍뎡이 한마리가 목적없이 어디론가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져 나가는게 눈에  
보이는 듯 했다.

풍뎡이는 어쩔 병수 자신의 모습인 지도 몰랐다.

“복사님! 우리 아줌닐 살려 주세요 네—!”

병수는 땅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솔골하늘이,

큰소리라도 내지르면 「짹」 소릴 내며 무너져 내릴것 같은 하늘이,

병수의 머리위에서 팽그라밀 돌고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병수의 볼위로 주르르 흘러 내렸다.

<끝>

#### 프로 필

- 횡성 감천 출생
- 강원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 (78년)
- 교육자료 대상 동화 당선 (78년)
- 「업어까지」로 강원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1982년)
- 신춘문우회 회원
- 복원문학회 회원
- 한국문인협회 원주지부 소설분과 위원장

# 논 단

## 國家發展과 文化의 機能

車 培 根 (서울대학교수·新聞學 박사)

### I. 文化란 무엇인가?

「文化」라고 하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藝術」을 聯想하기 쉬우나, 文化라는 概念은 대단히 많은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定義도 매우 많고 다양한 바,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文化에 대한 서로 다른 定義가 무려 138 개나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 A. 文化에 대한 여러가지 定義

그렇다면 도대체 文化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몇가지 定義를 우선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 ① 文化란 한 共同社會內的 모든 천명된 社會的 慣習 및 이러한 관습에 의해 결정된 모든 인간활동의 所産이다.( Boas )
- ② 文化란 한 社會의 成員들이 教育과 模倣을 통하여 습득, 共有하게 되는 습관적 행위의 한類型이다. ( Linton )
- ③ 文化란 한 특정社會의 成員들에 의해서 共有되고 傳承되는 모든 行爲의 結果를 말한다.( Linton )
- ④ 文化란 다른 種類의 그것과 구별되는 어떤 한 種類의 生活樣式을 말한다. ( Kluckhohn and Leighton )
- ⑤ 文化란 대체로 학습된 인간행위의 模型(모델)을 말하는데, 이는 한 특정사회내에서 한 世代로부터 다음 世代로 傳承되며 또한 한 社會에서 다른 社會로 전파될 수도 있다.( Abohe )

이와 같이 文化에 대한 學者들(특히 文化人類學者들)의 定義는 다양하나, 대체로 이들은 文化를 한 社會의 「生活樣式」 또는 「生活方法」으로 보고 있으며, 어떤 學者는 좀 더 未來指向的 立場에서 그것을 「生活을 위한 設計」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文化的 本質的 特性으로서, 文化는 學習되고 共有되며 또한 傳承되는 일종의 社會的 慣習이라는 점을 다같이 들고 있다.

## B. 文化的 類型

그러면 「生活樣式」으로서의 文化에는 어떤 類型이 있는가? 그 類型을 살펴보는 것도 「文化」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겠는데, 미국의 文化人類學者인 필립 K. 보크(Philip K. Bock)는 인간의 生活樣式을 크게 3가지 次元 즉 ① 社會的 體系에 관련된 生活樣式 ② 技術的 體系에 관련된 生活樣式 및 ③ 精神的 體系에 관련된 生活樣式으로 나눈후, 이에 따라서 文化도 社會도 文化, 技術的 文化 및 精神的 文化로 그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첫째로 社會的 文化란 주로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 및 인간과 그 소속 集團내지 組織과의 관계에 대한 文化를 말하는데, 예컨대 가족이나 친족집단 등의 제 1차集團이나 직장, 社會, 國家 등 제 2차集團에서의 한 個人의 役割 및 地位,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規範의 내지 制度的 慣習등이 그것이다. 그다음, 둘째로 技術的 文化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각종 道具나 自然을 다스리는 방법등 주로 衣食住와 交通·醫藥·工藝 등에 관련된 文化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흔히들 「文明」이라고 부르면서 文化와 구별하기도 한다. 끝으로 精神的 文化란 權威·財產·宇宙 등에 대한 인간들의 信念體系 및 善과 惡, 美와 醜, 正과 邪등에 관한 價值體系를 말한다.

하지만, 文化的 類型도 그 분류기준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英國의 스노우 鄉(Sir C.P.Snow)은 文化를 크게 文藝文化와 科學文化로 대별하고 있는가 하면, 스펜서와 임켈리스(Metfa Spencer and Alex Inkeles)는

그것을 規範文化, 表現文化, 精神文化로 나누고 있다. 한편 발드리지 ( J. V. Baldrige )라는 학자는 文化를 實證文化·審美文化·規範文化로, 그리고 美國의 女性文化 人類學者인 마가렛 미드 ( Margaret )는 單純模倣型文化·社會模倣型文化 및 未來創造型文化로 분류하고 있는가 하면, 또한 或者는 文化를 傳統文化와 外來文化로, 또는 그 水準에 따라서 上質文化·中質文化·下質文化로, 또는 高級文化·大象文化·民俗文化로 나누고도 있다.

한편 하나의 文化圈에도 여러가지의 그 下部文化 ( subculture )가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地域에 따른 文化 ( 地域文化 ), 社會階層에 따른 文化 ( 靑少年文化·勞動者文化·黑人文化등 ), 등등이 그것들이다.

## II . 文化의 正機能과 逆機能

文化一, 그것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가지 類型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는 주로 社會體制내지 制度와 精神에 관한 文化에만 국한시켜서 그 機能을 간단히 살펴 보겠는데, 인간이 그 삶을 영위해 나가려면 여러가지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衣食住 문제를 떠나서도, 새로운 世代의 教育, 다른 사람들과의 交互作用, 社會의 조직과 그에 대한 統制, 다른 인간들과 超自然理念과의 관계, 人生의 意味와 目的의 발견, 社會環境에 대한 적응 등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諸問題들을 여타히 해결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는 한 社會의 制度的·精神的 및 慣習的 生活樣式이 곧 文化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生活樣式내지 生活方式으로서 文化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機能을 하고 있는가?

## A. 文化의 正機能

모든 社會的 制度가 그렇듯이 文化도 正機能과 逆機能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그 대상에 따라서 個人에 대한 機能과 社會에 대한 機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個人에 대한 文化의 正機能으로서의 統制機能을 들 수 있겠는데, 文化는 개인들로 하여금 그 소속사회 規範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규제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또한 文化는 社會規範의 強化機能도 갖고 있는데, 이러한 機能은 文化가 개인들의 어떤 行動을 社會적으로 용인 또는 不容함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文化는 개인들에게 건전한 삶의 目的이나 그 목적의 달성을 추구토록 動機化시키는 機能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文化는 또한 개인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道德的 基準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한편 文化는 새로운 社會成員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밖에도 文化는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주위환경을 해석하고 그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있다. 또한 超自然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信念을 제공해 주고 또한 超自然的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바로 이러한 통제의 방법으로서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각종의 宗教的 儀式이라고 하겠다.

둘째로 社會에 대한 文化의 正機能으로서의 무엇보다도 社會의 維持機能을 들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文化는 개인들로 하여금 社會로부터 낙오하거나 이탈을 하는 것을 防止해 줄 뿐만 아니라 社會 그 자체를 結束시키고 社會異化를 방지하여 청소년 등 새로운 世代를 社會化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文化는 社會成員들로 하여금 共同規範을 소유하게 하고 일체감을 갖게 만들므로서 社會가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게 하는 機能을 갖고 있다.

끝으로 文化는 또한 社會成員들에게 휴식과 오락을 제공, 긴장감을 해소시키는 유희유로서의 機能도 갖고 있는 동시에 審美感을 제고시키므로서, 인간의 삶을 윤

택하게 만드는 機能도 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機能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文化가 藝術이나 文學인바, 만약 이러한 文化가 없다면 인간의 趣向은 저속화되어 인생 자체가 삭막해 지고 말게 된다. 또한 人間으로서의 긍지도 상실하게 된다.

## B. 文化의 逆機能

하지만 모든 文化가 이상과 같은 正機能만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文化는 언제나 正機能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文化는 逆機能을 야기시키기도 하는데, 例컨대 저급한 大衆文化는 개인들의 趣向을 저속화시키고 被動的 性向을 조장하며 나아가서는 逃避性向까지 유발시키기도 한다. 또한 審美感을 약화시키기도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도 大衆社會化를 촉진시키는가 하면 公衆을 분산시키기도 한다. 그 밖에 大衆文化는 傳統文化와 高級文化를 침식하고 향토문화의 상실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消費文化의 팽배는 경제발전까지도 저해하고 있는 바, 특히 근검과 절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소비와 향락이 마치 人生의 목적가치인양 간주된다면 그 국가 사회는 발전을 더 이상 이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文化가 특정집단의 이익옹호나 政治的 道具로 사용된다면, 그러한 文化도 역시 逆機能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例는 共產主義 國家들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런 곳에서의 文化는 社會의 획일화를 조장하고 대중을 麻醉시키고 국민의 批判的 行動을 약화시키는 機能만을 수행하게 되며, 또한 그러한 目的에서 文化가 道具化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文化는 正機能과 逆機能을 다같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文化나 육성시킬 것이 아니라 正機能만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文化를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인가가 항상 課題가 되고 있다.

### Ⅲ. 韓國의 文化的 現實과 그 問題點

文化一. 그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과 사회에 대하여 여러가지 중요한 機能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결국 한 國家社會의 발전과 낭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文化的 現實은 어떠하며, 거기에는 혹시 문제점이 없지 않은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들인가?

#### A. 역사적 맥박에서 본 우리의 文化現實

모든 분야에서의 우리 歷史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文化的 歷史도 불행한 과거를 가져왔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것의 모두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으나, 우리의 傳統文化는 19세기말부터 물밀듯이 급격히 몰아닥친 外來文化와 그에 따른 피상적 近代化의 美名아래 갑자기 몰락하다시피 하였다. 「開化杖」만 짚으면 開明되었다는 식의 流行風潮와 그에 편승한 급진적 개화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傳統은 하루 아침에 무너지다시피하고 말았다.

거기에다가 韓半島를 強點한 日帝는 우리의 傳統文化를 의도적으로 말살시키고 文化開化政策이라는 美名下에 그들의 文化를 침투시킴으로서 우리의 文化는 빈사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심지어 日帝는 우리의 말과 글까지 말살하고 創氏改名까지 단행함으로써 우리의 文化는 그 뿌리까지 파헤쳐지고 말았다.

1945년 우리 民族은 日帝로부터 다행히 행방이 되어 우리의 文化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美國을 위시한 西洋으로부터의 外來文化가 홍수처럼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文化에 대한 認識과 우리 文化의 再建에 力量이 부족했던 우리 국민들— 그리고 심지어는 知識人들조차도 外國製의 여러 文化만을 맹목적으로 수입·모방하는데 급급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6·25 動亂으로 인하여

더욱 激化되었다. 그리고 戰後에는 「自由夫人」式的 퇴폐적 生活樣式내지 文化마저도 유행·창설하였다.

그후 전쟁의 상처가 점차 아물면서 우리 文化에 대한 認識도 차차 고조되어가기는 했지만, 政局의 불안과 그에 따른 社會的 不安定 그리고 경제적 빈곤은 文化에 대하여 생각할 겨를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였다. 우선 모든 국민들은 먹고살기에 바바빴으며, 그래서 政府에서도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經濟成長 위주의 정책만을 펴 올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경제에 밀려 文化가 침체되는 현상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어제는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먹고 살게 되었고 또한 제 5공화국정부에서는 이제 文化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해서 文化의 육성을 국가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따라서, 비록 그간에 우리의 文化는 여러가지 많은 역경을 겪어 오면서 제대로 발전될수 없었으나, 이제는 국민 모두가 主體的으로 우리의 文化發展問題를 반성하고 검토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단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 B. 우리의 文化的 現實이 안고 있는 諸問題

그러면 우리의 文化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우리의 文化的 現實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5천년의 역사와 文化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있지만, 우리 文化의 현실은 先進外國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으며 또한 특별히 내세워서 자랑할만한 것도 못된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인지 모르겠다.

첫째로 우리의 文化的 現實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文化的 主體性의 빈곤이라고 하겠다. 물론 文化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文化를 적극 受容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外來文化의 受容은 어디까지나 受容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단순한 無批判的 輸入이나 模倣이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外來文化를 무비판적으로 수입하거나 모방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外來文化를 선별해서 받아들인후 좋은 것만을 受容해서 우리 문화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기 보다는 外國文化를 모방하려는 현상이 없지 않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의 文化는 國籍이 없는 文化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 文化가 현재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文化的 規範내지 價値의 혼란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우리의 文化史的 逆境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고는 하겠으나, 어쨌든 오늘날의 우리 文化는 그 傳統的 規範을 상실한 상태에서 또한 새로운 規範도 정립되지 못한 과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文化的 規範내지는 價値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文化를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外來文化는 어떠한 것만을 어떻게 受容해야 될 것인가 하는 등등의 문제에 대한 基準이 서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우리의 文化는 한곳에 뿌리를 박은 상태에서 무성한 가지를 치지 못하고 아직도 표류를 하고 있다고 보겠다.

세째로, 우리의 文化는 多樣性이 부족하며 文化가 中央에만 편재해 있어 地域文化가 발전을 못하고 있다. 물론 한 國家社會의 文化는 전체적으로 共通性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共通性은 劃一性과는 다른 것이다. 文化는 共通성과 함께 多樣性을 지녀야만 하는 바, 그것은 한 國家社會內에서도 文化가 다양해야만 여러 측면의 文化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고 또한 그 社會成員들도 자신에 맞는 文化活動에 참여할 수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文化人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 文化가 多樣性이 부족하고 下部文化가 발전되어 있지 않아서 文化가 소수계층내지 대도시인들만의 專有物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색깔의 文化가 어울려서 찬란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오늘날의 우리 文化가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앞으

로 우리 국가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세대들을 위한 文化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靑少年들에게 전수해 줄 文化가 제대로 定立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전수해 주려는 既成世代들의 노력도 부족하다는 말이다. 文化民族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世代인 靑少年들을 위한 적극적인 文化教育이 필요하며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 줄 文化를 既成世代가 만들어 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른들을 위한 文化는 있을 지 모르나, 靑少年들에게 가르쳐 줄 文化다운 文化가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學校를 제외하고는 文化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사회 현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IV. 文化의 育成을 위한 몇 가지 提言

이제 우리는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소나마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값어치가 있는 삶이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되어야 할 줄 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치있는 삶의 方向을 제공해 주고 또한 우리의 삶을 정신적으로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文化라고 하겠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그간에 우리는 經濟成長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켰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국가적 地位가 크게 상승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되어 세계속의 韓國으로서 다른 나라나 民族으로부터 더욱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 목표 또한 文化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우리나라가 아무리 強國이 되더라도 文化의 발전이 없이는 다른 나라나 民族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개인을 위해서나 또는 국가를 위해서나, 文化에 대한 認識을 보다 새롭게 하고 또한 文化를 적극 육성·발전시켜 우리의 삶을 정신적으로 보다 윤택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의 文化的 現實을 모두가 다같이 검토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줄안다. 그런 의미에서, 외람된 말이지만, 橫城郡民들도 우리 나름대로 해나가야할 몇가지 課題를 제시해 보고 싶다.

물론 그 課題들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첫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개인의 삶을 文化와 연관시켜 그 속에서 삶의 方向을 추구해 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文化人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의 문제를 다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그 다음, 둘째로는, 우리의 郷土文化를 발굴하고 그것을 육성, 발전시키므로써 文化에 대한 郡民들의 意識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나가서는 국가의 文化的 發展에도 이바지 해 보자는 점을 제언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文化活動에 참여해 보는 일일 뿐만 아니라, 대국적으로는 우리의 傳統文化를 계승, 발전시키므로써 外來文化의 침식을 막고 우리 文化의 主體性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언하고 싶은 것은, 靑少年들에게 적극적으로 文化에 대한 敎育을 실시해 보자는 것이다. 비록 우리 既成世代들은 文化的인 환경속에서 살아 오지 못했지만, 새로운 世代들은 기필코 文化人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은 既成世代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外來文化나 大衆文化의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靑소년들을 보호해서, 그들을 건전한 측면으로 만드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橫城人의 積極的이고 進取的인 뿌리 精神

曹 尙 鉉

橫城은 그 옛날 於斯買 또는 花田이라 불리오던 고장으로 高句麗 때에는 橫川縣이라 했었고 新羅時代에는 潢川縣으로써 朔州의 直割縣이었다.

高麗 때에는 다시 橫川이라 해서 처음에는 春州(春川)에 속해 있다가 후에 原州에 속한 때도 있다. 그후 1389年 恭讓王 때에 監務를 두었다가 朝鮮時代에 들어와 1413年 太宗 13年에 縣監으로 바꾸었고 바로 그 다음 해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洪川과 그 이름이 비슷하여 부르기에 混同을 갖어 올 우려가 있다 하며 橫城이라 地名을 고쳤었다. 仁祖 때에 이르러서는 李仁居의 亂이 발생하자 한 동안 原州의 管轄구역으로 格下시켰다가 얼마 안있어 다시 回復, 1895年인 高宗 32年 乙未改編 때에 全國의 道를 없애고 23府로 나눔에 따라 春川觀察府에 속해 있다가 그 이듬해 江原道한 한 郡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橫城地方은 거의 크고 작은 산으로 形成되어 있어서 橫城 앞뜰을 제쳐 놓고는 흰하게 트인 들판을 찾아 보기 힘들다.

江原道郡名賦를 들쳐 보아도

屬峰秀而參天 蒼屏列而橫城

秀麗한 산봉우리는 하늘에 연이어, 푸른 병풍과 같이 즐지어 있는 곳이 橫城이라 했다. 그래서 이 고장을 찾았던 虛白堂, 洪貴達 같은 이는

原濕行春馬首東 催呼田畯勸田功

今年南畝知多稼 昨夜祁雨我公

봄벌 산길에 東쪽으로 말머리를 돌려 農夫를 불러 農事 잘 지으라 했네, 어젯밤 조용히 비 내렸으니 금년은 이곳에 農年이 들걸세.

라고 橫城山河를 배경으로 빌같이 하는 農夫의 모습을 읊었다.

橫城地方의 이름있는 山으로는 太白山脈의 支脈을 따라 그 옛 泰岐王이 城을 쌓았다는 1,261m의 泰岐山이 있고 御踏山 七峰國師降 德高山 등이 감싸고 있다. 그 외에도 山은 많으나 따로 이름이 크게 알려진 것은 없고, 물은 원주지방으로 흘러 내리는 蟾江의 發源地이기 때문에 橫城邑 앞에서 合水되는 두 물 줄기의 上流에는 큰 江은 없고 모두 시냇물 들이다. 그러나 어느 냇물이나 깊은 溪谷을 감돌아 흐르는 물 줄기의 兩岸은 樹木이 울창하고 層岩絶壁으로 연이어 있어 그 景觀은 秀麗하기 이를데 없다.

雲巖亭이 자리잡고 있는 뒷내개울(北川)과 옥같이 맑은 냇물이 奇岩怪石 사이를 돌아 흐르는 고네벼루(고양이 벼루)도 좋거니와 書院面 山峴里에 七降, 晴日面 新垔里 鳳腹寺에 이르는 溪谷의 승경 후한 배어난 경치이다. 그리고 泰岐山 중턱 太白의 神祕가 숨쉬고 있는 落水臺의 경관은 가히 일품이다.

이 외에 가볼만 한 곳은 橫城邑 墨溪里의 출렁다리와 水泳장 太宗臺가 있는 安興面 講林溪谷, 隅川面 現夢藥水 등은 橫城山水 가운데서도 白眉이며 자랑이다.

江原道地方에는 옛 부터 전해 오는 말에 <橫城에 가서 잘난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 지금은 이 얘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이 말은 橫城 사람들이 원래 매우 슬기롭고 事理에 밝아 第二의 開城이라 할 만큼 商魂에 뛰어나, 매우 積極的이고 進取的인 氣像을 갖고 있어서 생긴 말인것 같다.

흔히 商魂에 밝다고 하면 아주 인색하고 돈만 아는 욕심장이 장사군을 연상하기 쉬우나, 여기서 말하는 商魂이란 日帝때 日本사람이나 中國사람들이 마음만 먹었다 하면 어느 곳에서나 商權을 쉽게 잡았는데 開城과 橫城에서 만든 그들이 감히 발을 부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칭했던 말이다. 즉, 이는 당시 日帝의 侵略으로부터 내 鄉土를 지키고 내 고장을 내 스스로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橫城사람들의 투철한 主人精神으로 뭉쳐진 鄉土愛와 祖國愛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런데 他地方 사람들 중에 이와같은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橫城사람들의 지나칠 정도로 빠른 事理判斷과 破格的인 積極性에 壓倒된 나머지 橫城사람들을 가리켜 <橫城 각정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얘기는 매사에 앞서 생각하고 앞서 行動하는 橫城사람들의 進取性을 부러워 하는 못난 者들의 猜忌心에서 생긴 말에 불과한 것이다.

橫城사람들이 商魂에 밝다기에 옛 書冊을 찾아 보았더니, 당시 江原道 각 고을의 特徵을 나타낸 장타령에

春川이라 샘밭(泉田)장 신밭이 젓어 못보고

洪川이라 九萬里장 길이 멀어 못보고

이귀 저귀 楊口장 當歸 많아 못보고

한자 두자 三陟장 값이 비싸 못보고

영 넘어 寧越장 담배 많아 못보고

영성드못 高城장 심심해서 못보고

이천저천 伊川장 개천 많아 못보고

철덕철덕 鐵原장 길이 길어 못보고

감 많은 江陵장 값이 비싸 못보고

어화지화 金化장 놀기 좋아 못보고

회화충충 淮陽장 길이 險해 못보고

이江저江 平康장 江물 없어 못보고

火木많은 華川장 길이 막혀 못보고

양식 팔아라 襄陽장 쌀이 많아 못보고

시방 왔다 麟蹄장 일이 바빠 못보고

울통불통 蔚珍장 울화나서 못보고

인창곰창 平昌장 술국 좋아 못보고

이렇게 늘어 놓던 장타령 끝에 橫城장을 가리켜서

橫說豎說 橫城장 에누리 많아 못보고

라고 한것을 보면 당시 橫城사람들의 商術은 과연 어지간 했었던것 같다.

또 日帝時代 江原道 각 고을의 職業的 特性을 이야기 하는 말에

- 麟蹄 남박(木器)장사
- 洪川 토막장사
- 寧越 담백장사
- 三陟 배 장사
- 鐵原 소장사
- 原州 술장사
- 平康 콩장사
- 春川 月給장이

- 江陵 감 장사
- 襄陽 멸치장사
- 通川 쌀 장사
- 高城 魚夫
- 華川 메군
- 楊口 말군

그리고 橫城 대목에 와서는

- 橫城 장돌뱅이

라고 한것을 보면 역시 장타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橫城사람들은 開化以前 어수룩하기 이룰데 없었던 당시, 商業的인 頭腦가 매우 발달해서 역시 남보다 잘 살아보려는 橫城사람들의 기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여기 소개한 강원도 지방의 장타령이나 직업특성은 옛 얘기로서 타지방 분들의 오해없기 바란다.)

이렇듯 橫城은 經濟的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思想的인 면에서도 뚜렷한 主體性과 獨自性을 지니고 있던 고장이었으니, 지금으로 부터 60年前에 刊行된 開關誌 1923年 12月號를 보면 당시 日帝下에서 各郡에 青年會가 조직 되었을 때, 다른 郡의 青年會는 모두 日本官憲의 지시에 의해 構成되었으나 橫城郡 青年會 만은 순전히 住民들의 自發的인 意思에 따라 青年會를 조직하여 抗日運動을 벌였고 더구나 당시 강원도 내에 鐵原을 제외하고는 그 활동이 전혀 없었던 少年會도 이곳에서는 이 고장 靑少年들이 스스로 일어나 橫城少年會를 조직하여 운영했었다는 기록만 보더라도 이미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망정 내 고장은 우리의 힘으로 굳게 지키겠다는 橫城사람들의 愛鄉心에 바탕을 둔 그 積極的이고 進取的인 鄉土에 대한 뿌리精神을 엿볼 수 있다.

흔히 나약하다는 評을 듣는 江原道 사람들의 성품에 비하여 이 처럼 意體性이 強하고 獨自性이 뚜렷한 橫城사람들의 性格은 그 옛날 橫城을 가리켜 <三橫>이라 지칭해 온 데에서도 그 면모를 찾아 볼 수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橫城地方 山水의 생김새는 南北으로 바르게 놓이지 않고 東西로 가로질러 形成 됐다 해서 그것을 가리켜 「山橫」「水橫」이라 하고 또 橫城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自意識이 지나치게 뚜렷해서 어떻게 보면 엇가는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하여 이를 「人橫」이라 불렀으니 이 세가지를 합해 <三橫>이라 했던 것이다.

이렇게 橫城사람들은 옛 부터 특이한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進取的이었고 사리에 매우 밝았던것 같다.

또 橫城은 江原道 내에 天主教가 처음 전파된 天主教의 震源地이다 당시 天主教의 전파는 新文化의 流入을 뜻한다.

1880年代 封建的이고 閉鎖的이었던 朝鮮王朝 末葉 前近代性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던 당시, 法으로 禁敎되있던 天主教가 처음으로 강원도내에 들어올 무렵, 金시몬 神父가 蔚珍에서 잡혀 原州에서 순교하였고 같은해 崔요한 神父가 春川에서 잡혀 역시 原州에 끌려와 순교하자 한 동안 전혀 강원도 지방에서는 선교활동을 하지 못했다

1888년에 들어와서 서울敎區長에 의하여 書院面 橫城에서 서울로 가는 新作路 길목 도둑고개 바로 밑에 豐水院天主教會가 江原道 내에서는 처음 天主教 本堂으로 정식 승인 되었으니 橫城땅에 맨 먼저 새로운 開化의 물결이 흘러 들어 왔던것이다.

이렇게 橫城은 새로운 宗教를 처음으로 받아 드린 곳으로써 지금까지 이 고장 出身으로 神父가 된 사람만도 20여명에 이른다.

또한 橫城郡民들은 3·1運動이 일어나자 日帝에 抗拒하여 道內 그 어느 고장보다도 流血抗爭이 가장 치열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앞에서 橫城사람들은 事理에 밝을 뿐 아니라 進取的이라고 했듯이 1919年 3月 27日부터 4月 12日까지 사이에 橫城邑과 書院面을 비롯하여 郡內 各面에서는 日帝 官憲에 맞서 만세를 외치다가 그들의 총칼에 순국한 義兵과 抗日鬪士들이 수십명에 이르렀다는 당시 日帝 判訣文을 볼때, 온 郡民들이 일치단결하여 맨주먹으로 侵略者를 기어이 몰아 내겠다고 싸운 橫城郡民들의 時代的 각성은 愛國心의 본보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또 4月 5日字로 당시 橫城郡守와 橫城憲兵分道隊長 連名으로 管内 各 面長과 區長에게 下達된 소위 < 騷擾事件에 關한 件 > 이란 비밀 公文에서

「 邑內에는 警비가 엄하여 運動의 여지가 없겠으나 警비가 비교적 약한 시골에 미칠 경향이 현저하나 선동 또는 협박할 때는 가차 없이 云云」

이라는 매우 질박한 글귀만 보아도 당시 橫城郡民들의 日帝에 대한 抗爭이 얼마나 치열했었는지 알만 하다.

義兵活動과 3·1運動을 통해 잃어버린 나라를 찾겠다고 맨몸으로 싸우다 故鄉땅을 등지고 滿州로 망명한 자, 늙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여 얻어 맞은 엉덩이 살이 썩어 상처속의 구데기를 파내며 卞生을 고생한 사람, 日帝의 총칼앞에 무참하게 쓰러진 우리

祖上들의 수 그 얼마였던가?

이처럼 橫城사람들은 日帝에 抗拒하여 나라를 되찾고자 목숨을 걸고 싸웠다.

3·1運動 당시 橫城郡民들의 萬歲示威가 道內 그 어느 고장 보다 치열했다는 사실은 橫城의 萬歲運動이 급기야는 도내 각 지역에 파급되어 거세게 타오르게 했던것이니,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흔히 볼수 없는 3·1運動 記念碑가 동아일보사에 의해 3·1公園에 建立된것만 보아도 橫城郡民들의 流血抗爭이 어느 程度였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 뿐이라 6·25戰亂때, 내 고장은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나선 이 고장 靑年들은 곳곳에서 自治隊를 조직하여 北傀軍의 聯隊兵力이 넘는 敗殘兵을 격퇴하다가 甲川面 荃村三巨里 戰鬪에서 8名의 隊員中 7名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장렬하게 전사했다. 지금 이 때에 戰死한 이들 7勇士의 넋을 기리기 위해 甲川面 梅日里 앞산에 세운 七層塔이 護國의 遺蹟으로 남아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흔히 江原道 사람들을 가리켜 성품이 나약하다고들 하지만 따지고 볼때 이와 같은 얘기가 橫城사람들에게 만든 해당되지 않는다.

橫城사람들의 性格은 自古로 내 고장을 위하고 내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서슴치 않고 버렸던 강인하고 진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에, 또한 옛 것을 오늘에 되살려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보려는 끈질긴 創意性도 가지고 있으니 1984年度 全國民俗競演大會에서 영예의 大統領賞을 차지한 隅川面 鼎金里의 <회다지 소리>가 그것이다.

어느 고장치고 그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歲時風俗이나 生活民俗을 갖고 있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러나 西歐의 文物이 洪水 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수백년전 부터 사람이 죽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葬禮를 지내주던 이 고장 相扶相助의 美德이요 部落의 和合團結을 상징하던 <회다지 소리>를 再現하려는 住民들의 發想이 얼마나 값있는 일이며 또 살아져 가는 傳統民俗을 다듬고 보존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인가?

우리 道內에 文化遺產이 많이 傳授되어 있기로는 嶺東地方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橫城사람들은 祖上으로 물려받은 文化遺產을 별로 갖고 있지는 못하면서도 다른 고장을 다 물리치고 固有한 文化傳統을 發掘再現하는데 힘써 오고 있으니 이제 橫城은 嶺

西地方의 유일한 文郷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

이렇듯 橫城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매사에 積極的이고 進取的일 뿐 아니라 뭔가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創意性을 지니고 살아왔다. 그래서 지난날 橫城사람들은 그 어느고 장보다도 새로운 文化를 받아 들이기 위해 앞장 서 왔고 國難을 당했을 때에는 그 때마다 온 郡民이 홀연히 일어나 내 鄉土 내 나라를 몸소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웠으며 固有한 文化를 后孫에게 保存시키려 애쓰는 뿌리깊은 傳統을 지니고 살아온 郡民이다.

그뿐 아니라 또한 橫城은 지난날 수 많은 人物도 輩出し켰다.

高宗 때에 3대가 元帥를 지내 소위 三元帥집안이라 존경을 받아온 집안이 있으니 高麗 仁宗 때 外交官으로 金나라에 다녀와 神宗 4년에는 벼슬이 극에 달하여 門下持中을 지낸 趙永仁을 필두로 高麗 全 歷史를 통하여 文官으로 上將年을 겸직하고 契丹 遺族을 막아 낸 門下侍郎平章事 趙冲은 그의 아들이고 이어서 또 門下侍郎平章事를 지낸 趙秀珣은 趙冲의 아들이니 <橫城가서 잘난 체 하지 말라> 는 옛말도 생길만한 이야기이다.

이외에도 橫城에는 朝鮮王朝때에 玉堂承旨를 거쳐 都承旨는 물론 江原 平安 慶尙 全羅 道の 勸察使를 역임했고 六조판서를 두루 지낸 恒齊 鄭宗榮의 墓所가 公根面에 있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다. 나무가 크면 뿌리 또한 크다.

이처럼 나무에 뿌리가 있드시 民族에도 뿌리가 있다. 나무의 뿌리가 깊고 넓게 내려야 줄기가 무성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많이 달리는것 처럼, 民族의 뿌리도 健全하고 튼튼할 때 그 民族 그 國家에는 前進과 繁榮이 約束된다. 그것은 過去 없는 現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어느 고장이고 간에 그 곳에는 장구한 歲月 祖上들이 代를 이어 살아오는 동안 이끼끼고 양금진 鄉土의 뿌리가 있다. 그 傳統의 뿌리가 얼마만큼 싹하고 튼튼하느냐에 따라 그 고장의 發展을 정비해한다.

그렇다.

위에서 보았듯이 淸淨한 山水 속에서 삶을 이어 온 橫城사람들은 옛 부터 뭔가 남보다 앞서 가려는 破格的인 積極性과, 進取的이고 強韌한 傳統의 뿌리를 가꾸어 오늘에

이어 온 자랑스러운 郡民이다.

橫城사람들은 세상을 살아 가는데 있어 끈질기고 줄기찬 性品을 가진 底力의 郡民이다.

세찬 바람을 타고 무서운 山불이 나무줄기를 다 태워 버려도 땅 속의 뿌리는 못 태운다. 그래서 새봄이 되면 그 모두 타버린 그루터기 속에서 새움이 솟아 나듯이 이제 우리 橫城郡民들은 지난날 우리의 祖上들이 남긴 그 강인하고 積極的이고 進取的인 傳統의 뿌리를 오늘에 되살려 보다 잘사는 내 고향 앞서가는 榮譽로운 橫城을 建設하는데 모두 앞장서 나가자.

# 횡성의 재발견

橫城郡廳 文化公報室 金 承 基

## 말 머 리 에

우리는 우리고장 횡성의 3·1 운동에 관하여 부한한 공지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

그러기에 횡성읍의 3·1 공원에는 「3·1 운동 기념비」와 「횡성 군민만세운동 기념비」가 나란히 우뚝서서 빛나는 우리 고을의 역사를 후세에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자랑스러웠던 횡성의 31운동의 근원이 되었던 우리고장의 뜨거웠던 항일항쟁사에 대하여는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또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모르고 지나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에 비록 부족한 지식이나마 나름대로 결코 우리나라 항일 의병사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성지였음을 자부하면서 이 글을 기고한다.

흔히 우리 횡성을 일제 피압박의 36년간을 통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인들이 상권을 장악하지 못했던 곳이라고 할만치 애국 애족정신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도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게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고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할 수 있었던 것도 어찌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고려의 契舟遺族의 침입이나 몽고 舍舟賊의 침입은 물론 조선조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침략자의 말발굽으로부터 이땅을 지켰던 선열들의 얼과 혼을 이어받은 결과가 아니었는가 생각되어 진다.

이 소고에는 우리고장의 장렬하고 위대하였던 외침에 대한 항쟁사 중에서 민족사에 가장 큰 오욕을 남긴 일제의 침략과 항쟁에 초점을 두어 전개하였으며 내용전개상 부득이 횡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인근지역의 의병활동사까지를 밝히고 더우기 제한된 시간과 부족한 자료에 연하다보니 여러가지 모호하고 미흡한 점이 많고 또한 현지답사나 연고자 등과의 면담을 갖지 못한 관계로 여러가지 만족치 못한 점이 많

으나 부족한 대로 우리의 뿌리를 찾고자하는 의미에서 기고하였음을 이해  
바라며 임진왜란사는 야사를 중심으로 일제침략시 의병활동은 항쟁  
인물을 중심으로 다루었음을 첨언한다.

머지않아 발간 될 황성군지에서는 더 완벽한 자료를 신고자 노력할  
것을 밝혀 둔다.

## 1. 임진왜란과 횡성

횡성의 항일의병활동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그 하나는 임진왜란때이며 또 하나는 치욕의 한일합방을 전후한 일제 침략기이다.

물론 이전에 이미 고려시대에도 倭賊의 침입이 있었다. 倭賊이라 함은 일본의 해적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수시로 자기네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의 邊方을 수시로 침입, 노략질과 약탈을 일삼아오니 횡성은 물론 강원도 지방도 큰 피해를 입었고 또 이들을 여러차례 무찔렀던 적이 있었음을 부언해 둔다.

조선시대의 진란사는 크게 임진왜란(1592 - 1598)과 丙子胡亂(1630 ~ 1637)을 들 수 있으나 병자호란은 비록 임금(仁祖)이 항복하는 수모와 치욕은 당했다라도 임진왜란에 비해 큰 싸움도 큰 피해도 없었다. 반면 임진왜란의 경우 한반도 전체가 전란을 당하여 모든 백성이 고초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민족의 대 수난이었다.

강원도 지방에서도 싸움이 여러곳에서 벌어졌다. 원래 日本軍의 주력인 小西行長의 부대는 서울로 진격할 때 忠州에서 우리의 신립장군의 부대는 麗州를 지나 原州방면으로 진격하려 했으나 元豪가 거느린 원주의 군대에 의하여 격퇴되었다.

그후 일본군의 지금의 原城郡 地正面「귀미나루」까지 쳐들어 왔으나 역시 격퇴 되었다. 뒤이어 강원도를 다시 침공한 일본군은 毛利吉成이 이끄는 부대였는데 이 부대는 서울에서 철원, 김화, 회양을 짓밟고 철령을 넘어 함경도에서 馬息嶺을 넘어온 加藤清正의 부대와 합류하였다가 가등의 부대는 함경북도 방면으로 진격하고 모리의 부대는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강원도를 침략하였던 것이다.

毛利의 주력부대는 동해안으로 내려가 삼척, 정선, 영월, 평창을 거쳐 다시 영월 泗川을 침략한후 원주로 침략하였으며 또한 부대는 양양에서 인제를 넘어와 양구, 춘천, 홍천을 침략한 후 횡성을 유린하고 원

주를 침략한다. 이때에 바로 임진왜란사에 유명한 항쟁기를 남긴 원주 枚使 김제갑의 영원산성의 장렬한 전사가 기록된다.

이렇듯 전국이 싸움터로 화한 임진왜란이고 보니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당시 유일의 육로교통의 요충지인 횡성의 전황 또한 편할리가 없었다.

횡성에서 왜병이 쳐들어와 살인방화의 약탈을 진행하기 시작한 때는 임진년(1592년) 8월 29일께였다.

추석이 막지나고 이제 추수가 한창이어서 농부들의 풍년가가 울려 퍼질 무렵이다.

李舜臣의 수군이 남해로 들어오는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호남지방의 곡창을 손에 넣지 못한 왜군은 극도로 군량이 부족했다.

함경도를 석권하고 평양남쪽에서 전선을 폈던 왜군은 군량을 조달하기 위해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았고 원주지방을 점령한 왜군의 약탈도 심했다.

임진년 8월 23일 원주를 점령하고 25일 영원산성을 함락하고 이때부터 1593년 5월초까지 약 8개월간 약탈이 자행된다.

왜군은 곡창지대인 횡성으로 진출하고 원주 호저일대와 횡성군 서원면 일대에서 출몰한다. 또한 호저면 지찬리와 평촌동에서 학살극도 자행한다.

왜병은 섬강상류의 무장리와 월송리 강건너 산현 매호리로 투입된다. 임진란초기에 조방장 원호가 진을 쳤던 곳으로 원호거리로 불릴만큼 주민들 사이에 의병활동이 왕성하게 벌어졌고 산속에 숨은 피난민들도 의병들을 저지하려는데 뜻을 모아 매호리 베톨바위굴에 숨어 배를 짜오면서 적을 감시하고 공격했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기도 하다.<sup>2)</sup>(현재 원성군내)

이때는 추석을 넘겨 한창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였으므로 전투를 계속하며 피난하던 피난민들과 의병은 식량이 달렸다. 왜군 또한 식량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였으므로 생사를 건 식량쟁탈전이 벌어졌을 것은 어렵지 않다.

임진년 4월 왜병 20만명이 부산포로 쳐들어 왔을 때의 전략은 일본사신 일행이 왕래하던 길을 따라 조선전국을 점령하고 수군을 호남지방에 상륙시

켜 호남 곡창에서 군량미를 조달한다는 것이었다. 또 왜군은 수병을 서해안으로 상륙시켜 한양과 평안도지방의 지방에 租稅米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 조선을 그야말로 아사시킨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전략은 처음부터 실패했다. 남해로 쳐들어 오던 일본의 수군은 해안에 접근해오는 쪽쪽 모두 수장되었다.

임진년 4월에 왜병이 쳐들어온 후 5월에 서울이 함락되고 6월에 평양이 함락된것은 사실이지만 그이상의 진격은 하지 못하고 우리군사의 저지로 전선이 교착되었다가 다음해 1월에 평양이 그리고 4월하순에 수도를 완전히 수복했다.

이기간 동안 왜군은 군량이 보급에 급급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매우 추운 날씨에 이래저래 시달리게 되고, 황성지방에서의 방화, 살인, 약탈은 이때 초조해진 왜병이 그 잔인성을 나타낸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이무렵 황성군 甲川面 浦洞里에 鄭氏부부가 살았고 임진년 8월 황성지방에 왜군이 주둔하고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아 그피해가 심해지자 주민들은 산속으로 숨거나 피난을 하고 정씨부인도 피난 대열에 끼이고 鄭俊齊는 전라도로 의병이 되어 떠난다. 전선에서 피고지는 이들 부부의 순애보는 눈물겹기도 하다.

또한 왜병은 군내 公根面 三軍里(현 三培里)에도 쳐들어 왔다. 橫城邑에서 섬강을 건너 春川으로 북상하는 春原路를 따라 鷄谷里와 新村里로 빠져나오면서 公根面소재지가 東西로 훤히 자리잡고 섬강이 북쪽으로 가로질러 동쪽 구비로 돌아서 흘러 내린다.

시야에 들어오는 東北편에 마치 공룡의 머리처럼 생긴 산봉우리가 있는데 마을사람들은 이를 독재봉이라 부른다.

매곡리와 청곡리 경계에 이 독재봉(德載峰 : 독봉이라고도 함)은 높이 343m로 임진란때 이산의 덕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글안쪽의 침입, 몽고족의 침입이 있을 때도 매곡, 청곡 마을사람들은 물론 공근리 안쪽과 학담, 도곡, 창봉, 부창, 삼배, 어둔, 상동, 가곡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다.

아무튼 횡성지방을 점령한 왜병은 독재봉 맞은편이 말구리재를 찾아넘는다. 왜병이 학담리에서 이 말구리재를 넘을 때는 관군과 의병이 산위에서 돌을 굴러 왜병과 말을 구비소에 넘어 뜨려 말구리재에서 한차례 피해를 준다.

관군과 의병은 다시 동면 삼배리로 숨는다. 이고장은 화주봉, 야곡봉, 만약봉의 세봉우리가 솟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으로 558m의 관심산 계곡앞에 진을 친다.

이때 왜병은 삼배리 협곡에 관군과 의병이 숨어 있을 것으로 판단 좀처럼 쳐들어 오지 못한다. 그틈에 관군과 의병이 야밤에 적진을 기습 적에게 큰 피해를 준다.

왜병이 횡성지방에서 큰 피해를 보게되자 삼군리 골짜기까지 조총부대를 앞세우고 맹공을 가해온다. 관군과 의병은 관심산 밖 종달바위에다 날센 파수병을 두고 왜병이 쳐들어오면 이 종달바위에서 날짐승의 소리를 내게하여 삼군리 계곡으로 유인하여 관군과 의병이 종달바위와 서쪽으로 이어져 가파른 산등성이를 이루는 궁터(弓臺)의 요세에서 부터 왜병의 후방을 차단하고 활을 쏘아 공격했으므로 왜병은 마침내 참패하고 후회를 하게된다.

수년전 이곳 터에서 임진왜란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화살촉을 발견했다고 전해져 위의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공근면 덕촌리에는 「왜둔지」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도 왜군이 이곳에 진을 치자. 의병들이 야간을 통해 선재공격을 가하므로써 왜군은 피해를 입고 패하였고 아군공세에 밀려 패주하는 일본군이 피를 흘리며 고개를 넘고 다음고개에서는 의병의 철저한 공격에 막혀 다시 후퇴하게 되지만 때마침 우기라 장마로 물이 불어나 진퇴양난에 빠진 왜군은 지리멸렬하여 마침내 전멸하게 된다.

이같은 일이 있는 뒤 왜군이 진을 쳤던 곳을 「왜둔지」 그리고 의병에게 참패하여 왜군의 피로 물들었다고 하여 「붉은 고개」 그리고 그다음으

로 아군에 의하여 왜군의 길이 완전히 막혔던 고개를 「막은 고개」라 하여 오늘날 까지 전해진다.

이처럼 의병의 활동은 눈이 부셨으나 불행하게도 훗날 치욕의 한일합방이 있은 후, 일제는 이나라를 강점하면서 지난날 패전의 쓰라린 상처가 있는 이곳 「왜둔지」가 恨을 남긴 有恨地라하여 公根面의 神士를 이곳에 짓고 면민들에게 고개숙여 참배하도록 강요하였다고 하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로서 비록 日本人들은 지난날의 한을 풀었는지 모르지만 이고을 백성들은 그 옛날 의병과 함께 나라를 지키려 피흘려 싸웠고 또 눈부신 승전을 거두었던 선열들의 신화를 되뇌이며 식민지민족의 설움과 한을 또 다시 빠속 깊이 심어야 했었을 것이다. 그한은 또 누가 풀어야 하는가.

이렇듯 7년전쟁 임진왜란은 유비무환의 교훈과 많은 상처 그리고 한을 남긴채 선조 31년 ( 1598년 ) 막을 내린다.

## 2. 의병과 횡성

임진란이 실패로 끝난지 30여년 일본은 다시 대륙정벌의 야심을 품고 한반도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게 되는 것이 對日修好條約 1876년으로 여기서는 이 조약 이후 경술국치 (庚戌國恥: 1910년) 전후까지의 의병활동중에서 본군 출신의 의병장의 활동과 본군을 중심으로 한 의병의 활동상황을 活動期別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 가. 東學 과 抗日戰

1894년 9월부터 시작된 東學軍의 항일전은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호남의 南接軍과 忠淸 지방의 北接軍으로 나뉘며 남접군은 전봉준이, 북접군은 최시형이 주도하며 남접군이 약 20만명의 대군으로 편성되었다.

이 때에 북접군에서는 강원이북지방에는 橫城에서는 尹冕鎬가 주도하고 원주에서는 李和卿 林淳化가 洪川은 沈相賢 車基錫등이 의병활동의 선봉에서 크게 활약한 바 있다.

### 나. 明成皇后 시해전후의 의병활동

일본의 간악한 계책에 의하여 1895년 國母인 명성황후 閔妃가 시해되자 이에 분노한 조선민중은 본격적인 의병활동을 전개하게 되는 데 이때에 횡성에서는 權大亨, 朴性默, 洪在龜등의 의병장이 되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강릉에서 활동하던 관동창의사 민용호의 전투에 횡성지방의 수많은 의병이 자진 출병하여 큰 전공을 세웠으며 의병장 홍재귀는 강원, 충청도에서 크게 활약하던 의암 유인석과 교류하면서 양도의 의병을 이끌었고 민용호는 강릉을 거점으로 횡성지방과 삼척지

방에 의병과 연합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재기한다.

#### 다. 乙巳條約과 후기의병

명성황후 시해 이후에서 을사조약 이전의 의병활동을 전기의병이라고 하는데 이때에서 의병활동은 활발하였으나 소규모로 산발적이며 조직적이 못되어 구체적인 활동이 전개되지 않아 이지방의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아무튼 전기의 의병활동은 친일정권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해산되고 만다. 그러나 뒤이어 1905년(광무 5년)에 강제로 체결된 乙巳條約으로 인하여 주춤했던 의병활동이 더욱 거세고 조직적으로 전개하게 되니 이것이 이른바 후기의병으로 우리고장에서 그 어느 것보다 거센 활동이 전개되는 성지가 된다.

을사조약이 있기전부터 거사를 준비해온 元容八(元容錫)은 1905년 전국에서 후기의병으로 가장 먼저 봉기한다. 그는 橫城과 原州를 중심으로 堤川, 淸風과 洪川일대 그리고 忠淸道地方에 격문을 보내어 젊은 이들의 호응을 얻어 橫城(原州) 동쪽의 泗川에 1천여명의 의병을 모아 훈련을 하여 대회전의 호기를 노린다. 이때에 이 사실이 원주 진위대에 곧 발각되었으나 진위대장 김귀현이 이의 제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親日團體인 一進會員들을 통해 집요한 와해공작을 벌여 일부의병은 거사도 하기전에 흩어지고 日本軍은 이틈을 타 추적을 하게 되니 橫城地方에서 활약하던 원용팔은 끝까지 항쟁하다가 1905년10월 횡성에서 피포되었고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루다가 이듬해 3월 서울에서 옥사하였으나 그의 초개같은 절개와 애국충절은 지금까지 전하여지고 있다.

元容八을 심문하던 일본장교나 관헌은 회유도 하고 협박도 했으나 굴하지 않고 日本軍이 주는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 서울에서의 元容八과 일본군 사령관 長谷川간의 심문내용중 長谷川이 「다시는 군사

를 일으키지 않겠다고만 하면 이 자리에 놓아 주겠다」고 하니 그는 태연자약하게 「東大門밖에만 나가면 다시 군사를 일으키겠다」고 대답하였으며, 또

「누구와 함께 군사를 일으키겠는가?」하고 물으니

「호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집안사람들과 같이 하고, 집안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나 혼자서 하겠다」고 대답하여 大韓男兒의 기개를 보여 주었다.

원용팔의 피포로 대장을 잃은 의병은 일부 흩어지지도 했지만 많은 인원이 적게는 40~50명, 많게는 300~400명씩 대열을 재편성하여 우체소를 습격하고 전선을 끊어 버리는등 日帝의 침략행위를 방해하는 등 끈질긴 항쟁으로 의병으로서 맥을 이어 나간다.

#### 라. 군대강제해산과 의병항쟁

주춤했던 의병항쟁은 1907년의 朝鮮軍 강제해산과 이해 6월의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高宗이 폐위를 당하는 비극으로 인하여 불붙는 의병활동은 극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강제해산으로 인하여 직위를 박탈당할 조선군인들은 의병으로 변신하고 고종황제의 폐위 반대운동은 곧바로 의병운동으로 연결되었고 이시기의 橫城의 의병활동은 어느지역보다 활발하다.

군대해산에 반대한 봉기는 原州鎭衛隊의 항전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다. 8월 1일 일본군과 정면대결한 서울시위대의 항전소식을 전해들은 原州鎭衛隊의 병사들은 동요하고 애국의 피가 끓는 병사들은 대대장인 참령 洪裕馨은 이들을 자진 해산시키려 노력하지만 도리어 반항심만을 북돋아 대대장 홍유형이 상경한 틈을 이용하여 대대장대리(정위) 金惠濟와 特務正校(오늘날 준위) 閔肯鎬는 병사들과 더불어 비밀리 봉기 계획을 세우고 8월 5일 병사 250명과 봉기하여 무기고를 열고 소총

1,600 여정과 탄환 4 만여발을 일반시민에게 나누어 준 후 원주우편취급소, 郡衛 경찰분서를 비롯해 日本人과 그들 집을 급습하여 원주를 완전히 장악하고 8월 6일 여주진위대와 합류하여 서울로 진격할 진격 결의를 한다.

이들은 忠州警察顧問支隊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뒤 8월 8일 원주에서 병기를 거두어 철수, 김덕제는 평창, 강릉, 양양, 간성, 통천지방에서 그리고 민금호는 제천, 충주, 죽산, 장호원, 여주, 흥천, 횡성에서 크게 활약한다. 특히 횡성에서의 항쟁은 횡성의병활동에 큰 영향을 주어 韓基錫, 韓甲復이 이에 크게 용기를 얻어 의병장으로서 활동하게 한다. 이어서 음력으로 7월 26일 원주진위대 봉기병과 서울 해산병 300명이 횡성, 원주, 인제등지에서 모여든 지방의병 5~600명과 함께 흥천 남쪽 10리(城前)에 모여 흥천주둔 일군 20명과 싸워 모두 격퇴시키는 등 활약하니 이때 관동일대의 의병부대의 핵심으로 그세력은 무려 4~5천에 이르렀다. 같은해 10월 31일 부터는 한갑복, 韓相烈, 민금호, 이인영, 여용서, 심상희, 張某 등의 의병장이 거느린 해산군과 지방의병들로 구성된 의병 8천여명이 연합부대를 편성하여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인 횡성군 古毛谷面(지금의 서원면)에 모여 시작하여 이곳에 대부대를 이루어 보초를 배치하고 고지에 방어공사를 시작하는 한편 각지에 격문을 돌려 의병을 모집하여 더 증원하면서 忠州, 原州를 탈환하고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 도모하는 중부지방 의병활동의 거점이 된다.

1907년 10월에는 沈相熙의 의병부대가 韓百源, 任戌集 부대와 함께 전대원의 반을 양총(1929~30년식의 일본총)으로 무장하고 횡성은 물론 강원도와 경상, 경기도 등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으로 日本軍에게 막대한 타격을 준다.

한편 이즈음 사냥을 업으로 삼고 살아오던 산포수(山砲手)들이 의

병으로 변신하여 합류하게 되는데 특히 橫城郡에서 書記로 있던 吳正默이 많은 산포수들을 모으고 관서의 使喚과 노동자들의 소의계층을 모아 의병부대를 만들어 크게 활약하니 이에 힘입어 지평(양평), 원주, 홍천, 인제에서도 산포수들이 의병으로 활약하도록 한 공로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강원도의 의병은 거의 군대 해산병정들로서 양총으로 무장하고 일찌기 조련을 거친바 있으며 규율이 엄하며 日兵과 싸우면 살상이 심히 많았고 용맹스러우며 세력이 방대하여 4~5천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라 그때 東峽(강원도)에는 의병이 무서워 관원들이 다 달아나 관을 비운곳이 무려 19個郡이나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1907년 11월~12월 사이에 강원도내의 의병과 日軍의 대치 상황을 소위 그들의 「조선북도도별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있다.

月別 : 1907년 11월~12월

地 域 : 橫城 고모곡부근

주요의병장 : 이인영, 방관일, 정대일

세력 : 700명

日軍의 배치상황 : 보병 제 51년대의 보병 1중대 기병, 산포병, 공병 각 1개소대.

또한 8도창의대장 이인영은 원주의병장 李殷贊, 李大載등과 합세하여 횡성, 지평, 춘천등지를 종횡무진하며 8도의 의병을 모아서 11월에 모든 인원을 楊州에 모이게 하니 이에 따라 횡성의병의일부가 경기도로 기병하게 되고 이들은 이인영, 민금호등을 중심으로 대열을 정비하고 서울로 마침내 진격하게 된다 東大門 밖 30리까지 직격한 이들 의병은 日兵의 기습을 받고 분전하나 워낙 많은 日兵의 수효에 퇴각하고 만다.

비록 서울 공략에 실패하나 의병활동의 열기는 더욱 거세어지고 조선민중은 이에 동조하여 의병활동을 도와주므로 토벌이 어려워지자 일제는 잔악하게도 의병활동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민가를 불사르는 등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같은 만행을 일본인들조차 그들의 간행물에서 「폭도에게 동정하고 이들을 비호하는 경향이 있음으로 토벌대는.....책임을 現犯의 村邑에 돌려 주살을 가하고, 또는 전촌을 소이하는등 처지를 실행하여, 초토화했다.」고 적고 있는데 그들의 비인도적인 가혹행위의 예를 들자면 횡성인근에서만도 洪川邑에서 300호(1907년 8월 2일) 楊根에서 300호(동년 8월 7일) 安峽郡에서 60호(동년 10월 9일) 洪川에서 118호(동년 10월 23일) 이밖에 전국적으로 1907년부터 1908년까지 일제가 집계한 숫자만으로도 6681호가 소실되었으며 이로서도 의병을 토벌 할 수가 없자 횡성을 중심으로한 경기, 강원, 충청 그리고 경북에서의 그야말로 야수적인 살인극을 연출한다.

그들은 의병용의자 수명을 나무에 묶어놓고 자백을 강요하며 꺾질을 벗겨 죽이는 등 금수만도 못한 살인극을 벌이는데 그예로 「사람을 수백명씩 반신을 땅에 묻어 놓고 풀베듯 목을 잘랐다,」

「촌민 7명을 학살 市街에 효수하고 다른곳에서는 촌민 2명을 총살 슬에 넣어 끓인 후 많은 사람들에게 骨肉을 보라고 강요했다.」

「남녀 수백명을 옷을 발가 벗겨 중일 병판위에 세워 동사케 했다.」

「양민을 잡아 땅에 높히고 입에 강제로 물을 부어 놓고 배위에 널판을 깔고 올라 타 물이 입으로 나오게 했다.」

물론 이런 만행에 희생된 대부분이 선량한 양민이었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이같은 그들의 만행에 대하여 공포에 떨기보다는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즉, 그들(日本人)이 자기

생활의 파괴자이며 침략자라는 판단을 村民들에게 파급시키고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고조시키므로써 저항운동에 어린이는 물론 친일정부에 협력하던 面長, 邑長까지도 참가하는 폭넓은 민중저항운동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여기에서 1907년부터 1909년까지 군내에서 활약한 의병장을 <폭도 토벌지> <기려수필> <한국독립운동사> <황성신문>을 근거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閔肯鎬: 원주, 횡성, 재천, 홍천
- 韓相烈: 횡성, 지평
- 韓基錫: 횡성
- 沈相熙: 횡성, 춘천
- 李麟榮: 횡성, 홍천, 양주, 인제
- 沈相喜: 횡성, 홍천, 원주
- 韓甲復: 횡성, 지평
- 余龍瑞: 횡성, 지평
- 金相台: 횡성, 홍천, 영월, 원주
- 趙炳仁: 횡성, 영월
- 韓鳳洙: 횡성, 충청도

이들의 활약상을 보면 횡성출신의 한기석, 한갑복 의병부대는 민공호의 병부대와 연락하며 크게 활약한다.

1907년 9월 청일면 신대리 鳳腹寺에서 550명의 의병이 일군과 격전 끝에 큰타격을 주었고 이어 10월 26일 군내屯村(둔내의 지칭인듯)에서 의병 약 300명이 격전을 벌여 대승을 거둔다. 그러나 1908년 2월 29일 우리나라 의병사에 큰 기록을 남긴 민공호는 치악산북편인 안흥면 講林里에서 동북방 10리나 되는 산간의 속칭 등자치에서 불행하게도 일경에 피포되었고 그날밤 민공호를 탈환하려는 60여명의 의병이

집요하게 항전하자 끝내 그들은 민공호를 사살하였고 강령, 월현 곳곳에 이롭없는 의병의 죽음이 주민들에 의해 몰래 장례를 지내게 된다. 한편 한봉수의병장은 횡성, 원주, 제천, 강릉의병활동에 자극을 받아 淸州에서 起兵하여 청주에서 북방으로 未院, 진천, 槐山, 장호원 그리고 횡성에 이르기 까지 크게 활약하는데 4년동안 33승1패란 화려한 전과를 올렸다.

#### 마. 국치전후의 활동

진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부르짖으며 항쟁했던 눈부신 의병활동은 庚戌 國恥 降熙 4년(純宗: 1910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韓日合邦의 치욕은 민중의 분노를 들끓게 하지만 이와함께 강화되는 일본의 무자비한 폭력통치는 국내의병활동의 기반을 축소시켜 그무대를 만주를 비롯한 한만국경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가장 치열한 의병활동이 전개되었던 횡성,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의병활동의거점이었던 이곳은 가장 일본군, 경에게 지목을 받게되어 제한이 많아 지자 활동무대를 北上하게 된다.

국치전까지만 해도 왕성했던 의병항쟁의 성지였던 횡성은 매일정신을 가슴에안은채 1919년의 기미 3, 1만세 운동까지 침묵의 시위로서 길고 긴 절곡의 암흑기를 맞게 된다.

이것은 곳 그 어느곳 보다도 거센 이지방의 항일항쟁이 무력으로 맞섰던 의병항쟁에서 일본인에 대한 비협조와 일본상품의 불매등 비폭력의 정신적 저항으로 승화되는 전환점이 된다. 이로서 「횡성=항일」의 등식이 성립되고 횡성은 일본인이 관현을 제외하고는 발을붙이지 못하는 거룩한 땅, 애국의 고장으로서 금지를 가지고 피지배 민족의 쓰라림과 분노를 삭히며 광복의 그날을 기다리다 마침내 횡성의 3, 1운동이란 활화산이

되어 타고른다.

이시기의 횡성출신 의병장으로는 朴長浩를 손꼽을수 있는데 그의 의병 활동도 훌륭했지만, 그는 가족으로 인한 후한이 의병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고, 또 부담 없이하고자 전 가족을 산속의 화전민으로 만드는 처절한 아픔을 스스로 택하여 겪는다.

또한 崔仁舜도 의병장으로 크게 활약하다가 강릉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으며, 횡성천도교 두령이었던 姜道永은 청일면 춘당리 「春堂고개」에서 일본헌병을 때려 누이고 침략자와 싸우다 전사하였으며 이어서 훗날 횡성의 3, 1운동에서 그의 막내 삼촌인 姜達會(士文)이 4월 1일 만세운동에선선봉에 섰다가 일본군의 총에 맞아 순국하고 그의 아들인 姜萬馨(春學)은 이 운동에서 사로잡혀 왜놈의 감옥에서 옥고를 치루며 투쟁하다가 끝내 옥사하므로서 한집안이 독립운동으로 희생하는 위대함을 보인다.

이밖에도 청일면 신대리에서 태어난 鄭文在는 동학란때에 17세의 나이로 출가하여 이내 의병에 가담하여 화포의 명사수로서 활약하고 후에 선봉장이 되어 횡성, 홍천, 원주등지의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다가 하북부에 관통상을 입고 낙향하여 사냥으로 소일하다가 광복의 날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청일면 고시리에 살던 朴정수도 동학군으로 의거 출병하여 용맹을 떨치다가 중과부적으로 일본군에 피포되지만 모진 고문에도 끝내 의병의 기밀을 입을 열지않았고 고문으로 불구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 온다.

횡성이 낳은 가장 훌륭한 의병장인 한상열은 일군의 가족에 대한 온갖 학대와 고문 방화 그리고 가산의 몰수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회유 협박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심을 버린채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후기 독립운동의 거점인 만주로 떠난다. 이러한 의병활동의 자취는 지금도 안흥면 강림, 월현리와 서원면 금대리에 이름없는 무연고 분묘로

산과 들에 잡초에 문헌채 현신하게 남아 자신의 안일을 돌보지 않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현실했던 분들의 숭고했던 독립정신을 대변해주고 있다.

황성군은 이 쾌허와 같은 무연고 의병묘역을정화 성역화하기 위하여 이 중에서 안흥면 강림, 월현리 일대의 묘역을 1984년 월 이곳 주민들의 도움과 군비 170만원 들여 수습하여 안흥면 강림리 강림중학교 부지내의 양지바른 야산에 모아 합장하고 기념비를 세워 성역화 하였으며 서원면 금대리 일대의 의병묘역도 발굴조사와 수습하여 양지바른 곳에 성역화하므로써 고인들의 유덕을 기리고명복을 빌 계획이다. 강림리 의병총 정화비(묘비)에 비문은 본인이 썼는바 다음과 같이 적어 그 뜻을 기리 새기고 전하고자 한다.

<비문>

### 강림리 의병총

강림리 의병총은 일본이 이땅을 강점하면서 1907년 구한국군대를 강제해산하자 이에 격분한 병사들과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일어난 백성들이 의병장 민궁호 휘하에 모여 봉기하였다.

이들 의병은 치악산을 중심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눈부시게 활동하며 조국의 수호신으로 자신들을 불살랐다.

1908년 2월 29일 전후하여 의병들은 이곳 안흥면 강림, 월현에서 일제와 큰 싸움을 벌였다.

의병총은 그당시 이곳에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무연고 의병 열분의 묘를 한곳에 모아 총을 만들고 묘역을 정화하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뜻을 영원히 기리고자 한다.

### 3. 의병항쟁사 년표

이 연표는 전국의 의병항쟁 연표중에서 황성지방에서의 의병활동과 황성출신 의병장의 활동상황, 그리고 이해를 돕기위하여 황성의병활동과 관련된 인근 시군의 의병활동상황을 년도순에 따라 일자순으로 열거하였다.

특히 옛지명의 확인및 해석상의 문제로 오기되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기록이 일본측의 자료에 근거하였으므로 상황중 인원등 상당부분에 사실보다 과소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연표상의 지명과 리수(거리)는 사건당시의 지명과 거리수치임도 밝혀둔다.

년	월	일	항 장 내 용
1905.	9.	.	후기의병 최초로 원용팔 박정수 의병조직
1905.	10.	.	원용팔 황성에서 일경에 피포
1907.	9.	8.	원주동쪽 20리 葛谷 고지에서교전
"	9.	22.	의병 약 350명 甲川里 및 鳳腹寺에서 공방전
"	10.	6.	의병 약 40명 장양리 2키로미터에서 교전
"	10.	21.	의병 약 300명 원주 동쪽 뉴치에서 접전
"	10.	26.	의병 약 300명 강원도 황성 屯村 부근에서 접전
"	10.	27.	의병 약간명 葛洞, 梅谷, 新岩洞에서 교전
"	10.	27.	의병 약 300명 牛山 부근에서 교전
"	12.	4.	의병 약 100명 강원도 長箭店 서남 약 50리에서 접전

년	월	일	항	정	내	용	
1907.	12.	7.	의병약	130명	강원도 長筋店	서방 茅坪里에 접전	
"	12.	8.	의병	약 70명	원주 동북약	40리 鶴谷 일 에서 교전	
"	12.	12.	의병	약 150명	횡성군 屯內面	에서 접전	
"	12.	14.	韓基錫	의병부대	약 300명	횡성군 청일면 柳 里에서 접전, 한기석의병장 피살됨	
"	12.	19.	閔肯鎬	의병부대	약 300명	橫城 동북방 6 리에서 공방전	
"	12.	28.	韓甲復	의병부대	약 30명	靑龍面 (橫城邑) 楸洞里에서 공방전, 한갑복의병장 피살됨.	
1908.	1.	3.	민금호	이인영	정환화	신들석 오영환 연합의 부대 약 1300명	강원도 일대에서 연합전
"	1.	10.	의병	약 40명	횡성 서방에서	공방전	
"	2.	18.	의병	약 34명	무장리 부근에서	공방전	
"	2.	29.	민금호	의병부대	약 90명	강원도 등자치 방 10리 결덕에서 교전, 민금호의병장 피포	
"	2.	29.	민금호	의병부대	약 60명	講林에서 교전, 민 호 탈환 실패, 민금호의병장 피살됨.	
"	3.	5.	의병	약 150명	횡성 東北	40리에서 교전	
"	3.	7.	의병	약 60명	횡성 동방에서	공방전	
"	3.	13.	의병	약 150명	횡성 북방	40리에서 공방	
"	4.	3.	의병	약 140명	횡성 서북	약 50리에서 교	
"	4.	19.	의병	약 150명	原州 동북	鶴谷에서 접전	
"	4.	19.	의병	약 30명	葛潭 북방	30리에서 교전	

년	월	일	항	장	내	용
1908.	4.	24.	의병	약 30명	高山 동방 50리에서	교전
"	5.	4.	이강년, 이준영, 정원팔 의병부대	약 260명	강원도 窓岩 남방 약 20리에서	접전
"	5.	5.	의병	약 70명	고산 서방 130리에서	교전
"	5.	5.	이간연 의병부대	약 250명	창암 동북 50리에서	접전
"	5.	11.	의병	약 70명	횡성 서방 下昌(蒼)峯에서	교전
"	5.	14.	의병	약 14명	홍천 동북 馬峴에서	교전
"	5.	18.	의병	약 20명	무장 동남 20리에서	교전
"	5.	28.	의병	약 50명	葛潭 서방 20리에서	교전
"	5.	30.	의병	약 20명	長筋店 서방 약 30리에서	교전
"	6.	3.	의병	약 50명	무장 동방 10리에서	교전
"	6.	3.	의병	약 70명	무장 서북방 20리에서	교전
"	6.	10.	의병	약 20명	무장 서북 20리에서	교전
"	6.	11.	의병	약 80명	立石里 부근에서	교전
"	6.	16.	의병	약 100명	무장리 서남 10리에서	교전
"	6.	28.	의병	약 50명	강원도 鳳腹寺 남방 10리에서	교전
"	6.	28.	의병	약 80명	원주 동방雲橋에서	교전
"	7.	30.	최천유 의병부대	강원도 鶴谷에서	교전, 최천유 일군에 피포	
"	8.	13.	의병	약 15명	학곡 북 30리에서	교전
"	8.	15.	의병	약 30명	立石里 동남 약 30리에서	교전
"	8.	31.	의병	약 8명	영월 동남 40리에서	교전
"	11.	23.	의병	약 35명	玉洞 서남 약 10리에서	교전

년	월	일	항	장	내	용
1908.	12.	7.	의병	약 20명	횡성 북방 10리에서	교전
1909.	1.	10.	의병	약 50명	강원도 安興 동남 약 120리	에서 교전
"	2.	8.	의병	약 50명	무장부근에서	교전
"	5.	5.	의병	약 20명	葛潭 북방 약 40리에서	교전
"	5.	20.	의병	약 40명	무장 부근에서	교전
"	8.	26.	의병	약 50명	무장 서북 약 20리에서	교전
1910.	4.	10.	의병	39명	高山驛 남방 25리에서	교전.

#### 4. 횡성의 항일인물

임진왜란에서 8.15 해방까지 항일항쟁에 참가 활동한 횡성의 인물을 조사수록 하였다.

의병활동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형편상 현지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문헌에 의존한 결과로 내용상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또한 횡성의 3.1 만세운동에 관련된 인물은 於斯買 제 4집에 「횡성의 3.1 운동」을 게재 할 계획이어서 생략하였음을 밝혀둔다.

#### —韓 相烈—

일제의 침략하에서 조국 광복을 위하여 의병대장으로 눈부시게 활약한 한상열은 隅川面 文岩里에서 1876년 4월 2일 韓東洙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字를 文極이라고 했다.

그는 어려서 부터 남달리 강한 용기와 인내심으로 놀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다. 어린나이였지만 다른 아이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넓은 포용력을 지니고 있었다. 비교적 풍족하고 다복한 가정에서 자라며 어린시절을 보내고 청년이 되었을때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당하게 되니 일제의 침략으로 부터 나라를 구하고자 결심을 굳힌다. 침략자를 토벌할것을 결심한 그는 같은 뜻을 가진 인물들을 모아서 1907년 8월 鄉里인 橫城에서 의병을 일으켜 대장이 되어 일제의 탄압에 항거 대항하였다. 의병수는 최초에 200여명이었고 가장 왕성한 때에는 1200여명에 달하였으며 그들의 기상 또한 분노에 가득차고 생기가 왕성하였다. 한상열 先生은 이러한 의병들을 통솔하여 韓甲復, 閔肯鎬, 李仁榮 의병부대와 더불어 砥平(지금의 楊平), 洪川, 原州, 平昌, 寧越 등지를 무대로하여 日本軍과 싸우기를 무려 500여회에 이르고 많은 日本兵을 도륙하였고 무기, 탄약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특히 1908년 2월에 흥천에서 있었던 일본군 대부대와

의 대회전에 적을 격퇴시키는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에 충격을 받은 일본군은 그해 4월 2일 문암리에 살고 있던 한상열의 처자를 납치해다 놓고 선생의 귀순을 강요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다시 안정된 생활의 보장등 온갖 건을 제시하여 회유하기도 하였지만 「나자신의 일 보다는 조국을 위협에서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결의를 보인다.

야비한 그들의 온갖 회유와 협박 수단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4월 20일에는 횡성읍을 습격하니 일본인의 간담을 썩늘하게 했다. 그러나 이로인하여 선생의 집은 불태워지고 수많은 전, 담, 임야등 재산이 몰수되고 가족은 뿔뿔히 흩어지는 가정적인 불행을 겪었다. 이토록 한상열의 병장은 맹렬한 항일투쟁을 계속하였으나 도처에서 전개되는 의병활동을 봉쇄하기 위해 일본군이 병력을 크게 증강하고 소위 대토벌작전을 전개하는 바람에 우리의 의병들은 하나씩 解散 내지 敗散 됨에 따라 국내 항일투쟁에 한계를 느낀 선생은 1920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투사들과 결합하고 대한의용부에 가담하여 참모의 중책을 맡아 활약 하였다.

선생은 1926년 대한 독립단 참모로 취임하여 항일투쟁을 계속하던중 이해 9월 19일 민족진영의 分烈과 沒洛을 책동하는 소위 駐中靑年總聯盟의 공산당원들의 흉탄에 맞아 조국의 광복을 보지도 못한채 이국 땅에서 동족의 손에 의해 5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자신의생애를 불태워 조국을 위해 희생한 한상열의 병장은 어떠한 탄압과 고난앞에도 굴하지 않고 거레 앞에 순종한 애국심은 항일사에 화려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선생은 1963년 정부로 부터 光復軍으로 활약한 建國勳章 國民章을 추서받았다.

—韓 基錫—

횡성출신의 의병대장으로 原州진위대소속의 진위대원이었으나 구한국군의 해산으로 유명한 민공호의병대장과 함께 의병대장이 되어 고향인 횡성지방에서 많은 의병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07년 12월 14일 晴日面 柳洞里에서 300여명의 의병부대를 이끌고 접전하여 많은 적을 섬멸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피살되었다.

—韓 甲復—

한갑복 의병장은 한기석, 민공호와 함께 원주진위대 대원으로 있다가 구한국 강제해산으로 의병을 도모하여 횡성지방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1907년 12월 28일 靑龍面(지금의 橫城邑의 일부) 추리동리에서 의병 약 30명을 거느리고 일본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다가 순절하였다.

—崔 仁舜—

일본이 이땅을 강점하자 崔仁舜은 의병장이 되어 경기도 의정부를 비롯하여 충청도와 경상도를 종횡으로 누비며 일본군과 대항하였다.

최인순은 원주진위대 李參頌대대 휘하의 소모대장으로 있을때에 갑자기 일본군이 원주를 습격한다는 소식을 듣게되자 대장인 李參頌이 이에 겁을 먹고 800여명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무기고를 버린채 도망을 서둘렀다.

최대장이 이대대장을 찾아가 「나라가 태평할 때는 국록을 먹고 이제 국운이 불길하니 도망하려고 하느냐」고 대노하여 꾸짖으며 울음을 터트렸다.

그는 흩어진 해산군을 다시 찾아 모아서 백여명으로 군대를 재편성하여 무기고를 열고 대원들에게 무기를 지급하여 일본군과 대항하였으며 1907년 7월경이 고향인 횡성으로 돌아와 우천, 안흥, 강림지역과 平昌郡 雲稿, 大和등지에서 격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러한때에 강림지역에서 활동하던 閔肯鎬가 불행하게도 적에게 사로잡혀 전사하는등 피해가 크자 최대장은 남은 병사들을 다시모아 정돈하여 강릉지

방으로 진격하나 강릉 못미처 「배다리」부근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전사 하였으니 그의 나이 43세에 아까운 때로서 조국광복을 위해 더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일생을 마쳤다.

1968년 의병활동의 공로로 건국표창 대통령 포장을 받았다.

朴性默, 權大亨, 洪在龜

1985년 명성황후시해사건으로 불붙기 시작했던 의병활동에 가담했던 이고장출의 의병대장 朴性默, 權大亨, 洪在龜는 함께 횡성지방에서 크게 활약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자세한 활동상황을 상고한 길이 없는 것이 아쉽다.

—吳 正默—

구한말 橫城面의 書記로 있던 오정묵은 일제의 침략과 학정에 비분강개하여 안정된 생활이 보장된 공직을 그만두고 의병으로 변신하여 이지방의 산포수와 노동자, 농민을 모아서 의병을 조직하여 1907년부터 의병대장으로 일본군을 무찌르며 크게 활약하였다.

—朴 正洙—

朴正洙는 晴日面 古時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가난한 농부로 생활하면서도 동네에서 발생하는 吉凶事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정의감과 공명심이 강하여 사리와 윤리도덕에 벗어나는 행실이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며 이를 바르게 가르치고 타이르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

그가 장정이 되었을때 東學亂이 일어나 동학군을 만들어 왜놈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거출병하여 동학군에 가담하여 왜병과 싸우다가 불행하게도 왜병에게 체포되었다.

왜병은 박정수씨를 고문하며 동학군의 근거지를 실토하라고 강요했으나 그는 말을 하지 않자 화가난 왜병들은 가진 고문을 가하면서 동학군의 동향과 정보를 얻으려 했으나 끝내 말을하지 않고 모진 고문에 혼절하고 말았다.

그는 하루를 혼수상태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의식을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심한 고문에 불구자가 되고 말았다.

불구가되어 고향에 돌아온 박정수씨는 불편한 몸으로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내다 조국광복의 한을 간직한채 농부로서 일생을 마쳤다.

—鄭 文在—

晴日面 新垆里에서 살고있던 鄭文在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그는 성격이 활달하였고 武容을 즐겨 아버지로 부터 전수받은 화포술에 능통하여 농한기가 되면 동리 청년들과 사냥하기를 즐겼다.

그가 27세가 되던해에 동학란이 일어나고 왜병이 쳐들어와 동학군을 진압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鄭文在은 왜병들과 싸우기 위해 火砲를 들고 出兵하였다.

화포의 명사수인 그는 횡성, 원주, 흥천등지에서 의병의 선봉장이 되어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서 왜병을 물리치다가 불행하게도 下腹部에 관통상을 입고 귀가하였다.

가족들의 정성으로 건강은 회복하였으나 몸이 자유롭지 못하여 농사일도 지난날처럼하지 못하고 즐기던 사냥도 하지못하며 나라의 앞일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여생을 보내다가 81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그의 묘소는 속칭 새터마을 동산에 있으며 지금도 이마을 사람들은 그의 화포술과 용맹스러웠던 무용담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있다.

—朴 渾—

횡성사람으로 조선시대에 무관이다. 그는 무과에 등과하여 선조 25년인 1592년 壬辰란이 일어나자 春川地方 전투에 참전하여 선봉에 서서 수많은 적을 사살하는 공훈을 세우며 힘을 다해 싸웠으나 끝내 전사하였다. 후에 조정에서 큰 벼슬을 내렸다.

—李 沃—

횡성사람으로 조선시대의 무관이다. 문과에 등과하였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朴渾과 함께 춘천지방 전투에서 함께 참전하여 왜적과 싸우다가 많은 전공을 올리고 전사하였다.

역시 후에 벼슬을 증직하였다.

— 崔 養玉 —

崔養玉지사는 1893年 12월 5일 갑천면 화전리에서 태어나 原州普通學校를 졸업하고 서울 中東中學校에 다니던중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인 황성에 내려와 천도교인들과 합세하여 동지를 모아 황성의 만세운동을 전개하고 일경을 피해 서울을 거쳐 만주로 들어가 독립군에 가담 이동녕 박은식으로 부터 군자금 모금을 지령받고 서울로 다시 돌아와 「만주농림주식회사」를 창립하여 표면상 기업인으로 활동하며 1920년 7월 신덕영 노형규등과 함께 扶韓청년단을 조직하였고 동 회사의 주식모집원으로 가장 전남각지에서 군자금을 모아 상해임시정부로 보낸다.

지사는 11월 5일 전남 담양. 곡성지방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광주로 자동차를 타고 가던중 일경에게 피포되어 1926년까지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룬 뒤 출감, 고향인 황성에 돌아 왔으나 부친은 이미 4개월전 별세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말이 아니었으나 조국광복을 위하여 바친몸이라 불고가사하고 다시 만주로 망명하여 중국 山西省의 太原府에서 安昌男, 李容華, 金正連등과 더불어 동지를 모아 共鳴團을 조직하고 단장에 피선되어 1927년 북만주에서 독립군비행사 양성을 목적으로 비행학교설립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기금모집과 공명단 서울지부 조직을 위해 서울에 동지들과 1929년 4월 잠입하여 첫번째 거사로 동 20일 서울교외 망우리에서 춘천으로 가는 우편물수송열차를 권총으로 습격하는데 성공하여 일행은 차속의 우편낭을 뒤져 돈을 빼앗고 동포의 우편물만 남겨두고 일인의 우편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으며 이때 이곳을 지나던 차량을 모두 정차시키고 운전수와 승객의 눈을 가리고 산속으로 끌고가 영좌시키니 그 수효가 70인이었다. 이같이 산밖으로 정보가 새지않게 한 후 행장을 수습 강원도쪽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뒤미처 급보를 받은 일경은 경기. 황해. 강원. 충북. 충남등의 5개도의 일경과 일본군 제 19사단의 용원을 얻어 양주의 天摩山을 포위 대규모 작전을 전개하여 지사일행은 이들을 상대로 전투를 망우리고개와 마치고개를 넘나 들면서 1주야를 악전고투하였으나 탄환은 떨어지고 배는 굶아 세력은 극히 약화

되어 아깝게 일경에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1년간의 예심을 거쳐 징역 10년을 언도받고 김정연은 9년 이선구는 6년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에서 복역하던중 이선구는 병사하고 지사는 10년이란 긴세월을 옥중에서 보내고 만기 출옥하였다.

지사는 1945년 광복후에는 서울형무소서무과장과 인천형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만년을 향리인 갑천면 전촌리에서 보내다가 1982년 87세의 나이로 별세 하였으며 1962년 國民章을 받았다.

#### — 金氏 婦人 —

의열여 강릉金氏 부인은 조선 선조때의 사람으로 횡성군 갑천면 포동리에서 남편 鄭俊濟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중 선조 25년(1592년) 4월 평화롭던 이나라를 살육과 약탈의 도가니로 몰아 넣은 壬辰倭亂이 일어났다. 남편 정씨는 비록 농민이었지만 나라를 위협으로 부터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의병이 되어 全羅道地方으로 出兵하였고 부인김씨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깊은 산속으로 피난을 했다.

전라도 의병에 가담한 정씨는 용감하게 싸우면서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불행히도 싸움터에서 큰부상을 입었다.

이소식은 이곳에까지 더러는 전사했다고 혹은 부상당하여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고향을 찾아오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소식에 접한 김씨부인은 남편이 죽었으면 시체라도 수습하여 장례를 지내고 부상을 입었으며 찾아서 간호하여야 한다며 이웃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백리 길을 몇일을 두고 혼자 걸어서 전라도 땅에 도착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산간초막헛간에 짐승처럼 버려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으나 남편은 기력이 쇠진하고 부상당한 팔과 다리는 치료를 하지 못해 썩어들어 갔고 입은 의복은 갈래 갈래 찢기고 피에 찌들었으며 음식을 먹지 못하여 皮骨이 相接한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남편과 상봉한 정씨는 남편곁에 정신을 잃고 쓸어졌다가 이내 정신을 차려 남편의 手足을 주물러서 정신을 차리게 한후 마을에 내려가 밥을 얻고 술을 빌려다 죽을 만들어 남편에게 먹이며 정성껏 간호했으나 보람도 없이 그날밤

고열이 나고 몸이 뒤틀리며 소리를 지르더니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하였다.

남편을 잃은 김씨부인은 비통함과 슬픔을 참을 길 없어 몇일간을 통곡하며 지냈으나 난리통에 타관의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 부인은 마음을 가다듬고 시신을 마을로 부터 한적한 곳으로 옮긴 다음 찬이슬을 맞으며 장기간 同宿하였더니 시체가 말라 가볍고 깨끗하여지므로 손수 시체를 수습하여 머리에 이고 며칠을 홀로 수백리길을 걸어 고향인 갑천면 포동리 「마무리」 마을에 돌아와서 연일정씨 문중 소유인 마을 동산에 손수 장례를 치렀다. 장례 후에도 남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묘소옆에 움막을 짓고 시묘를 살면서 날마다 치마폭으로 돌을 날라 묘소둘레에 화담을 쌓으며 3년을 지냈다.

그후 이 소문이 널리 알려지니 儒林에서 김씨부인의 정성을 가상히 여겨 추천하여 조정에서 정씨문중에 교지를 하사하고 烈女旌門을 건립케 하였다.

이때에 건립된 정문이 갑천면 포동리마을 이귀에 있는 「鄭俊濟처 金氏 열여각」으로 정씨 부인의 가륜한 지성과 부덕을 기리고 있다.

## 맺 는 말

이상으로 우리가 모르고 지나왔거나 까맣게 잊어버렸던 우리고장의 끈질기고 자랑스러웠던, 그 찬란한 횡성의 의병항쟁사에 대하여 가능한 한 활동상황 항쟁일지 인물사에 대하여 상고해보자 하였다.

이 글을 기고하면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자료와 연구의 미흡으로 충실을 기하지 못하였음에 송구스러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고장이 비록 크고 대단한 고장은 아닐지라도 반만년 역사를 되돌아 볼때 다른 어느 고장에 견주어도 단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무한한 자랑스러움을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을 붙여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더군다나 의병장으로 혹은 이름없는 의병으로 이슬처럼 스러져간 그들의 대부분이 토호도 고관대작도 아닌 평범한 농민이요. 상인이며 심지어 천시받던 산포수들도 앞다투어 일어섰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의 안일을 돌보지 않고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으며 더러는 보장된 부귀와 영화도 스스로 거부한 채 가족과 가산을 송두리채 앗기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불행을 감내하면서 스스로 한떨기 꽃으로 슬어져 가면서 이나라 독립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렇게 이름없이 아무 자취도 남김없이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또 너무나 까맣게 잊고 오늘의 삶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부끄러움이 앞선다.

그분들의 성스러웠던 항쟁이 횡성의 3·1운동이라는 빛나는 전통으로 이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떳떳하게 「횡성을 애국의 고장」이란 자부위 긍지의 씨알이 되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영 그들의 자랑스러운 후예이라면 이분들과 이분들의 행적에 대하여 좀더 연구하고 배워야 하며, 또 그분들의 희생과 더불어 멀문지화를 당하였을 그 후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거슬러 올라가며 더듬어 보아야 할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그분들이 태어난곳. 그분들이 싸우던 곳. 그분들이 전사한 곳 그분들의 연고가 있는 곳에 오늘날 번영과 행복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가 조그마한 정표라도 남겨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고 후세에 길이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닐런지—

## 86년도 사업계획

월 별	사 업 내 용	비 고
1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li> <li>○ 86 사무정리 작업</li> </ul>	
2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동</li> </ul>	
3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6 사업계획수립 및 총회준비</li> <li>○ 총회개최</li> <li>○ 내고장 문화논단 개최</li> </ul>	
4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기문화보 발행</li> <li>○ 향토사료 발굴조사위원회 구성</li> <li>○ 경노, 효친사상 선양 읍. 면순회강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 4명</li> <li>• 읍. 면 8회</li> </ul>
5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생대회 개최</li> <li>○ 동화대회 개최</li> <li>○ 선행학생 선발 표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 3명</li> </ul>
6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회원 위로예술회 개최</li> <li>○ 내고장 문화논단 개최</li> <li>○ 태기문화보 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원, 유치원 학교협찬</li> </ul>
7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노, 효친 수범사례 발표회 개최</li> <li>○ 효행자 선발 표창</li> <li>○ 청소년 문화강좌 운영</li> </ul>	
8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복 제 41주년 기념 문화강연회 개최</li> <li>○ 태기문화보 발행</li> <li>○ 청소년 문화강좌 운영</li> </ul>	
9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토사료발굴조사내용 원고완료</li> <li>○ 문예지 원고 청탁</li> <li>○ 내고장 문화논단 개최</li> </ul>	
10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풍문화제 개최 (민속놀이 경연)</li> <li>○ 태기문화보 발행</li> <li>○ 향토문화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li> </ul>	
11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토사료집 발간</li> <li>○ 문예지(제 4호) 발간</li> </ul>	
12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고장 문화 논단 개최</li> <li>○ 태기문화보 발행</li> </ul>	

\* 편 집 후 기 \*

부끄럽지 않기 기대하면서 벌써 세번째 책을 두터운 마음으로 내놓는다.

정성을 다해 보내주신 옥고들이 재 빛을 다 발할 수 있게 하자고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했지만 웬지 산고의 아픔은 씩씩하기만 하다.

너무나 작은 그릇들이 모여 문화와 예술이란 너무나 큰 그릇을 채우고자 한 것이 과욕의 산물이 아닐런지—

그러나 이 세번째의 「於斯買」가 지방문화발전의 작은 씨알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한번 다음 4, 5, 6……호는 부끄럽고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내놓을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위원   김정기   정재영  
                  김승기   이상천



